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2023. 11.

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23.04.10.~11.10.

연구책임자	민희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원익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원	도묘연	계명대학교
공동연구원	김태완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원	이고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원	곽동진	고려대학교

<목차>

I. 연구 목적 및 개요	1
1. 연구 목적	1
2.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5
II.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10
1.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분석	10
2. 예산 변화와 청년정책	37
1) 부산 청년정책 예산 변화(2022~23)	3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	42
III.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	43
1. 부산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본 부산 청년	43
1) 방법론	43
2) 부산 청년현황 개요	44
3) 부산 청년 삶의 현주소	57
4) 소결	90
2.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해 본 부산 청년	94
1) FGI 시행 목적	94
2) FGI 설계 및 절차	94
3) FGI 결과해석	97
4) 소결	118
IV.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주요 지자체와의 비교 ..	124
1. 개요: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124

2.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	128
3. 가족 이행 경로	133
4.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140
V. 주요 지자체 및 해외의 청년정책 동향	151
1. 주요 지자체	151
2. 해외 국가	157
VI.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2024~28) 방향	167
1. 분야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167
2. 청년 삶, 청년정책 그리고 부산	169
1) 다중격차시대, 이질적 집단 ‘청년’	169
2) 삶의 질의 종합적 제고방안 ‘청년정책’	172
3) 지역격차시대, 기회의 경유지이자 미래의 정착지 ‘부산’	174
3. 비전 및 추진전략	176
4. 핵심 세부사업	178
1) 일자리 분야	178
2) 교육 분야	197
3) 주거 분야	214
4) 복지 분야	239
5) 문화 분야	249
6) 참여·권리 분야	260
※ 참고문헌	279

<그림 목차>

<그림 1-1> 부산 청년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1
<그림 1-2> 부산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3
<그림 1-3> 2022년 4개 분야별 25개 정책	4
<그림 1-4>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도약기에서 안정기로	5
<그림 1-5> 과업수행 내용	6
<그림 2-1>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지표	10
<그림 2-2>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11
<그림 2-3> 주요 사업의 추진 달성률(%) (2021~2022)	15
<그림 2-4>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주거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16
<그림 2-5>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19
<그림 2-6>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20
<그림 2-7>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23
<그림 2-8> 2023년 복지문화 분야 사업 수	24
<그림 2-9> 2023년 복지문화 분야 예산	24
<그림 2-10>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32
<그림 2-11> 2023년 참여권리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32
<그림 2-12>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36
<그림 2-13> 부산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3)	37
<그림 2-14> 2023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38
<그림 2-15> 2023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국비·시비·구비 비율(%)	38
<그림 2-16> 세부 사업 분야별 국비/시비 현황(2022~2023)	39
<그림 2-17> 일자리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 (2022~2023)	39
<그림 2-18> 주거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40
<그림 2-19> 교육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41
<그림 2-20> 복지문화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41
<그림 3-1> 청년인구 추이(%)	45
<그림 3-2> 부산 전체/청년인구 추이	45
<그림 3-3> 부산 청년 순전입인구 추이(명)와 전입지역 비율(%) 추이	47
<그림 3-4> 부산 청년 순전출인구 추이(명)와 전출지역 비율(%) 추이	47
<그림 3-5> 부산 청년 전입사유 비율(%) 추이	48

<그림 3-6> 부산 청년 전출사유 비율(%)	49
<그림 3-7> 청년 실업률 추이(%) (2000~2022)	49
<그림 3-8> 주요 광역지자체 기업규모별 종사자수(명, 2020)	50
<그림 3-9> 연령집단별 생활 수준 만족도	52
<그림 3-10> 집단별 미래 안정성 만족도(연령/결혼의향)	52
<그림 3-11> 젠더별 개인 시간 만족도	53
<그림 3-12> 집단별 행복의 조건 선택 비율(%)	55
<그림 3-13> 연령집단별 행복의 조건 충족도	55
<그림 3-14> 연령집단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 희망 비율(%)	56
<그림 3-15> 현 직장 유형(%)	57
<그림 3-16> 현 직장 종사자 비율(%)	58
<그림 3-17> 현 일자리 직종(%)	59
<그림 3-18> 현 직장 고용형태(%)	59
<그림 3-19> 주된 일자리(%)	60
<그림 3-20> 이직하고 싶은 기업체(%)	61
<그림 3-21> 일자리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61
<그림 3-22> 중소기업 취업 의사(%)	62
<그림 3-23> 중소기업 회피 이유(%)	63
<그림 3-24> 부산 청년의 주민등록지역 및 실거주지역(%)	64
<그림 3-25> 부산 지역별 청년 독립거주 비율(%)	64
<그림 3-26> 부산 지역별 청년 1인가구 비율(%)	65
<그림 3-27> 부산 연령대별 청년 1인가구 비율(%)	66
<그림 3-28> 주요 광역지자체의 청년 1인가구 추이	66
<그림 3-29> 부산 젠더별/연령별 청년 1인가구 추이	67
<그림 3-30> 주택 유형(%)	67
<그림 3-31> 독립거주 여부에 따른 주택 유형 비율(%)	68
<그림 3-32> 주택 점유 형태(%)	69
<그림 3-33> 독립거주 여부에 따른 주택 점유 형태(%)	69
<그림 3-34> 자가보유 청년의 주거비용 대출 여부(%)	70
<그림 3-35> 주택보유 의향(%)	71
<그림 3-36> 집의 의미(%)	72
<그림 3-37> 주거환경의 안전에 대한 인식(%)	73
<그림 3-38>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73

<그림 3-39> 주변 범죄 노출 여부(%)	74
<그림 3-40>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75
<그림 3-41> 출신 대학 소재지(%)	75
<그림 3-42> 구직 활동기간(%)	76
<그림 3-43> 학력 대비 업무 수준에 대한 인식(%)	77
<그림 3-44> 직업교육 이수 경험(%)	78
<그림 3-45> 직업교육 이수 의사(%)	78
<그림 3-46> 구직활동 필요사항(%)	79
<그림 3-47> 평균 여가활동 시간(%)	80
<그림 3-48>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81
<그림 3-49> 부산 문화시설 이용 여부(%)	81
<그림 3-50> 부산 문화시설 만족도(%)	82
<그림 3-51>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에 대한 만족도(%)	83
<그림 3-52> 청년센터 분야별 이용 만족도(%)	83
<그림 3-53> 커뮤니티 활동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2019~2021)	84
<그림 3-54> 커뮤니티 활동지원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2019~2021)	85
<그림 3-55> 청년학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86
<그림 3-56> 분야별 주요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요(%)	87
<그림 3-57>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88
<그림 3-58> 연령 집단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88
<그림 3-59> 결혼 의향집단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89
<그림 3-60> 교육수준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89
<그림 3-61> 부모독립 여부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89
<그림 3-62> 연령집단별 청년정책 정보 획득 경로 비율(%)	90
<그림 3-63> 20대 초중반 청년 FGI 결과 요약	97
<그림 3-64> 20대 후반 청년 FGI 결과 요약	101
<그림 3-65> 30대 초중반 청년 FGI 결과 요약	106
<그림 3-66> 30대 후반 성인 FGI 결과 요약	110
<그림 4-1> 고교 졸업 여부	128
<그림 4-2> 대학 졸업유예 여부	129
<그림 4-3> 구직기간(개월)	130
<그림 4-4> 고교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개월)	131
<그림 4-5>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개월)	131

<그림 4-6> 첫 직장 재직기간(개월)	132
<그림 4-7> 14세 성장 거주지	134
<그림 4-8> 14세 성장 시 부모 동거 여부	135
<그림 4-9> 14세 성장 시 주거 형태	135
<그림 4-10> 14세 성장 시 부모의 직업	136
<그림 4-11> 부모의 최종학력	137
<그림 4-12> 분가 여부	137
<그림 4-13> 분가(독립)의 이유	138
<그림 4-14> 결혼 및 자녀 유무	138
<그림 4-15> 부산 청년 생애 이행 경로 유형	142
<그림 4-16> 부산 청년의 젠더별 생애 이행 경로 유형	143
<그림 4-17>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144
<그림 4-18>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남성)	145
<그림 4-19> 서울-부산 청년 남성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146
<그림 4-20>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여성)	147
<그림 4-21> 서울-부산 청년 여성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148
<그림 4-22> 부산 청년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비교(남성·여성)	149
<그림 4-23>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방향	150
<그림 5-1> 서울 2023 서울청년 종합계획	151
<그림 5-2> 서울 청년정책 현황	152
<그림 5-3> 서울 청년정책 추진방향	152
<그림 5-4> 인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중점 전략과제	153
<그림 5-5> 인천 청년정책 방향	154
<그림 5-6> 대구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155
<그림 5-7> 대구 청년보장제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155
<그림 5-8> 제2기 광주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156
<그림 5-9> 일본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	158
<그림 5-10>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프로그램 구성도	160
<그림 5-11> 주거/생활안정 사례: 이탈리아 'Casa a Euro' 프로그램	161
<그림 5-12> 일본 'Akiya Bank' 홈페이지	162
<그림 5-13> 미국 캔자스시티의 Art in the Loop 출품 작품	164
<그림 6-1> 청년가구 평균 부채 추이	169
<그림 6-2> 청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대출 증가율(%)	170

<그림 6-3> 연령별 신용대출 목적 비교	170
<그림 6-4>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의 격차	172
<그림 6-5> 청년의 양극화-고용, 소득, 사회보험의 안정성	172
<그림 6-6> 청년의 생애 경로 지형: 교육-노동시장	173
<그림 6-7> 청년의 생애 경로 지형: 노동시장-결혼·출산	174
<그림 6-8> 1기 부산 청년정책 흐름	176
<그림 6-9>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비전 및 추진전략	177
<그림 6-10>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일자리 분야	181
<그림 6-11>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일자리 분야	184
<그림 6-1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185
<그림 6-13>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방향: 교육 분야	199
<그림 6-14>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교육 분야	201
<그림 6-15> 주거 분야 정책 및 예산 추이	215
<그림 6-16>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주거 분야	217
<그림 6-17>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추이	218
<그림 6-18>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추이	219
<그림 6-19> 부산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주거 분야	221
<그림 6-20> 서울 이사비 지원 포스터	231
<그림 6-21> 서울 안심이앱 서비스 흐름도	234
<그림 6-22> 광주 광산구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홍보물	235
<그림 6-23>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화면	237
<그림 6-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238
<그림 6-25> 연령대별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2018~2022)	240
<그림 6-26>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복지 분야	241
<그림 6-27>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복지 분야	242
<그림 6-28>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246
<그림 6-29>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문화 분야	251
<그림 6-30>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문화 분야	252
<그림 6-31>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참여·권리 분야	262
<그림 6-32>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참여·권리 분야	263

<표 목차>

<표 1-1> 제1기 청년정책 추진체계	2
<표 1-2>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과제 규모(2019~2023)	3
<표 1-3> 연도별 청년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변화	4
<표 2-1>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현황	12
<표 2-2>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대상	13
<표 2-3> 일자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15
<표 2-4>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주거분야 사업 현황	17
<표 2-5> 주거 분야-주거비 경감 사업 대상	17
<표 2-6> 주거 분야-주거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	18
<표 2-7> 주거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18
<표 2-8>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분야 사업 현황	21
<표 2-9>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 분야 사업 대상	22
<표 2-10> 교육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23
<표 2-11> 2023년 부산 청년정책 복지분야 사업 현황	25
<표 2-12> 2023년 부산 문화분야 사업 현황	26
<표 2-13> 2023년 부산 청년정책 복지분야-자산형성지원 사업	27
<표 2-14> 청년 부채문제 해결 및 자산형성지원 관련 주요 사업	29
<표 2-15> 청년 문화 공간 조성 및 문화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30
<표 2-16>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 주요 사업	31
<표 2-17>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참여권리분야 사업 현황	33
<표 2-18>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35
<표 2-19>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35
<표 2-20>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36
<표 3-1> FGI 집단구성 참가자 조건 내용	95
<표 3-2> FGI 조사 항목 및 질문 내용 구성	96
<표 3-3> FGI '가' 그룹 참가자 정보	97
<표 3-4> FGI '나' 그룹 참가자 정보	101
<표 3-5> FGI '다' 그룹 참가자 정보	105
<표 3-6> FGI '라' 그룹 참가자 정보	109
<표 3-7> 주거 형태 특성에 따른 참가자 분류	114
<표 3-8> 취업상태에 따른 참가자 분류	116

<표 3-9> 청년 해당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른 참가자 분류	117
<표 4-1>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 유형	127
<표 4-2> 휴학·졸업 유예·군복무 소요 기간	130
<표 4-3> 구직 관련 경험	132
<표 4-4> 전국 및 특·광역시별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유형 분포	141
<표 4-5> 부산 청년의 젠더별 생애 이행 경로 유형별 현황	143
<표 4-6> 서울-부산 청년 남성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146
<표 4-7> 서울-부산 청년 여성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147
<표 4-8> 부산 청년 남성과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148
<표 6-1> 2기 청년정책 주요사업 및 예산추계	167
<표 6-2> 청끝기업 육성 단계	187
<표 6-3> RIS 주요사업체계	203
<표 6-4> 2기 참여·권리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261
<표 6-5> 청년활동 마일리지 지원체계	272

I. 연구 목적 및 개요

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제2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과제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현재 부산은 2017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 비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중심으로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그림 1-1> 부산 청년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018)

- 제1기 청년정책은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함.

○ 조직

- 2017년 청년정책팀, 2018년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됨. 이후 2018년 청년정책담당관 조직개편, 2019년 청년희망정책과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2021년 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산학창업국이 신설되면서 청년산학창업국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됨. 청년산학창업국은 2022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청년산학국으로 조직이 개편됨. 현재 청년산학국 산하 청년희망정책과, 지산학협력과, 창조교육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 및 시행되고 있음.

○ 정책 거버넌스

- 2017년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됨(8개 분과 62명)
- 2018년 제1기 부산 청년위원회가 출범함. 3개 분과 67명으로 운영되었으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연도별 추진실적평가를 담당함.
- 2019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함. 116명으로 운영되었으며 청년정책 및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 및 토론하는 역할을 함.
- 2020년 제2기 청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21년에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2021년 부산청년센터가 개소됨. 이는 청년정책결정과정의 청년참여 확대, 청년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함.
- 2022년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하여 청년정책 심의 및 정책 대상자 의견수렴 등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표 1-1> 제1기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분	내 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청년정책팀 신설 - 2018년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및 조직개편 - 2019년 청년희망정책과 조직개편 - 2021년 청년산학창업국 신설 - 2022년 청년산학국으로 조직개편
정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2018년 부산시 청년위원회 출범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기 청년위원회, ('20) 2기 청년위원회 • ('21) 명칭 변경(청년위원회→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2)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 2019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및 운영 - 2021년 부산청년센터 개소

*출처: 2019~2021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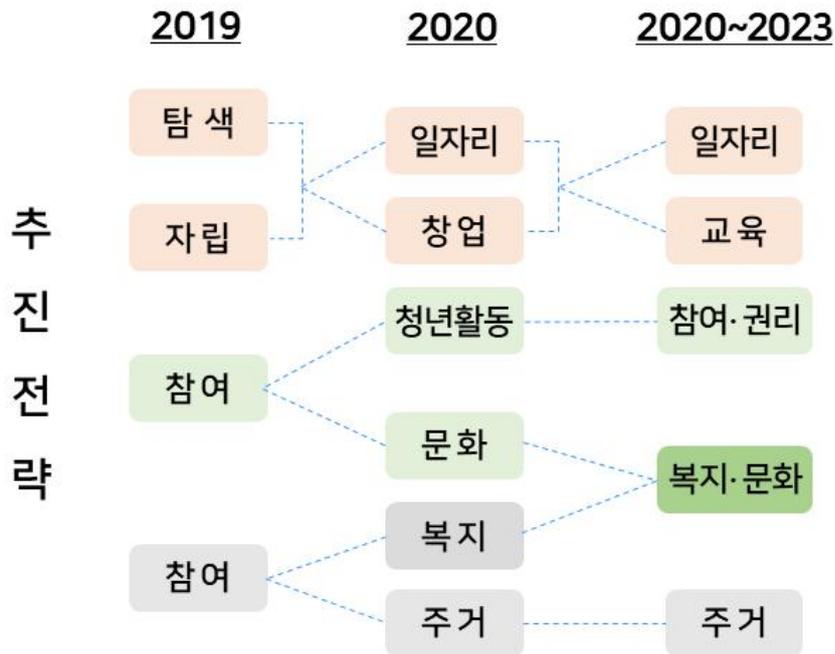
□ 이상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함.

○ 제1기 기본계획은 2019년 7월 제시된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과 2020년 2월 4일 제정, 동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의 영향으로 초기의 계획에서 다소 변화가 발생함.

-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시작된 2019년 시행계획은 ‘탐색’, ‘참여’, ‘자립’, ‘안정’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됨.
- 2020년 시행계획은 제1기 기본계획의 원형에 청년정책 로드맵이 반영된 것으로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청년활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됨.

- 그러나,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및 추진됨으로써 부산의 기본계획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통일되도록 수정됨.
 - 2021, 2022, 2023년의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됨.

<그림 1-2> 부산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출처: 2019~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과제 규모는 다음과 같음(<표 1-2> 참조).

<표 1-2>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과제 규모(2019~2023) (단위: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자리	45	28	21	27	26
주거	8	13	7	13	13
복지	5	10	16	37	37
문화	14	16			
청년활동	10	6	-	-	-
참여권리	-	-	16	20	22
교육	-	-	13	24	23
창업	14	14	-	-	-
총계	96	87	73	121	121

*출처: 2019~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 특히, 2022년은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부산시 청년정책 브랜드 ‘청년G대’를 수립 및 시행함. 구체적으로 일자리(Good job), 주거·생활(Good life), 문화·활동(Good play), 참여·권리(Good voice) 4개 분야별 25개 중점과제가 시행됨.

<그림 1-3> 2022년 4개 분야별 25개 정책



2023년 총 121개 사업 2,233억원 (국비 1,299, 시비 897, 구·군 37)

*출처: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

□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청년정책의 사업규모 및 예산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3년의 경우 2022년 121개 사업 1,959억원 대비, 274억원이 증가함(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3/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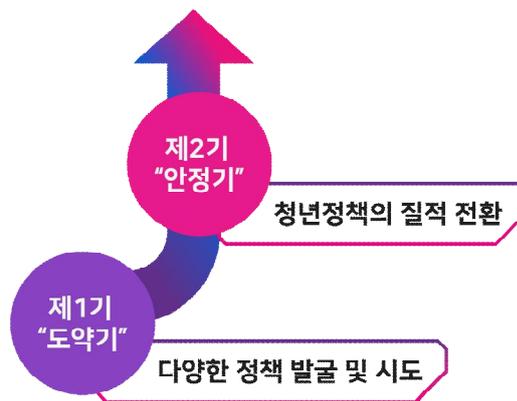
<표 1-3> 연도별 청년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변화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96	87	73	121	121
예산	92,077	97,383	82,533	195,936	223,350

*출처: 2019~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 요컨대,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또한 부산시정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정책추진과정에 다소 부침이 있었음.
- 이에 ‘제2기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제도화의 ‘안정기’를 목표로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핵심 과제를 수립함.
 - 제1기 기본계획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청년정책의 “도약기”적 성격이 강했음.
 - 제2기 기본계획은 그간의 정책을 개선 및 발전시켜 청년정책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야 함. 또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부산 청년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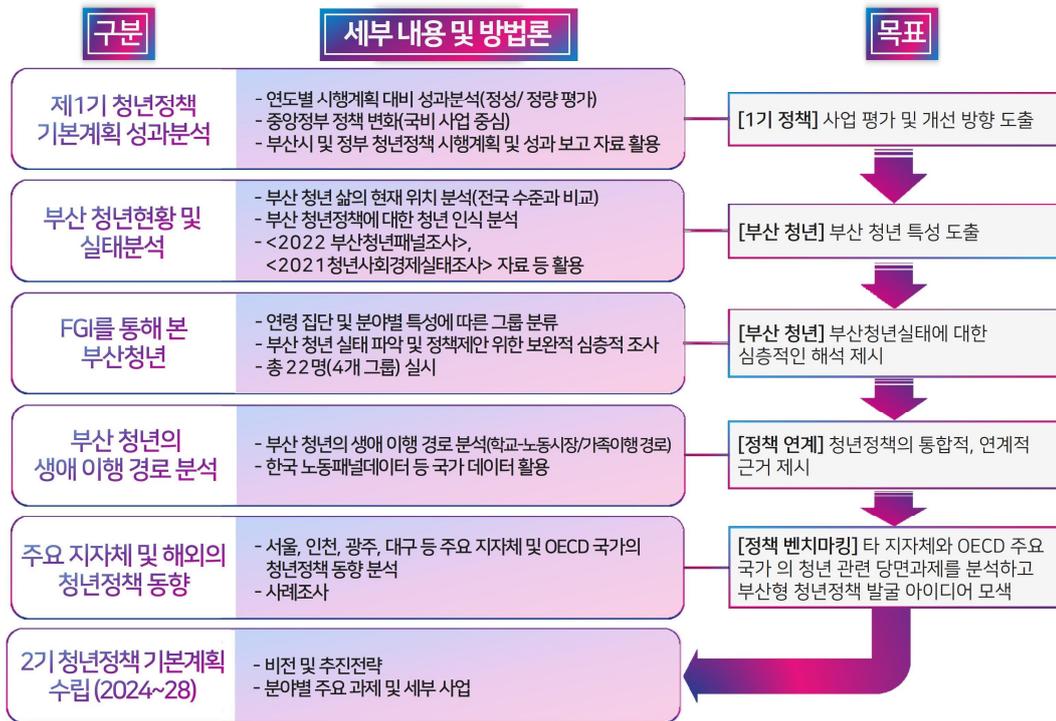
<그림 1-4>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도약기에서 안정기로



2.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i)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ii)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FGI 실시 및 분석), iii)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 iv)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분석, v) 제2기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립으로 구분함.

<그림 1-5> 과업수행 내용



□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 기 시행된 청년정책의 목표대비 달성여부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이를 위해 2021~2023년 시행계획 중 정책목표 및 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시도함.
- 부산 청년정책 사업 중 국비 의존율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중앙정부 예산 증감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2기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함.

○ 유사사업조정 방안을 제시함. 부산 청년정책은 타 시도에 비해 사업 규모(총 121개)가 크고 청년정책 기준이 포괄적임. 이에 유사 사업을 통합하거나 정책 적합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조정을 통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정책 도출이 필요함.

- 부산 청년사업은 2019년 96개(920억) 사업에서 2023년 121개(2,233억) 사업으로 확장되었음. 반면, 2023년 기준 광주, 대구, 인천의 청년정책 총 사업 수는 93, 73, 71개임.
-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거시적 환경변화 대비 사업 조정이 필요함.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업 조정이 필요함.

□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

○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제1기 기본계획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과를 발전시키

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함. 이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 맞춤형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전국적 수준과 비교하여 부산 청년의 삶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함. 또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정책에 대한 부산 청년의 인식을 분석함.

□ FGI(초점집단면접) 실시 및 분석

- 청년을 연령 집단 및 분야별 특성에 따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제시되는 현안과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 이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주체로서의 청년과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실시함. 이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얻고자 함.

□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

- 부산 및 주요 특·광역시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교육-노동시장과 가족 이행 경로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 청년 삶을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분석

- 타 지자체의 청년정책 동향을 살펴봄. 이는 제2기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의 발굴 및 입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함. 또한,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제도적 기반(조례, 중간지원조직, 청년참여기구 등)과 사업수행 간의 유기적 결합에 필요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력이 됨.
 - 17개 광역지자체는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지원, 권리·참여의 5개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소득과 연령 등에 제한이 있어 보편성이 미흡하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특성(산업구조 등)과 지역별로 처한 청년인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부산 청년정책은 예산 확장과 사업단일화 및 청년사업 기준 적용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왔음. 그러나 사업 규모는 크지만 청년정책의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부산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따라서 타 지자체의 대표 및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부산형 청년정책’을 발굴 및 시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선진국인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의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과 관련된 정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2기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방안을 제시함.
 - 일본, 미국, EU 등 OECD 회원국들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현상 등과 같은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경우 각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세계화 현상이나 기후변화 이슈와 같이 청년세대가 더 관심 있고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현실 등을 반영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제2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방향(2024~28)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크게 [환경], [정책], [정책 당사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함.
- 첫째, [환경] 거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투-트랙(two-track)” 정책 수립
 - [청년 위기 대응] 급변하는 경제 환경은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위기로 작용함. 청년세대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이는 청년의 지역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위기이기도 함.
 - 이러한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재 청년이 감당하고 있는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청년 미래 대응] 현재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함. 최근 Chat GPT 등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을 파고드는 속도가 매우 빨라짐. 이에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그리고 문화 구조도 급변할 것임.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둘째, [정책]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정책 수립
 - ‘1기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3)은 사업규모 및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부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다루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청년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음.
- 셋째, [정책당사자] 종합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당사자의 “주도적” 정책 수립

- [부서 간 협업]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교육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청년정책 담당부서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부산시의 부서 상호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예컨대, 부산시의 건축주택국, 행정자치국, 청년산학국, 성장전략국, 사회복지국, 산업통상국, 여성가족국, 문화체육국, 해양농수산국, 디지털경제혁신실 등이 중앙정부 및 부산의 청년정책을 다루고 있음.
 - 대구시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단장(경제부시장) 중심의 내부 협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부산시 청년정책 성과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2022). 구체적으로 부서간 상시 협업회의 뿐만 아니라 시군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함. 이는 향후 부산시의 정책당사자 거버넌스 구축 시 참고할 수 있음.
- [청년참여 채널 확대] 청년이 청년정책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 청년의 참여 채널 확대를 통한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함. 현재 부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 이는 청년, 청년정책전문가,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참여형 거버넌스임.
- 그 외에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청년참여기구 등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에 앞서고 있음. 이 연구는 ‘제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참여 채널을 활용할 예정임.

II.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1.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분석

- 이 장에서는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시도함. 구체적으로 그간 시행된 청년정책의 목표대비 달성여부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이를 위해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정성 평가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지표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5개 분야의 세부사업별 유형 및 내용 지표를 활용함.
- 정량 평가는 수치화되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함. 대표적으로 세부사업의 연도별 성과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지표를 활용함.
 - 단, 연도별 정량 평가는 2021~2023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표성과지표와 연속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함.
 - 그 이유는 그간 부산은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침이 있었기 때문임.
 - 제1기 기본계획은 지자체 차원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지원의 포괄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했음.
 - 단, 이 중에서 중앙정부 정책 방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하였음.

<그림 2-1>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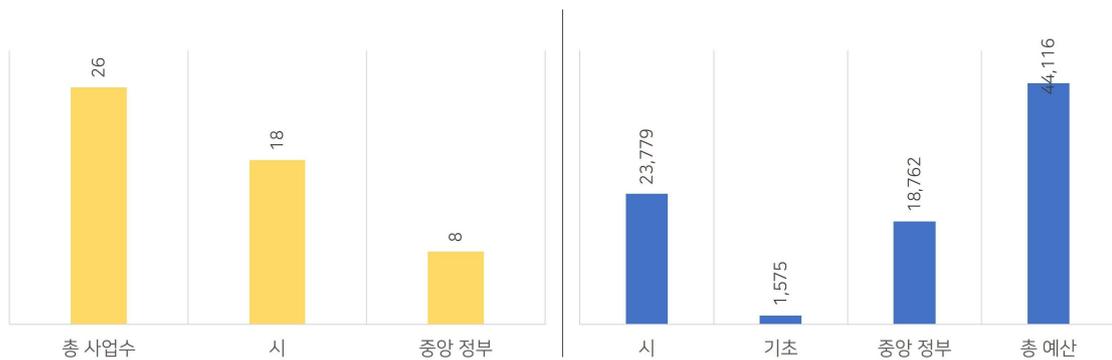
1) 일자리 분야

(1) 개요

[사업 및 예산]

- 2023년 기준 일자리 분야 사업은 총 26개임. 이 중 시 자체 사업은 18개, 중앙정부 사업은 8개임. 총 예산은 44,116백만원(청년 예산: 총 43,180백만원)이며 이 중 시 및 기초 예산은 25,354백만원, 중앙정부 예산은 18,762백만원임. 이는 일자리 분야 전체 예산 중 각각 57.5%, 42.5%를 차지함.

<그림 2-2>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사업 유형]

- 일자리 분야는 크게 취업지원, 근로 장려금, 교육훈련, 도약지원,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 수 기준, 부산창업카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셀러 청년창업가 양성 등 창업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 예산 기준, 주로 중앙정부 사업, 특히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분야 예산은 77.3%가 정부 사업 추진에 소요됨. 대표적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전체 예산의 75.6%를 차지함.

- 시 사업의 경우 사회진입활동비 지원과 같은 도약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가장 큰데 총 예산 중 7.8%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교육훈련 사업 예산 비중이 6.0%를 차지함.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은 3,182백만원(1,000명 지원), 자원봉사센터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은 259백만원(16명)임.

<표 2-1>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 유형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취업지원	670	1.5	취업정장대여, 공기관 통합채용, 일자리정보망, 혁신도시 합동채용설명회, 해외취업지원(5)
	근로장려금	1,290	2.9	기쁨카드, 청춘드림카지원(취업자 대상)(2)
	교육훈련	2,649	6.0	항공인력 인턴십, 청년두드림센터, 취업연수생 고용사업(3)
	도약지원	3,441	7.8	사회진입활동비(미취업자 대상), 자원봉사센터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2)
	창업지원	1,968	4.5	부산창업카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 셀러 청년창업가 양성, 창업촉진지구 지원, 메이커활성화(6)
소계		10,018	22.7	
중앙 정부	교육훈련	330	0.7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지원(2)
	직접일자리	33,367	75.6	지역주도형 일자리(1)
	창업지원	401	0.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H양성,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 어촌 정착지원(5)
소계		34,098	77.3	
총계		44,116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사업 내용]

- 일자리 분야 세부 사업별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별도 연령 제한이 없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이 경우 청년정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꼽을 수 있음.
- 부산 일자리 정보망 운영은 연령 제한 없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홈페이지)임. 이는 부산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임.
- 부산창업카페 운영 역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지원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과거 창업카페의 경우 장소 선정 시 대학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역시 변경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해 보임.

- 2021년 5~7월 부산창업카페 통합 재배치를 추진함. 기존 대연점(부경대), 송상현광장점, 사상역점 3개소를 유라시아플랫폼 1개소로 이전함.

-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과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 및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정책 등으로 별도 분류하는 것이 적합해보임.
- 메이커 활성화 사업은 모든 연령, 범시민대상 사업임. 청년정책으로 분류하더라도 사업목적상 교육(진로탐색을 위한 기초교육) 또는 문화(관심제고, 문화생활 등 제공) 분야에 더 적합해 보임.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청년고용법상 청년 특별채용 등의 예외 사항이 있지만 모든 연령이 해당되는 사업임. 청년정책으로 지속시킬 경우 청년 채용 달성 여부 등과 같이 청년 중심의 성과지표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2-2>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사업 대상

구분	사업명	사업 대상
시	취업연수생 고용	~29세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34세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외취업 박람회)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 지원사업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	~39세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지역인재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	7년 미만 창업기업
	부산 일자리 정보망 운영	모든 연령
	부산창업카페 운영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메이커 활성화 사업	
	부산시 산하 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청년도전 지원사업	~34세	
중앙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9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청년 어촌 정착지원	~40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H양성교육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44세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49세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지원 사업	모든 연령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2) 주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 청년 두드림센터는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에서부터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함.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심층상담 및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문화 및 소통공간을 지원함(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2년 청년일자리플랫폼(청년부산잡스)을 구축하여 분산된 청년 일자리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함.
- 2023년 청년일자리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의 전주기적 관리를 목표로 함. 또한, 청끝기업(청년이 끝리는 기업)의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 매칭을 제고하고자 함.

- 청년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지원은 미취업(창업)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18~34세 미취업(창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취·창업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부산청년일하는 기쁨카드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 자기계발, 건강 분야에 생애 1회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사회초년생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 최근 3년 동안 성과 목표로 지원자 1,000명을 설정하였는데 2021년 1,043명, 2022년 1,020명이 지원함으로써 현재까지 초과 달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창업촉진지구로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음.

- 창업카페 운영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시설 대관, 전문가 컨설팅,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함.

<표 2-3> 일자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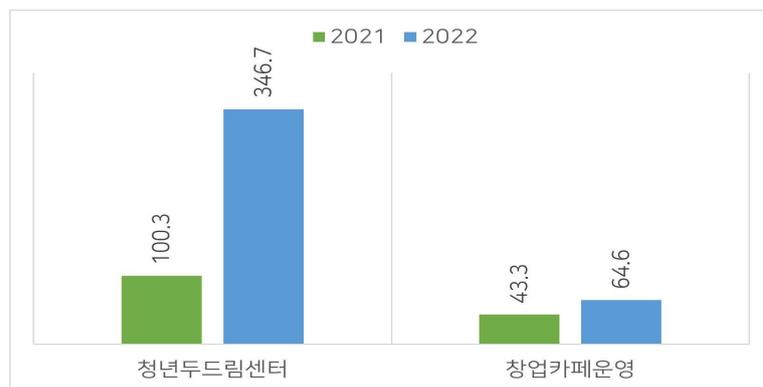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청년두드림센터	취업자수	600	602	630	2,184	660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취·창업률	19%	25.7%	23%	24%	20%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자수	1,000	1,043	1,000	1,020	1,000
창업촉진지구 지정	지원기업수	300	418	420	429	420
창업카페 운영	방문자수	7,000	3,033	3,000	1,937	2,000

*출처: 2021~2022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추진실적 달성률]

- 청년 두드림센터는 타 사업에 비해 성과 목표 대비 높은 실적을 달성함.
 - 청년 두드림센터는 센터의 상담·프로그램 참여 통한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성과 목표로 설정함. 그 결과 2021년 602명, 2022년 2,184명이 취업함으로써 100.3%, 346.7%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함.
 - 이 사업은 고용부 청년센터 운영사업 3년(2019~2021년) 연속 ‘공모선정 및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또한, 2022년에는 산자부 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
- 창업카페 운영은 카페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2021년 7,000명을 성과 목표로 설정, 3,033명 방문으로 43%의 실적을 달성하여 2022년에는 3,000명을 성과 목표로 설정함. 그 결과 1,937명이 방문, 65%의 달성률을 기록함.
 - 2022년의 경우 시설 이전으로 인한 실 운영 기간 축소가 실적 저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2-3> 주요 사업의 추진 달성률(%)(2021~2022)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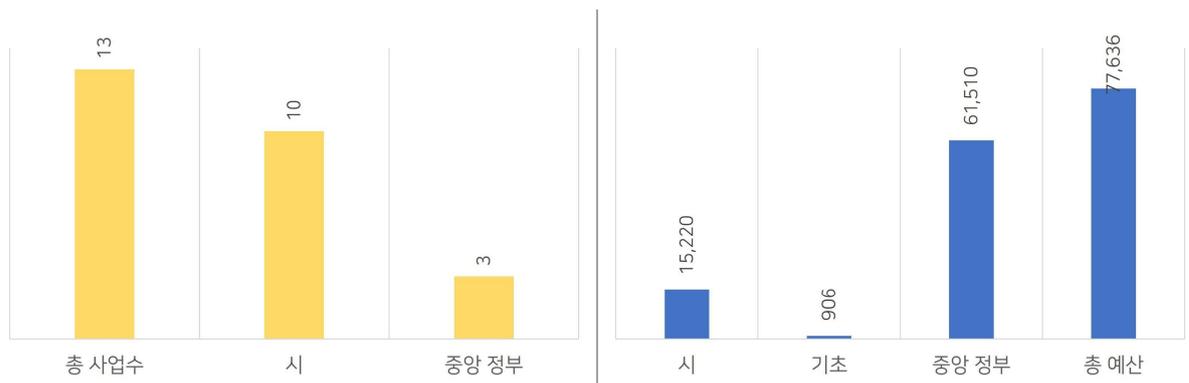
2) 주거 분야

(1) 개요

[사업 및 예산]

- 2023년 기준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시 자체 사업은 10개, 중앙정부 사업은 3개임. 총 예산은 77,636백만원(청년 예산은 총 59,191백만원)이며 이 중 시 및 기초 예산은 16,126백만원, 중앙정부 예산은 61,510백만원임. 이는 주거 분야 전체 예산 중 각각 20.8%, 79.2%를 차지함.

<그림 2-4>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주거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사업 유형]

- 주거 분야는 크게 주거공급, 주거비 경감, 그리고 주거생활 지원 및 상담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 수 기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비 경감 사업이 주를 이룸.
- 예산 기준, 주로 중앙정부 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거 분야 예산은 83.1%가 정부 사업 추진에 소요됨.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 임대주택이나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과 같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목적의 사업을 꼽을 수 있음.

□ 시 사업의 경우 총 예산의 15.4%가 주거비 경감 사업에 투입됨.

○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0,044백만원(1,000명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1,200백만원(500명 지원)이 배정됨.

<표 2-4> 2023년 부산 청년정책 주거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유형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주거공급	0	0.0	청년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아파트)(1)
	주거비 경감	11,980	15.4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6)
	주거생활 지원 및 상담	1,126	1.5	청년 안심 주거지원 사업,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청년 주거상담)(3)
소계		13,106	16.9	
중앙 정부	주거공급	58,490	75.3	청년 주택 공급 확대(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 공급(매입임대)(2)
	주거비 경감	6,040	7.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소계		64,530	83.1	
총계		77,636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사업 내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 사업의 대부분은 주거비 경감 사업임. 이들 사업은 무주택 청년(19~34세), (예비) 신혼부부를 사업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 및 임차보증금 기준에서 차별성을 댐. 이에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주거비 경감 사업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2-5> 주거 분야-주거비 경감 사업 대상

주거비 경감 사업	사업 대상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3년 신설)	부산시 거주 (예비)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 (맞벌이 80% 이내), 무주택자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	혼인 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머물자리론)	부산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잔월세전환율 6.1% 이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9~34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주거용 주택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 주거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 역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이들 사업은 주로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및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거복지센터는 부산 시민 대상 주거복지사업의 통합관리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함.
- 청년 안심 주거지원은 대학가, 역세권 등 청년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 대상임. 이는 원룸 안심주거 리모델링 및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이 목적임.

<표 2-6> 주거 분야-주거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

주거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	사업 대상
청년 안심 주거지원	19~34세 1인가구 원룸 밀집지역의 19~34세 청년
주거복지센터 운영(청년주거상담)	부산 시민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2) 주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 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머물자리론)은 부산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2-7> 주거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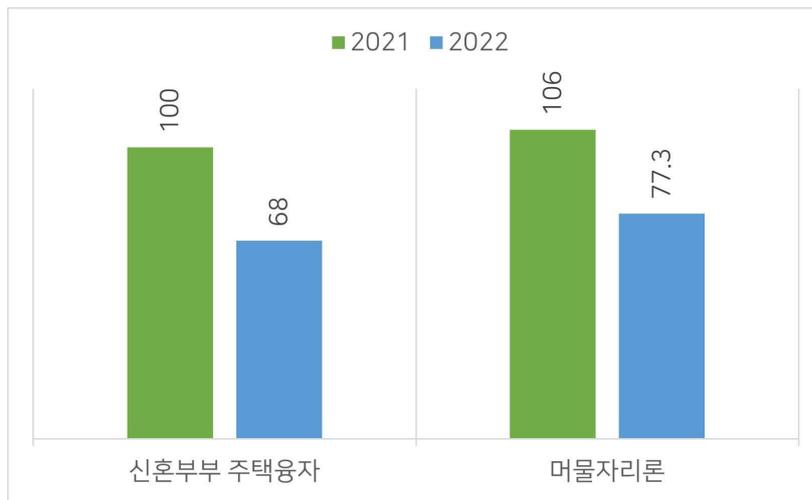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이자지원 세대수	1,000	1,000	1,500	1,022	1,000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지원자수	200	212	1,000	773	2,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추진실적 달성률]

-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2022년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함. 이 사업은 지원자 세대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그 결과 2021년 1,000세대, 2022년 1,022세대가 지원함. 2021년은 100%의 달성률을 보인 반면 2022년에는 68%의 달성률에 그침.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역시 2022년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함. 이 사업은 지원자수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그 결과 2021년 212명이 지원함으로써 106%의 달성률 보임. 반면, 2022년에는 773명이 지원, 77.3%의 달성률에 그침.
-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조건(청년 소득기준,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이 다양화 되어,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상품별로 다분화됨.

<그림 2-5>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2021~2022)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3) 교육 분야

(1) 개요

[사업 및 예산]

- 2023년 기준 총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 자체 사업은 18개, 중앙정부

사업은 5개임. 총 예산은 47,674백만원(청년 예산은 총 45,539백만원)이며 이 중 시 및 기초 예산은 19,068백만원, 중앙정부 예산은 28,606백만원임. 이는 교육 분야 전체 예산 중 각각 40%, 60%를 차지함.

<그림 2-6>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사업 유형]

- 교육 분야는 크게 교육훈련,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육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취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사업 수 기준, NEXT 10,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등 교육훈련 사업이 주를 이룸.
- 특히 디지털, IT분야 정부정책의 확대 및 지산학 연계 사업 추진 등 부산시 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의 72%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이 증가함.

<표 2-8>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분류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교육훈련	6,720	14.1	부산권 대학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발산업 인력양성, NEXT10(부산청년드림학교), 과워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기술 지원사업,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직업능력개발훈련, SW마이스터고 운영,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비전공자 ICT인력양성 오픈캠퍼스,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10)
	현장 실습 및 인턴십	3,161	6.6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3)
	교육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00	1.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지원,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4)
	취업 인프라	2,530	5.3	지산학협력센터 운영(1)
소계		13,211	27.7	
중앙 정부	교육훈련	31,946	67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SW중심대학 지원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3)
	현장 실습 및 인턴십	247	0.5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산학연계 인턴십)(1)
	취업 인프라	2,270	4.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1)
소계		34,463	72.3	
총계		47,674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사업 내용]

- 주로 ICT, 반도체, 농업 분야의 산업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주를 이룸. 지역의 산업구조나 전통적으로 부산이 우위를 점했던 산업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 설계 및 탐색형 교육훈련 사업 개발이 필요함.
- 교육 분야 사업은 대학교육의 경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SW, IT 분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 이에 학업 중도 이탈자나 진로 재탐색 과정에 놓인 청년(학교 밖 청년)은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2-9> 2023년 부산 청년정책 교육 분야 사업 대상

구분	사업명	사업 대상
시	NEXT10 (부산청년드림학교)	~34, ~39세
	부산권 대학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9세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데이터 전문 인력)	~39세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49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SW마이스터고 운영(SW마이스터고 한정)	고등학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해운대공업고 재학생 한정)	
	신발산업 인력양성(경남정보대 신발패션과 한정)	대학(대학생)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연계)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신산업 분야 지산학 연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	대학(원)생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비전공자 ICT인력양성 오픈캠퍼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7년 미만 디자이너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 대학생, 취업준비생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해양대)	모든 연령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대학생/대학원생)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운영	~34세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양대, 동서대)	대학(대학생)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대학(대학생)	
SW중심대학 지원사업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2) 주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원)생과 졸업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시기별 성과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2023년은 4,300명 지원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연도에 비해 목표가 하향 조정됨. 그 배경으로 학자금 대출 잔액 감소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자 증가, 국가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규모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를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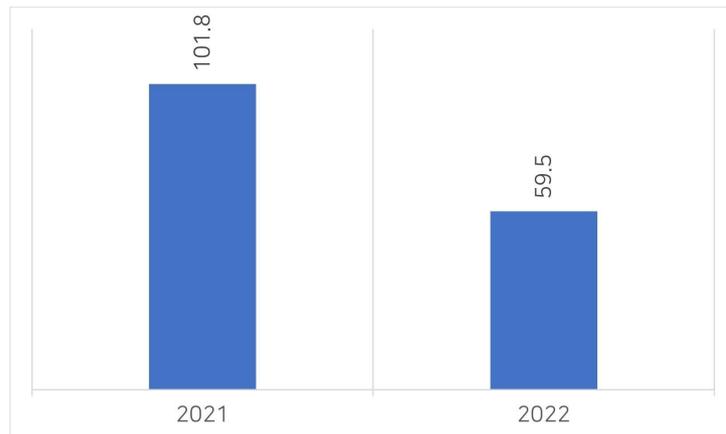
<표 2-10> 교육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수	5,500	5,598	5,600	3,332	4,3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수를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2021년에 비해 2022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함. 2021년에는 101.8%의 초과달성을, 반면 2022년에는 59.5%의 달성률을 보이는 데 그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1.1. 시행)으로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자지원 대상자가 감소함.

<그림 2-7>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4) 복지문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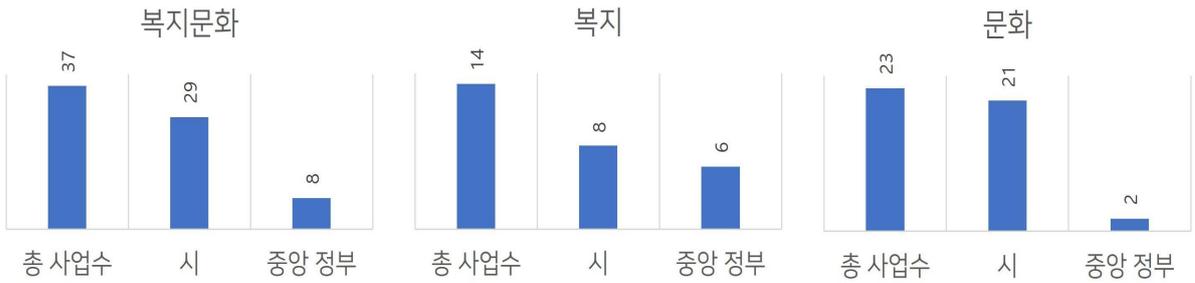
(1) 개요

[사업 및 예산]

- 2023년 기준 총 3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 사업은 29개, 중앙정부 사업은 8개임. 총 예산은 50,193백만원(청년 예산은 총 48,516백만원)이며 이 중 시 및 기초 예산은 29,409백만원, 중앙정부 예산은 20,784백만원임. 이는 복지문화 분야 전체 예산 중 각각 58.6%, 41.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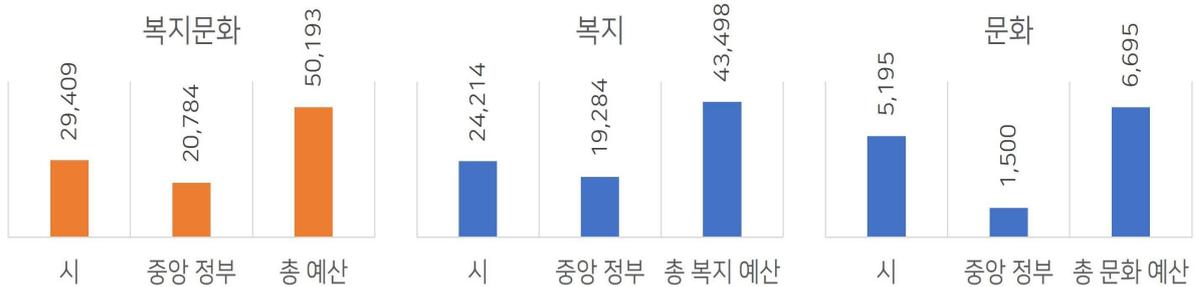
- 복지문화 중 복지 사업은 총 14개(43,498백만원)이며, 시 사업은 8개(24,214백만원), 정부 사업은 6개(19,284백만원)임.
- 복지문화 중 문화 사업은 총 23개(6,695백만원)이며, 시 사업은 21개(5,195백만원), 정부 사업은 2개(1,500백만원)임.

<그림 2-8> 2023년 복지문화 분야 사업 수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그림 2-9> 2023년 복지문화 분야 예산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사업 유형]

복지 분야

- 복지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지원,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자립준비지원, 금융상담, 건강지원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각 분야별 세부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학자금 및 신용대출 등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을 도움.
- 사업 수 기준,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청년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 등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이 그 뒤를 이음.

- 예산 기준 역시, 시 및 중앙정부 사업 모두 자산형성지원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됨.
-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중 시 사업 비중은 43.3%, 중앙정부 사업 비중은 37.8%를 차지함.

<표 2-11> 2023년 부산 청년정책 복지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분류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자산형성지원	18,850	43.3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자산형성지원(2)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120	0.3	청년신용회복지원(부비론),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지원(3)
	자립준비지원	1,880	4.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1)
	금융상담	300	0.7	청년신용회복지원(1)
	건강지원	200	0.5	청년 마음이음 사업(1)
소계		21,350	49.1	
중앙 정부	자산형성지원	16,423	37.8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3)
	자립준비지원	4,954	11.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
	건강지원	771	1.8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2)
소계		22,148	50.9	
총계		43,498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문화 분야

- 문화 분야는 크게 문화공간지원,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청년예술가지원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향유 기회를 장려함으로써 청년이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수 기준,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등 청년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 예산 기준, 다른 사업 분야와 달리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큼. 문화 분야 총 예산의 68.9%가 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됨.
 ○ 구체적으로 문화공간지원 14.0%,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40.2%, 청년예술가지원 14.7%를 차지함.

<표 2-12> 2023년 부산 문화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분류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문화공간지원	790	14.0	청년 마을놀이터 조성 및 운영, 청년작당소 운영, 사상인디스태이션 운영, 민락인디트레이닝 센터 운영(4)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2,260	40.2	이스포츠 대학리그 개최,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아트페어 운영, 청년문화포럼, 청년문화홍보 및 운영지원, 청년콘서트 개최, 청년문화축제 개최, 지역대학 비교과과정 활성화,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10)
	청년예술가지원	825	14.7	신진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청년예술작품 구독,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지원(7)
소계		3,875	68.9	
중앙 정부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1,752	31.1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부산웹툰캠퍼스 운영(2)
소계		1,752	31.1	
총계		5,627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사업 내용]

복지 분야

- 시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함. 경제 침체와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청년층의 새로운 근로 유형은 점점 증가할 것임. 이에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다양한 근로 유형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희망날개통장은 2022년 7월 중앙정부의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설로 2023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이를 고려할 때 부산 청년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표 2-13> 2023년 부산 청년정책 복지분야-자산형성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 대상
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거주 15~34세 저소득 근로청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기쁨두배통장)	부산시 거주 18~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 (본인: 가구중위소득 140%) (가구: 가구중위소득 120%)
중앙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근로 청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 시의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학자금,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함. 이러한 정책은 리스크 관리의 사후적 접근 방식 중 하나임. 최근 청년층 대출이 증가하고 모바일 등 보다 쉬운 방식의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관리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즉, 부채 및 자산 관리 컨설팅과 같은 금융상담 사업을 통해 청년층에게 건강한 재무관리 습관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부산은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신설함. 부산청년 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 신용 및 부채관련 상담, 소모임, 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전문재무관리 상담서비스를 지원함. 2022년 총 403명의 청년이 재무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당초 성과목표인 150명을 초과한 결과임. 이 사업에 대한 청년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화 분야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 문화 분야 사업은 주로 문화산업 및 행사지원 유형임. 그 중에서도 몇몇 사업의 경우 청년정책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청년정책 사업으로 지속시킬 경우 청년 특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해 보임.
- 대표적으로 부산글로벌웹툰센터와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꼽을 수 있음. 이들 사업은 예산 비중이 큰데 모든 연령층이 사업 대상임. 부산글로벌웹툰센터는 웹툰작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부산웹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이를 고려할 때 산업육성, 창업지원 등 일자리 분야에 적합해 보임.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역시 1인 미디어 (예비)크리에이터 대상 사업임.
- 지역대학 비교과과정(예체능) 활성화는 대학 교육 연계 예체능 분야 교육과정 개설 사업으로 교육 분야가 적합해 보임.

- 또한, 몇몇 사업의 경우 추진 목적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청년 마을놀이터 조성 및 운영, 청년문화 홍보 및 운영지원을 꼽을 수 있음.
 - 청년 마을놀이터 조성 및 운영은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작업, 창작공간 지원이 목적임. 즉 이 사업은 일반 청년이 아닌 청년예술가를 위한 공간임. 따라서 청년 예술가의 지역기반 창작공간 지원 등과 같이 사업명칭 및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문화 홍보 및 운영지원은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가 목적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살펴볼 때, 비대면·온라인 창작활동 ‘방구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디렉토리북’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음. 2021~2026년 제작물 건수 기준 2건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문화 콘텐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 운영이 필요함.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과 청년예술가 자율기획은 대상 및 내용, 지원방식이 유사함. 이 사업은 2023년 이미 통합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운영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과 청년예술작품 구독은 예산지원 형식(전시지원금과 구독료)만 상이할 뿐 모두 민간 및 공공단체 공간 연계 전시 방식임. 이에 통합 운영을 제안함. 전시 구독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전시 공간 매칭 과정에 기업 등 공동주관 전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복지 분야

- 청년희망날개통장은 부산거주 15~34세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1:1매칭(10만원)을 적립 지원함. 이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도움.
 - 이는 만기 해지율(%)을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2021년 시행 이후 추진실적은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함.
 - 2022년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설로 2023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청년 신용회복 지원(청년 부비론) 사업은 취약계층 19~34세 중 신용회복지원자 및 개인회생인가자를 대상으로 저금리(1%) 자금지원을 통해 신용회복과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함.
-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초입금을 지원함.
-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저성장, 코로나19 등 여파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18~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적립액 대비 1:1 매칭지원함.
 - 이는 참여자 통장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데 2022년 90% 성과 목표 대비 99%의 추진실적을 달성함.

<표 2-14> 청년 부채문제 해결 및 자산형성지원 관련 주요 사업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청년 희망날개 통장	만기해지율(%)	70	77	70	86	75
청년신용회복 지원 (청년 부비론)	신용회복 지원자수	275	470	361	348	331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신용회복지원	분할상환약정유 지율	70	99	70	99.2	70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 통장유지율	-	-	90	99	8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2022년 첫 시행된 사업이지만 대표 성과지표이므로 포함시킴

문화 분야

- 부산청년문화공간(청년작당소)은 지역의 18~39세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함.
 - 청년작당소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문화공간으로 2021년 개소하였음(BNK아트시네마 3층 소재). 휴식, 전시행사, 소모임, 스터디 등을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18~39세 청년예술가들이 거리예술활동을 통해 창작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도움. 동시에 청년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함.

- 아트페어는 청년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 역시 부산 거주 또는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18~39세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함.
- 이 경우 참여인원수를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지난 2년 간 성과 목표 대비 초과 추진실적을 달성함. 2021년 36명(작품 388점), 2022년 35명(작품 244점)의 청년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 전시 및 판매 활동의 성과를 거두었음.

<표 2-15> 청년 문화 공간 조성 및 문화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프로그램 운영	50	132	50	78	80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참여예술인수	100	215	100	110	50
아트페어 운영	참여인원수	30	36	30	35	3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 지원은 작품제작 지원을 통해 청년연출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함. 또한, 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부산 거주 또는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쇼케이스 및 공연작품 제작을 지원함.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청년예술가의 다양한 창작활동기회 제공 및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역시 부산 거주 또는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18~39세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함.
- 기업협력형 창작지원 활동은 지역기업이 청년예술가에게 전시공간을 무상임대해주는 프로그램임. 현재 부산문화재단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공동 주관하여 시각 분야 부산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음.
- 대상은 부산 거주 또는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18~39세 청년예술가임.

2021~2022년 동안 매년 청년예술가 3인을 선발하여 전시를 개최함(장소: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6층 신세계갤러리).

<표 2-16>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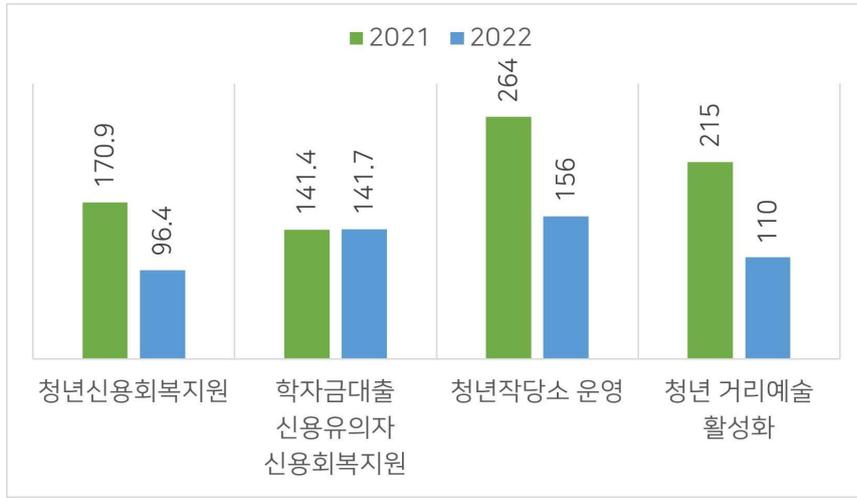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지원자수	5	7	5	5	5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지원팀수	35	45	35	36	35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지원자수	3	3	3	3	3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추진실적 달성률]

- 청년 작당소는 주요 사업들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사업임. 이는 방문자수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2021년 9,708명, 2022년 15,372명이 방문함으로써 각각 264%, 156%의 달성률을 기록함.
-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은 참여예술인 수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이 역시 2021년 215명, 2022년 110명의 청년예술인이 참여함으로써 각각 215%, 110%의 초과 달성률을 보임.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큰 변화 없이 초과 달성함(2021년 141.4%, 2022년 141.7%).
- 청년신용회복지원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2021년 470명, 2022년 348명이 지원함으로써 각각 170.9%, 96.4%의 달성률을 기록함.

<그림 2-10>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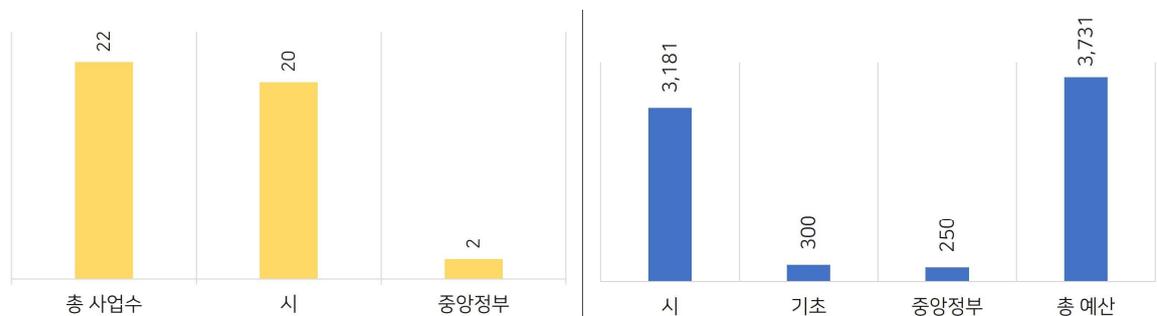
5) 참여권리 분야

(1) 개요

[사업 및 예산]

- 2023년 기준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 사업은 20개, 중앙정부 사업은 2개임. 총 예산은 3,731백만원(청년 예산은 총 3,447백만원)이며 이 중 시 및 기초 예산은 3,481백만원, 중앙정부 예산은 250백만원임. 이는 참여권리 분야 전체 예산 중 각각 93.3%, 6.7%를 차지함.

<그림 2-11> 2023년 참여권리 분야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사업 유형]

- 참여권리 분야는 크게 정책참여, 참여지원, 사회활동·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각각의 세부 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책참여의 기회를 다양화하는 데 목표를 둠.
- 사업 수 기준, 부산청년센터, 부산청년주간, 부산청년플랫폼 등 청년참여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또한, 부산청년스쿨,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의 사회활동·교류지원 사업도 다양함.
- 예산 기준, 예산의 90.6%가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입됨.
 - 구체적으로 참여지원 사업 54.4%, 사회활동·교류지원 사업 34.5%, 정책참여 사업 1.8%을 차지함.

<표 2-17> 2023년 부산시 청년정책 참여권리분야 사업 현황

구분	사업유형	예산 (백만원)	비중 (%)	사업(수)
시	정책참여	67	1.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보장,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3)
	참여지원	2,028	54.4	부산청년센터, 부산청년주간, 청년행복박스 제작·배부, 부산청년플랫폼, 부산청년 뉴미디어 채널,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사람이음도서관 운영, 청년패널조사, 기본계획수립(10)
	사회활동·교류 지원	1,286	34.5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 프로그램 지원, 부산청년스쿨 사업,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청년 리빙랩 운영,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평화통일 청년서포터즈 운영(7)
소계		3,381	90.6	
중앙 정부	사회활동·교류 지원	350	9.4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한아세아프런티어포럼 개최(2)
소계		350	9.4	
총계		3,731	1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는 2017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현재 조례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청년공간과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3년 현재 부산광역시 청년 거버넌스 체계의 중심 기관은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임.
- 2023년 '동네청년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진입함. 이는 동네 청년활동 공간 조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청년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참여권리 분야의 대표 성과지표임.

(2) 주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비 성과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 정책참여의 경우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보장을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청년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두 사업 모두 청년위원 위촉률 기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최근 3년간 100%의 목표를 달성했음. 또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거버넌스 기구임. 2018년 청년기본조례가 승계·대체한 두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던 기존의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문화위원회를 통합하여 청년위원회로 설치·운영됨. 70명 이내로 운영되던 위원회 수를 2020년 2월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효율을 높이려 하였고 이 중 50%를 청년위원으로 위촉함. 현재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2022.8~2024.8) 중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청년의 재정참정권 보장을 목표로 함. 현재 제8기(2021.11.1~2023.10.31.)가 운영 중임. 이 역시 청년위원 비율 20%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7년 2월 운영이 시작됨. 운영 1년 후 종료되었다가 2019년 재개설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임. 2023년 현재 부산청년센터 내 사무국에서 네트워크 운영 및 전국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칭은 부산청정넷임.

<표 2-18>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보장	청년위원 위촉률(%)	20	20	20	20	2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위촉률(%)	50	50	50	50	50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정책제안건수	10	22	10	29	1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 참여지원의 경우 부산청년센터와 부산청년주간 운영을 통해 청년주도 청년정책 추진, 청년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리고 청년의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도움. 또한, 청년행복박스를 제작·배부함으로써 부산의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정책참여를 독려함.
- 부산청년센터는 2021년 개소한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 청년활동 활성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와 기획, 청년의 관계형성과 권리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자갈치시장 3·4층 소재). 카페형태의 공유 및 공용공간, 소모임 공간, 강연 등에 사용되는 다목적실, 청년단체 입주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청년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로 청년이음도서관도 운영 중임.
- 부산청년주간은 청년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9~10월 중 운영하는 것으로 기념식, 컨퍼런스, 정책박람회, 경연대회, 청년교류회, 문화행사 등이 열림. 2022년은 청년공간이음 협의체와 연계하여 구·군과 민간이 처음으로 청년주간을 운영함. 또한, “청년과 로컬”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관계인구, 로컬경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표 2-19>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부산청년센터 운영	방문자수	3,000	6,325	6,500	14,720	15,500
부산청년주간 운영	참여자수	6,000	6,700	7,000	11,641	12,00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 사회활동·교류 지원의 경우 청년 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도적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도움. 또한, 부산청년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단체가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이 생산·소비 주체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을 지원함.

- 주로 구·군이 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하여 청년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함.
- 청년 커뮤니티활동은 5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함. 현재 옹기종기T(재능기부)와 옹기종기F(자율), 옹기종기S(스터디) 유형으로 구분, 재능기부, 자기개발 및 스펙향상 등 자율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함.
 - 부산청년학교는 청년학과 운영비 및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지원함.

<표 2-20> 참여권리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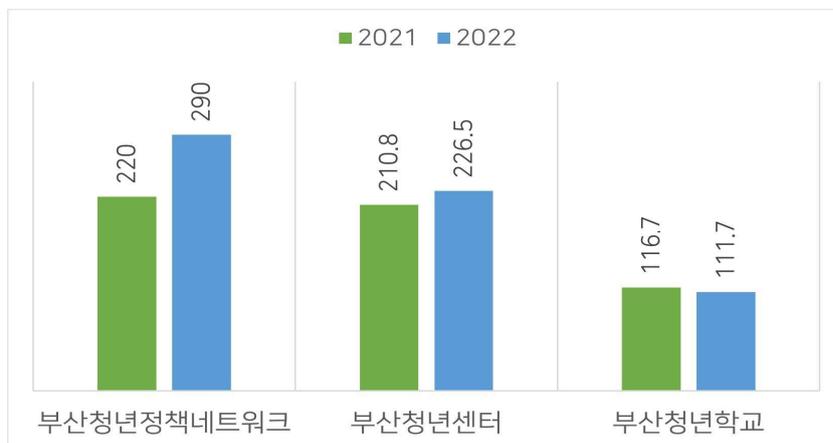
사업명	지표	2021		2022		2023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추진실적	성과목표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건수	20	22	25	28	15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	참여 커뮤니티 수	50	50	65	65	30
부산청년학교 운영	참여학과생 수	180	210	240	268	150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사업 중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와 부산청년센터는 200% 이상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함. 부산청년학교는 이들에 비해 낮지만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임.
-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발굴이나 제안이 목적이므로 정책제안건수를 성과목표 기준으로 설정함. 2021~2022년 동안 각각 220%, 290%의 달성률을 기록함.
- 부산청년센터는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그 결과 2021년 6,325명, 2022년 14,720명이 방문함으로써 각각 210.8%, 226.5%의 달성률을 보임.
- 부산청년학교는 참여학과생 수를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함. 그 결과 2021년 210명, 2022년 268명이 참여하여 각각 116.7%, 2022년 111.7%의 달성률을 보임.

<그림 2-12>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달성률(%) (2021~2022)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조

2. 예산 변화와 청년정책

1) 부산 청년정책 예산 변화(2022~23)

(1) 청년정책 예산 변화

- 2023년도 부산 전체 청년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함.
 - 청년정책 예산 중 국비는 1,299억원으로 2022년 대비 36% 증가하였음.
 - 전체 청년정책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로 2022년에 비하여 약 5%p 증가하였음.

<그림 2-13> 부산 청년정책 예산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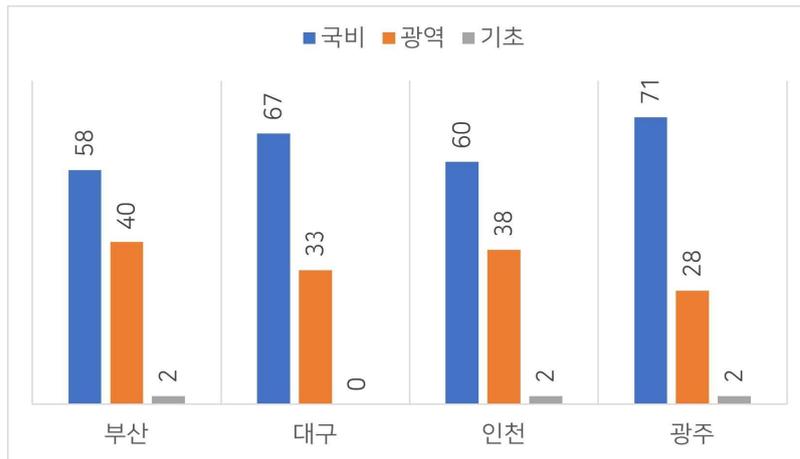
- 2023년 청년정책 예산을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그림 2-14>와 같음.
 - 부산의 전체 예산은 2,234억원으로 대구(1,792억), 인천(1,551억), 광주(2,025억) 보다는 예산액이 크지만, 인구 수를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광주 예산이 인구 대비 큰 것은 일자리, 주거 정책 중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예산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청년정책 예산 중 국비와 시비 비율을 따지면 부산의 경우 시비의 비중이 약 40%로, 대구 33%, 인천 38%, 광주 28%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4> 2023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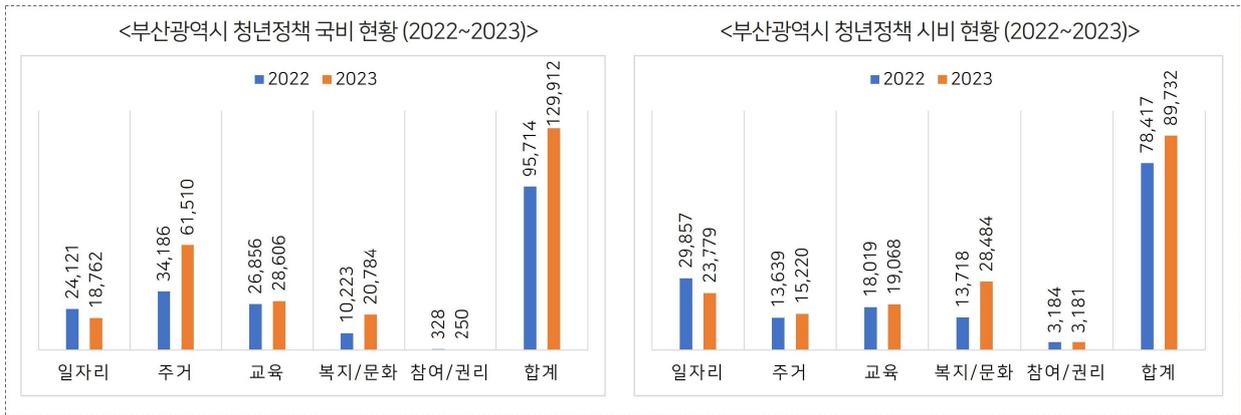
<그림 2-15> 2023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국비·시비·구비 비율(%)



*출처: 2023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정책 예산 중 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에 배정된 국비를 5개 범주별로 살펴보면 주거(615억원), 교육(286억원), 복지/문화(208억원), 일자리(188억원), 참여/권리(3억원) 순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 분야별 국비 배정액을 2022년과 비교하면 주거 분야에서 273억원이 증가하여 약 80%의 증가율을 기록함.
 - 복지/문화 분야는 1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자리 분야는 54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2% 감소율을 기록함. 교육과 참여/권리 분야는 각각 소폭의 증가와 소폭의 감소를 보여줌.
 - 시비 또한 복지/문화 분야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일자리 분야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세부 사업 분야별 국비/시비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중 국비 변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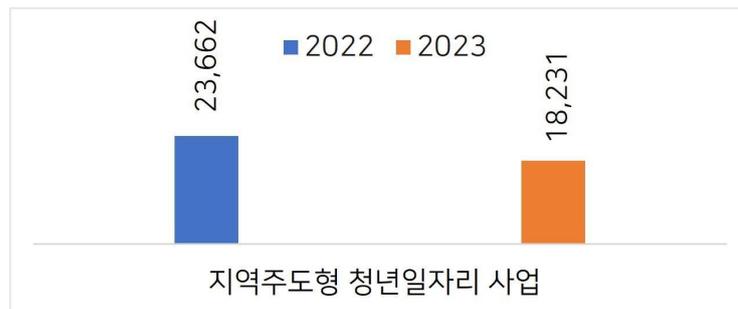
- 2023년 청년정책 1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국비 10억원 이상 투입됨. 복지/문화 분야가 4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주거와 교육 분야에 각각 3개 사업, 일자리 분야에 1개 사업이 해당되었고, 참여/권리 분야에는 국비가 10억 이상 배정된 사업이 없음.

□ 일자리 분야

-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비가 배정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82억원이 배정되었음.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3% 감소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 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래신산업, 뉴딜 연계분야 등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1유형,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2유형, 지역사회공헌 연계분야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3유형으로 구분됨.

<그림 2-17> 일자리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주거 분야

- 주거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에 504억원,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공급(매입임대)’ 사업에 81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30억원의 국비가 배정됨.
- 2022년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예산이 약 2.8배 증액된 반면, 매입임대는 22%, 월세지원 사업은 46% 예산이 감소하였음.
-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공급 사업은 저소득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산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독립 지원을 목표로 함.

<그림 2-18> 주거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교육 분야

-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221억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업에 190억원, ‘SW 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40억원의 국비가 배정됨.
- 2022년 예산과 비교할 때,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은 10% 증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12% 감소하였고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변화가 없음.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고급 ICT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또는 민간협업 등의 방법으로 교육 및 훈련,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임.
- SW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교육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하는 센터를 대학 내 설치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19> 교육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복지문화 분야

-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125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 40억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16억원,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에 14억 순으로 국비가 배정됨.
- 2022년 대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약 5.6배 예산이 증가하였고,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약 1.6배 예산이 증가하였음. 반면,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약 32%,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은 약 24% 예산이 감소하였음.
-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에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2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됨.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 종료 아동에게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사회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글로벌게임센터는 부산지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개발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그림 2-20> 복지문화 분야 주요사업 국비 현황(2022~2023)

(단위: 백만원)



*출처: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참여권리 분야

- 참여/권리 분야에서 10억원 이상 국비가 배정된 사업이 없음. ‘한아세안프런티어포럼’ 개최에 2억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의 국비가 배정됨.

2)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

□ 2023년 예산 변화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방향성

- 2022년과 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배정된 국비를 비교한 결과, 일자리 지원 정책 예산이 다소 줄어든 반면, 주거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시기 시비 예산은 복지/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일자리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청년일경험지원, 현장훈련, K-Move 스쿨지원 등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 강화를 예산 편성의 주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청년들의 욕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2022), 취·창업 지원, 교육 및 훈련, 기업 내 조직문화 변화 등을 목표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함.
- 주거 분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매입임대 사업 또는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 예산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함.
-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에 대한 지원에 국비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이 미흡하여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면, 부산 청년정책은 주거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확대된 정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미취업 청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분야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Ⅲ.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

1. 부산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본 부산 청년

1) 방법론

- 이 장에서는 부산 청년현황 및 실태분석을 시도함.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 요구 등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부산 청년현황 분석을 위해 인구 MDIS(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DB 및 부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활용함.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부산의 청년인구 규모와 변화 등을 분석함.
- 둘째, 부산 청년실태 분석을 위해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와 정부가 실시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함.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는 부산이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부산 거주 18~34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2022~2026년까지 패널조사 실시 예정). 첫 조사는 2022년 7~10월 동안 실시되었음.
 - 조사내용은 부산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됨.
 - 노동
 - 경제활동
 - 주거 및 이동
 - 문화 및 여가
 - 건강 및 삶의 질
 - 가치관
 - 청년정책
 - 사회통합
 - 개인특성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 2021년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18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1대 1 면접조사가 실시되었고 최종 표본 수는 2,041명임.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구와 가족
- 교육과 훈련
- 경제와 고용
- 주거
- 건강
- 가치관
- 관계 및 참여
-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상에서 언급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부산 청년의 실태와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청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부산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부산 청년의 특수성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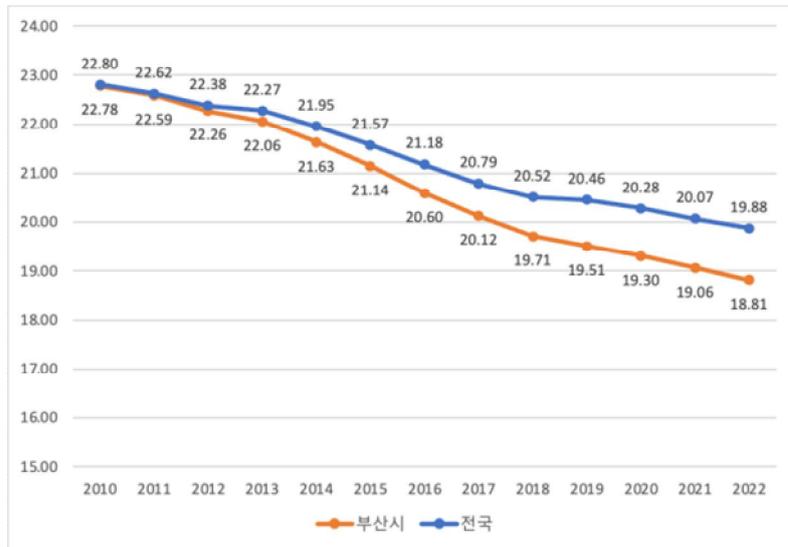
□ 넷째, 그 외 추가적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목적으로 부산시 청년희망 정책과에서 실시한 <2021 부산청년정책수요조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9~2021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만족도조사> 결과, <2020~2021 부산청년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등을 활용했음.

2) 부산 청년현황 개요

(1) 부산 청년인구 추이

□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청년인구비율 감소 경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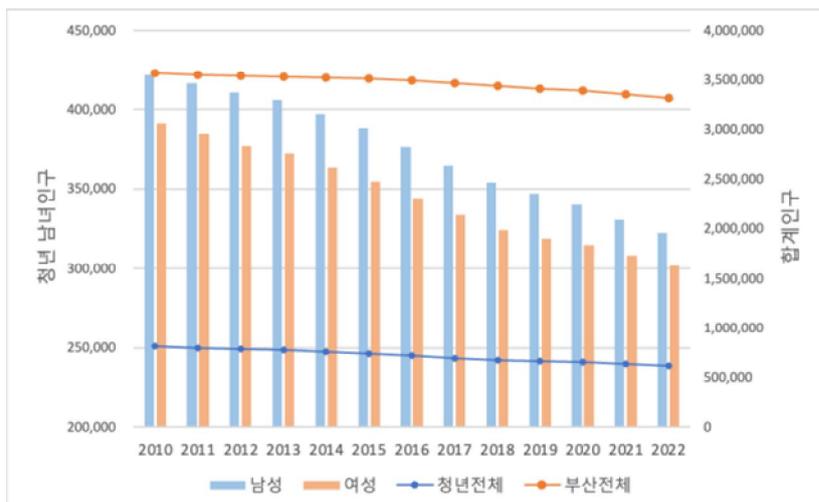
<그림 3-1> 청년인구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

- 부산 청년인구(19세~34세) 비율은 2010년 22.8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처음으로 전체 부산 인구에서 2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18.81%로 감소하였음.
- 전국의 청년 인구비율이 2010년 22.80%로 2022년 19.88%로 2.92%p 하락한 반면에 부산 청년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3.97%p 감소하였음.
- 부산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인구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3-2> 부산 전체/청년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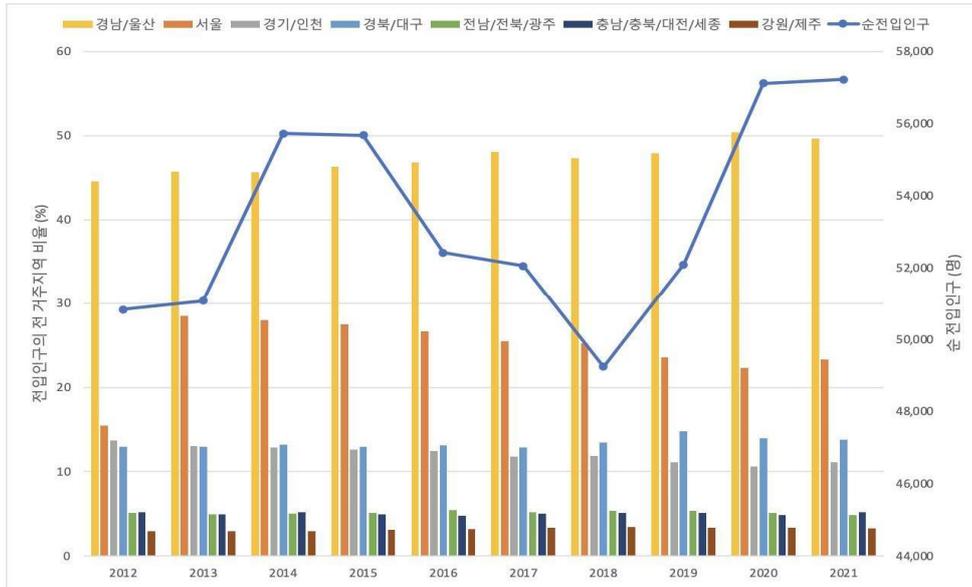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

- 부산 총인구는 2010년 약 357만 명에서 2022년 약 332만 명으로 약 25만 명 감소하였고, 청년인구는 2010년 약 76만 명에서 약 60만 명으로 약 17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음.
- 청년인구의 추이를 보면, 부산 청년 중 남성의 인구가 여성의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부산 청년 남성과 여성 인구는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남성은 42.2만 명에서 32.2만 명으로, 여성은 39.1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부산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각각 99,504명, 89,504명 감소하였고 남녀 모두 비슷한 인구의 감소의 추이를 나타내지만, 인구비율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남.

(2)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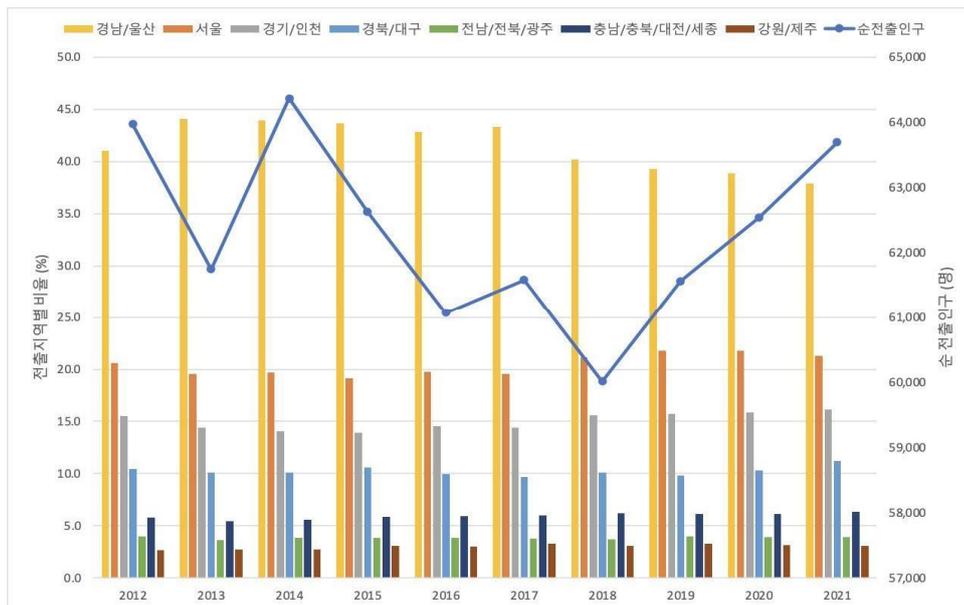
- 부산 청년의 순전입인구는 연도별로 변동 폭이 있으나 매년 약 5만 명, 순전출인구는 약 6만 명 전후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음.
 - 청년 순전입인구는 2012년 50,824명에서, 2014년 55,728명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49,23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57,219명으로 다시 증가함.
 - 청년 순전출인구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12년 53,973명에서 2018년 60,012명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2018년 이후로 2021년 63,696명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 전입인구의 전입지역과 전출인구의 전출지역은 경남/울산, 서울, 경기, 경북/대구, 전남/전북/광주 등 순으로 많았음.
 - 전입인구의 전입지역은 2021년 기준 경남/울산이 약 5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약 22~23%, 경기/인천과 경북/대구가 약 12~13%로 높았음.
 - 전출인구의 전출지역은 2021년 기준 경남/울산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약 20%, 경기/인천이 약 15%, 경북/대구가 약 10%로 높았음.
 - 전입과 전출의 지역별 특징으로 근접한 경남 지역으로의 전출입이 가장 많으며 인구비율이 높고 산업적 집적도가 높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출입이 그 다음으로 많은 특징을 보임.

<그림 3-3> 부산 청년 순전입인구 추이(명)와 전입지역 비율(%) 추이



*출처: 부산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busan.go.kr/>)

<그림 3-4> 부산 청년 순전출인구 추이(명)와 전출지역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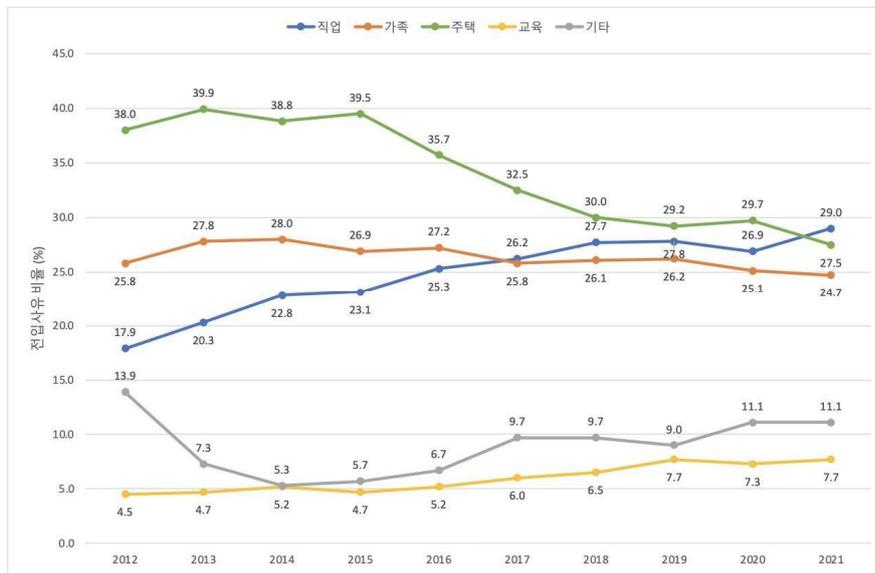


*출처: 부산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busan.go.kr/>)

- 청년 전입인구의 전입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교육 순으로 높았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남. 단, 직업과 주택 사유의 변화가 눈에 띈.
- 2012년 전입인구의 전입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으로 전입인구 중 38%가 주거 문제를 이유로 전입해 왔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 27.5%로 감소함.

- 가족은 두 번째로 높은 전입사유로 2012년 25.8%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나 2021년에도 24.7%로 약 1/4의 전입인구가 가족의 이유로 전입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 3번째로 가장 많은 전입사유는 직업으로 17.9%의 전입자가 구직 및 이직의 사유로 부산으로 이주하였으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29%로 가장 높은 전입사유로 증가함.
- 부산으로 이주하는 청년은 점차 주택이나 가족의 이유보다는 직업 때문에 이주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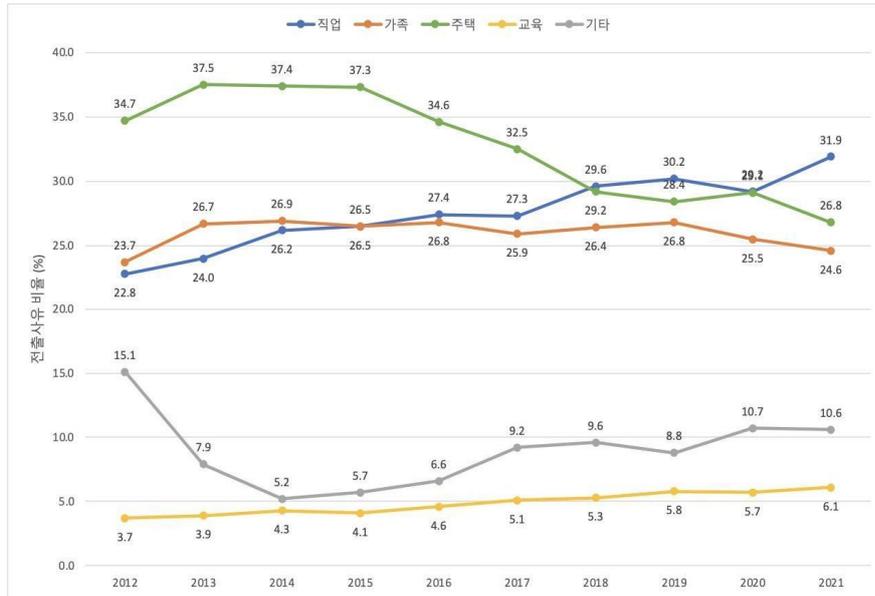
<그림 3-5> 부산 청년 전입사유 비율(%) 추이



*출처: 부산공공데이터 포털 (<https://data.busan.go.kr/>)

- 부산 청년의 전출사유 비율도 전입사유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주택, 가족, 직업, 교육 이유 순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 가장 많은 청년의 전출 사유는 주택으로 전출인구의 34.7%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26.8%로 직업에 이어 두 번째 가장 많은 전출사유를 차지함.
- 가족은 2012년 전출사유의 23.7%로 이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여 2021년에는 24.6%를 차지하고 있음.
- 직업은 2012년 22.8%로 세 번째로 많은 전출사유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1.9%로 가장 많은 전출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 전출사유도 전입사유와 유사하게 청년이 2012년 이후 직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6> 부산 청년 진출사유 비율(%)



*출처: 부산공공데이터 포털 (<https://data.busan.go.kr/>)

(3) 부산 청년의 취업상태

- 2000년 이후 부산 청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전국 평균 실업률에 비해서 항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림 3-7> 청년 실업률 추이(%) (2000~2022)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

- 2000년 부산 청년 실업률은 12.1%로 전국 평균인 8.1% 보다 3% 높았으며, 2022년도 전국 평균 6.4%에 비해 0.4% 높은 6.8%의 청년 실업률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비슷한 광역지자체인 대구, 인천 광주에 비교했을 때 대체로 7%~12% 사이에서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지자체별 경기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연도에 따라 지역별 실업률 격차가 다르게 나타남.

(4) 부산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특징과 청년취업

- 2020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¹⁾,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숫자는 약 119만 명으로 9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98,367명으로 부산 전체 취업자 중 8.3%에 불과함.
- 전체 근로자 중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07,1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1.1%가 이에 속함.

<그림 3-8> 주요 광역지자체 기업규모별 종사자수(2020)
(단위: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 중소기업기본통계(2020)

-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대구, 인천, 광주에 비해서 전체 근로자수는 가장 많으며, 대기업 종사자수는 인천(112,216명) 다음으로 많음.
- 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가 가장 많음.

1)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중소기업기본통계>에서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며,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대기업 종사자수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이 부산보다 약 1.3만 명 많음.
-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종사자수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의 중소기업의 비중(8.3%)은 인천(11.2%), 광주(7.7%)보다 작고, 대구(6.1%)보다는 많은 특징이 나타남.

- 부산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측면에서 볼 때, 청년이 주로 선호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8.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취업기회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대기업의 본사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에서 청년들의 대기업의 취업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음.
- 반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91.7%로 부산 내에서 청년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지는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5~10명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과반(51.1%) 이상임.
- 청년이 부산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주고, 중소기업의 안정성 및 취직할 때 없는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5) 부산 청년의 삶의 질과 행복감

① 삶의 질과 만족도

□ 생활수준 만족도

- 부산 청년의 생활수준 만족도 측정(11점 척도) 결과는 평균 7.15점으로 확인됨.²⁾
- 지역별 측정 결과는 동부산(7.27) > 중부산(7.15) > 서부산(7.14) > 원도심(6.88) 순으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산을 떠나길 희망하는 응답자(6.89)보다 부산에 남기를 희망하는 응답자(7.25)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여성(7.02)보다 남성(7.27)의 만족도가 높아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20대 초반(7.68) > 20대 후반(6.90) > 30대 초반(6.72)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³⁾
-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7.37) > 결혼 경험(7.19) >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6.74) 순으로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7.31)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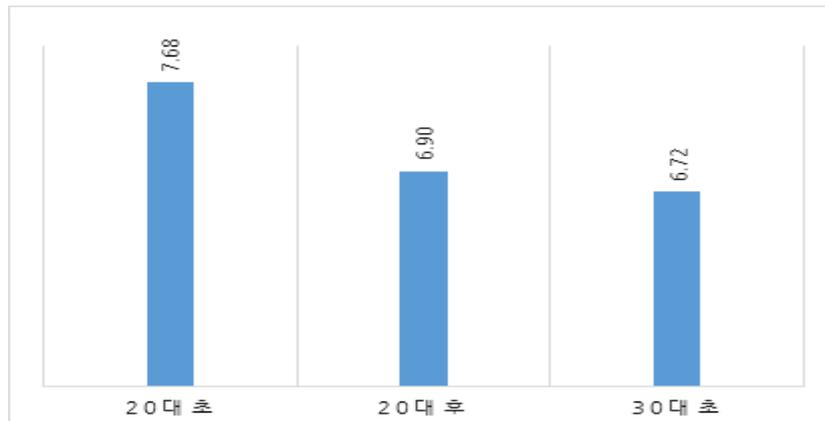
2) 전국 평균의 청년 만족도는 평균 6.95점으로 확인되어 생활수준 만족도는 부산 청년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됨(<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

3) 부산 청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반면, 전국조사 결과(<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에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산 청년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은 20대 초반의 부산 청년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독립생활 중인 청년(6.87)보다 높은 만족도가 확인됨.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6.87)보다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7.48)의 만족도가 높게 확인되었고, 근로 경험자(7.01)보다 무경력자(7.40)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9> 연령집단별 생활 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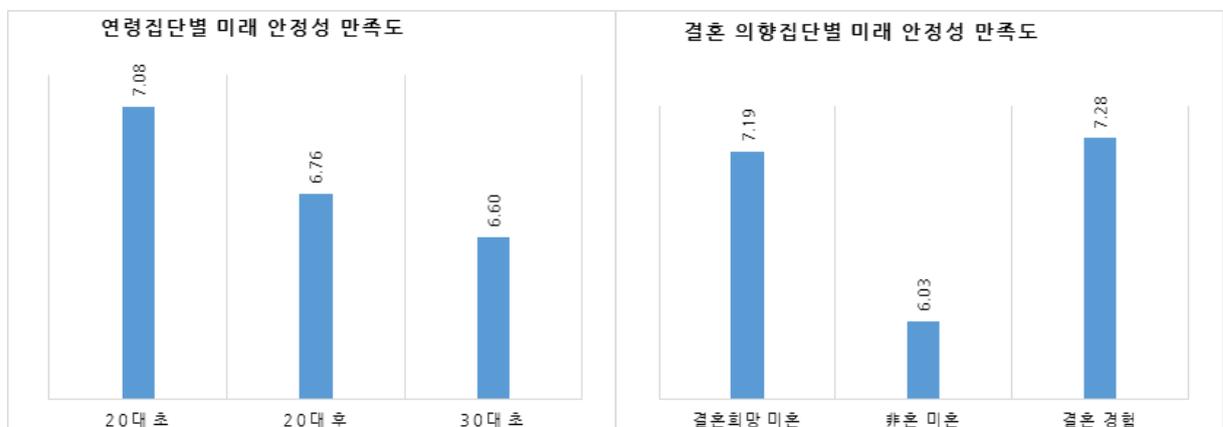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11점 척도

□ 미래 안정성 만족도

- 부산 청년의 미래 안정성 만족도 측정(11점 척도) 결과는 평균 6.83점으로 확인됨.
- 지역별 측정 결과는 동부산(6.97) > 중부산(6.93) > 서부산(6.71) > 원도심(6.55) 순으로, 동서격차의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산을 떠나길 희망하는 응답자(6.19)보다 부산에 남기를 희망하는 응답자(7.09)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0> 집단별 미래 안정성 만족도(연령/결혼의향)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11점 척도

- 여성(6.57)보다 남성(7.08)의 만족도가 높아 젠더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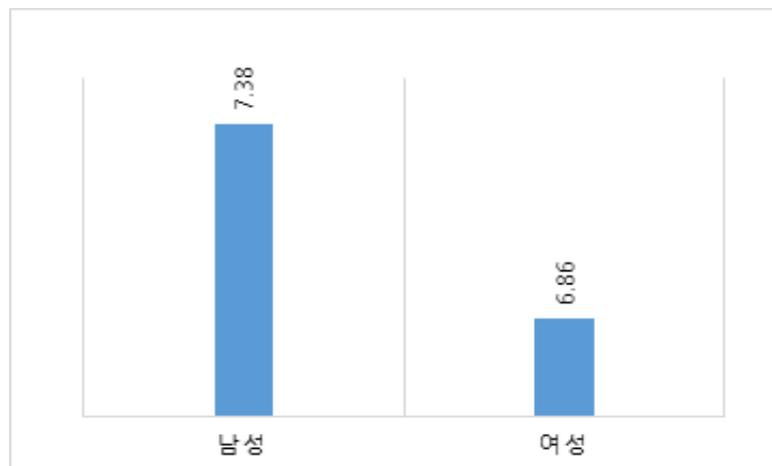
초반(7.08) > 20대 후반(6.76) > 30대 초반(6.60)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⁴⁾

- 결혼 경험(7.28) >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7.19) >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6.03) 순으로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⁵⁾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6.96)이 독립생활 중인 청년(6.62)보다 높은 만족도가 확인됨.
- 근로 경험자(6.80)와 무경험자(6.90) 간의 만족도 차이와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6.89)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6.79) 간의 만족도 차이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개인 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 만족도

- 부산 청년의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 측정(11점 척도) 결과는 평균 7.13점으로 확인됨.
- 지역별 측정 결과는 동부산(7.28) > 중부산(7.27) > 서부산(6.95) > 원도심(6.80) 순으로, 동서격차의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산을 떠나길 희망하는 응답자(6.60)보다 부산에 남기를 희망하는 응답자(7.34)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1> 젠더별 개인 시간 만족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11점 척도

- 여성(6.86)보다 남성(7.38)의 만족도가 높아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⁶⁾ 20대 초반(7.45) > 20대 후반(7.01) > 30대 초반(6.82)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4) 부산 청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 안정성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반면, 전국조사 결과(<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에서는 20대 초(7.05) < 20대 후(7.16) < 30대 초(7.23) 순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됨.

5) 부산 청년에서는 결혼 경험자(7.23)가 결혼희망 미혼(7.19) 응답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전국조사 결과(<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에서는 결혼희망 미혼(7.35) 응답자가 결혼 경험자(7.26)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6) 부산 청년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 반면, 전국조사 결과(<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의 젠더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산 청년과 전국조사 결과의 차이는 부산 여성의 낮은 만족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

-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7.48) > 결혼 경험(7.03) >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6.53) 순으로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7.29)이 독립생활 중인 청년(6.84)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7.01)보다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7.26)의 만족도가 높게 확인되었고, 근로 경험자(7.00)보다 무경험자(7.37)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② 주관적 행복감과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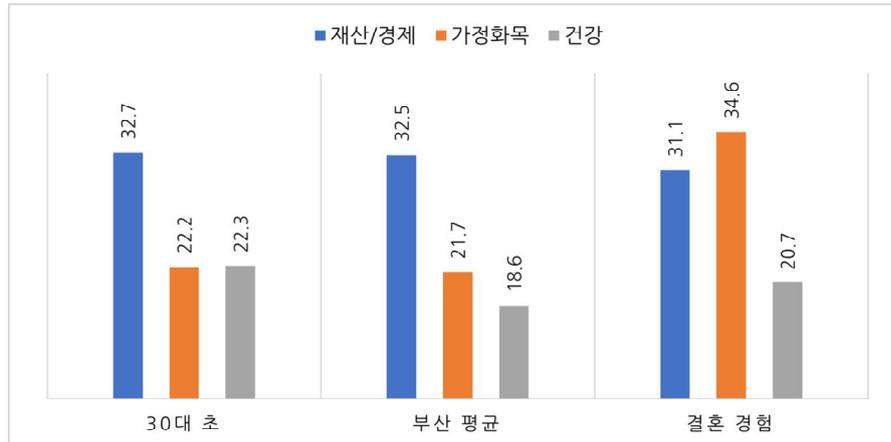
□ 주관적 행복감

- 부산 청년의 주관적 행복감 측정(11점 척도) 결과는 서부산(7.59) > 중부산(7.58) > 동부산(7.55) > 원도심(7.42) 순의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산을 떠나길 희망하는 응답자(7.21)보다 부산에 남기를 희망하는 응답자(7.69)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여성(7.44)보다 남성(7.66)의 행복감이 높아 젠더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20대 초반(7.81) > 20대 후반(7.48) > 30대 초반(7.31)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
- 결혼 경험(7.92) >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7.78) >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7.01) 순으로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7.62)이 독립생활 중인 청년(7.45)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7.46)보다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7.66)의 행복감이 높게 확인되었고, 근로 경험자(7.53)와 무경험자(7.59) 간의 행복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 부산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재산 및 경제력(32.5%) > 화목한 가정(21.7%) > 건강(18.6%) > 자아성취(9.1%) > 직업 및 직장(7.5%) > 대인관계(7.5%) > 꿈 및 목표(3.0%) > 기타(0.1%)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전체 3순위까지의 순위는 지역별, 성별 차이가 없으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 근로 경험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없음.
- 20대 초 및 후반 청년들은 부산 전체의 중요도 순위와 동일한 반면, 30대 초반 청년들은 재산 및 경제력(32.7%) > 건강(22.3%) > 화목한 가정(22.2%)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3-12> 집단별 행복의 조건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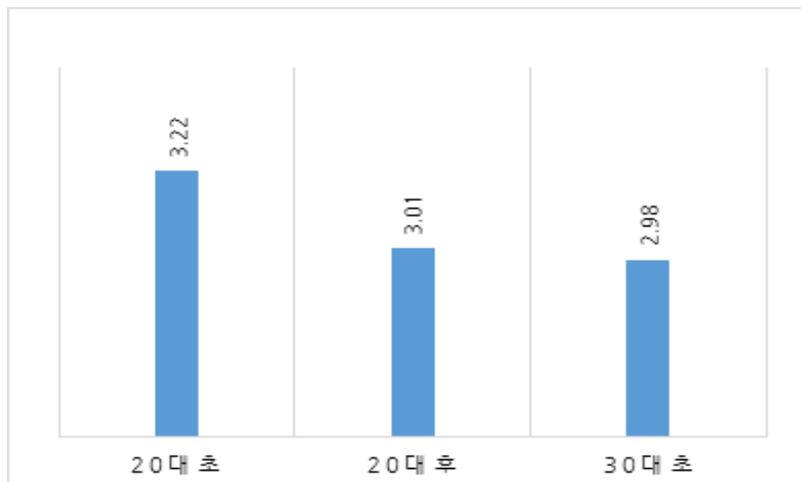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른 집단에서 미혼 응답자들은 부산 전체의 중요도 순위와 동일한 반면, 결혼 경험자의 중요도 순위는 화목한 가정(34.6%) > 재산 및 경제력(31.1%) > 건강(20.7%)의 순으로 확인됨.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충족 정도

- 부산 청년의 행복의 조건 충족 정도 측정(5점 척도) 결과는 평균 3.08점으로 확인됨.
- 지역별 측정 결과는 동부산(3.12) > 서부산(3.12) > 중부산(3.06) > 원도심(2.96) 순으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산을 떠나길 희망하는 응답자(2.89)보다 부산에 남기를 희망하는 응답자(3.16)의 충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3> 연령집단별 행복의 조건 충족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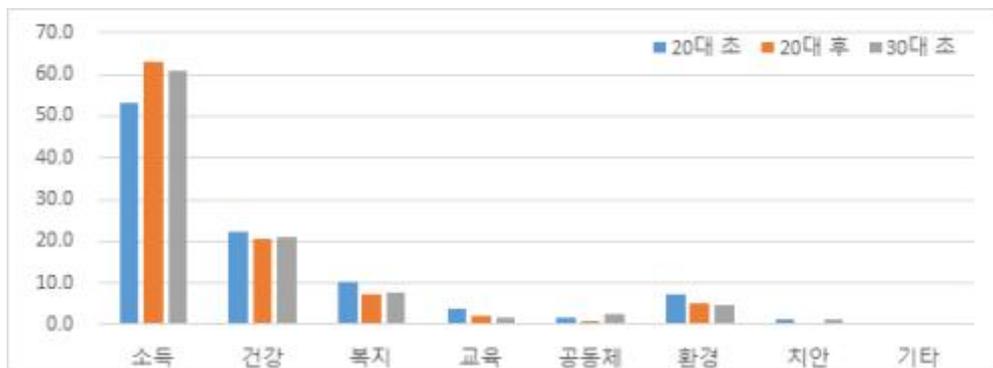
○ 젠더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20대 초반(3.22) > 20대 후반(3.01)

- > 30대 초반(2.98)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충족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됨.⁷⁾
- 결혼 경험(3.21) >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3.18) >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2.87) 순으로 결혼 경험 및 희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3.14)이 독립생활 중인 청년(2.98)보다 높은 충족 정도가 확인됨.
- 근로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3.04)보다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3.14)의 만족도가 높게 확인됨.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 부산 청년이 자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소득 향상(58.6%) > 정신·신체적 건강(21.3%) > 복지 서비스(8.6%) > 쾌적한 환경(5.9%) > 교육/평생교육(2.8%) > 지역공동체(1.6%) > 치안·안전(0.9%) > 기타(0.1%)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함.
-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선택 순위는 경제 > 건강 > 사회적 환경 등의 순으로 요약될 수 있음.

<그림 3-14> 연령집단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 희망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연령집단별 지원 희망 분야 순위는 전체 평균 순위와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집단에 따라 각각의 분야 비율에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함.
- 20대 초반은 소득 향상(53.2%)을 전체 평균보다 적게 선택한 반면, 신체·정신건강(22.3%), 복지 서비스(10.3%), 교육/평생교육(4.0%), 쾌적한 환경(7.2%)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음.
- 20대 후반은 20대 초반과는 반대로 나머지 분야는 전체 평균보다 적게 선택한 대신에, 소득 향상(63.2%)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3가지 연령집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7) 부산 청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의 조건 충족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반면, 전국조사 결과(<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됨.

- 30대 초반도 소득 향상(60.7%)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지만, 20대와는 다르게 지역 공동체(2.4%), 치안·안전(1.1%) 등, 사회적 환경 분야를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선택한 특징이 나타남.
- 20대 Z세대는 보다 개인적 부분의 지원을 선택한 반면, 30대 M세대는 보다 사회적 부분의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내 가치의 차이가 확인됨.

3) 부산 청년 삶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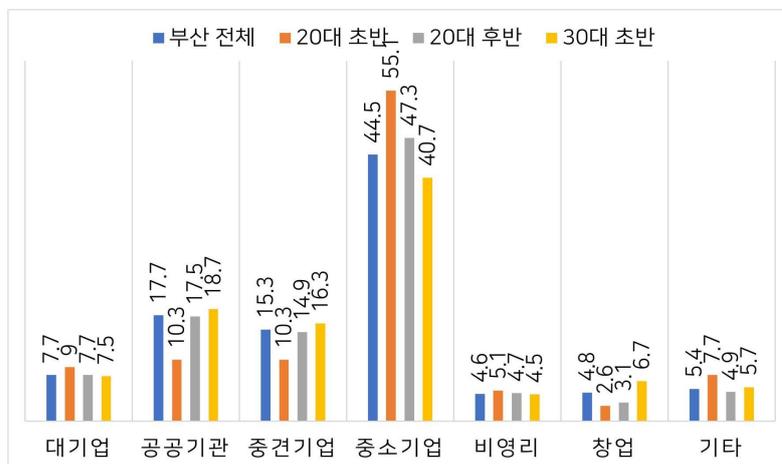
(1) 일자리

① 직장 유형 및 종사자 규모

□ 부산 청년은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음.

- 부산 청년실태조사 응답자의 48.7%(1,464명)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중 44.5%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17.7%)과 중견기업(15.3%)임. 반면 대기업(7.7%), 창업(4.8%), 비영리(4.6%)는 제한적임.
- 연령별로도 20대 초반(55.1%), 20대 후반(47.3%), 30대 초반(40.7%) 모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대 초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따라서 부산 청년 취업자는 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특히 창업·비영리 기관 등에 종사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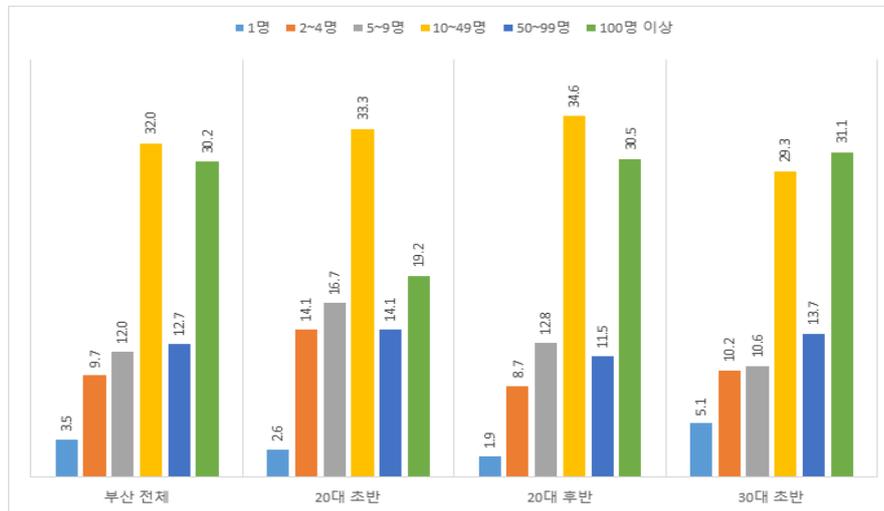
<그림 3-15> 현 직장 유형(%)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은 주로 99명 이하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부산 청년들이 종사하는 직장의 종사자수는 10~49명이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명 이상이 30.2%임. 그리고 50~99명이 12.7%, 5~9명이 12.0%, 2~4명이 9.7%, 1명은 3.5%였음. 99명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했음.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대 초반은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19.2%, 20대 중반은 30.5%, 그리고 30대 초반은 31.15%였음.
 - 따라서 부산 청년들은 주로 99명 이하 규모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현 직장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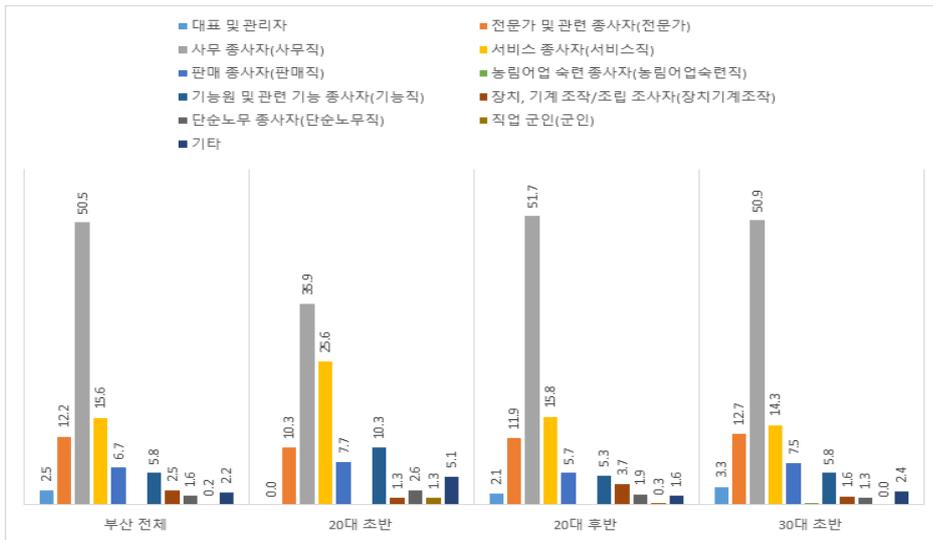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② 직종과 고용형태

- 부산 청년은 주로 사무직에 종사를 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
 - 부산 청년이 근무하는 직종은 사무직이 5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이 15.6%, 전문직이 12.2%임.
 - 연령대별로도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20대 초반(35.9%)에 비해 20대 후반(51.7%)과 30대 초반(50.9%)의 사무직의 비중이 높았음.
 - 20대 초반의 서비스직 비중은 25.6%로 나타나, 20대 후반(15.8%) 및 30대 초반(14.3%)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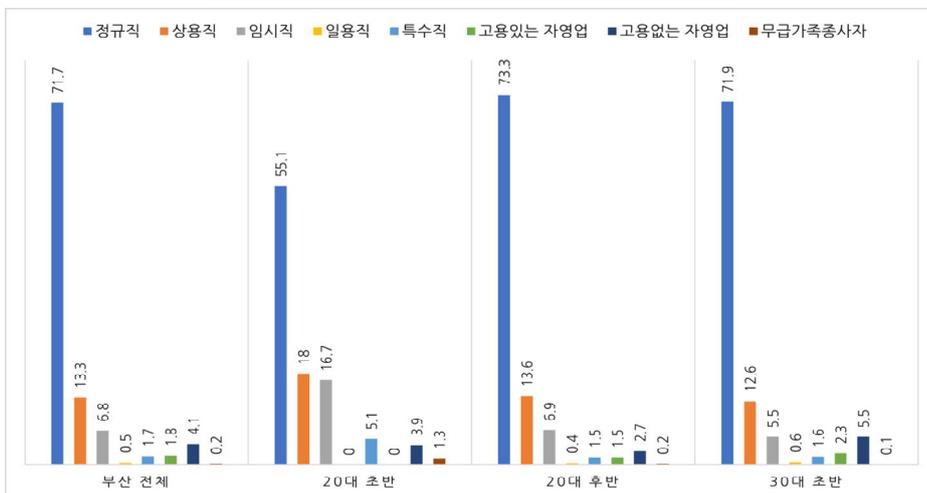
<그림 3-17> 현 일자리 직종(%)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의 대다수는 정규직 임금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으나, 연령대별로 고용형태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음.
- 부산 청년의 현 직장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7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상용임금노동자(13.3%)와 임시노동자(6.8%)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20대 초반(55.1%), 20대 후반(73.3%), 30대 초반(71.9%) 모두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20대 초반은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율이 낮고, 상용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음.
- 따라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로 흡수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추후 논의 예정인 FGI에서도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대학과 연계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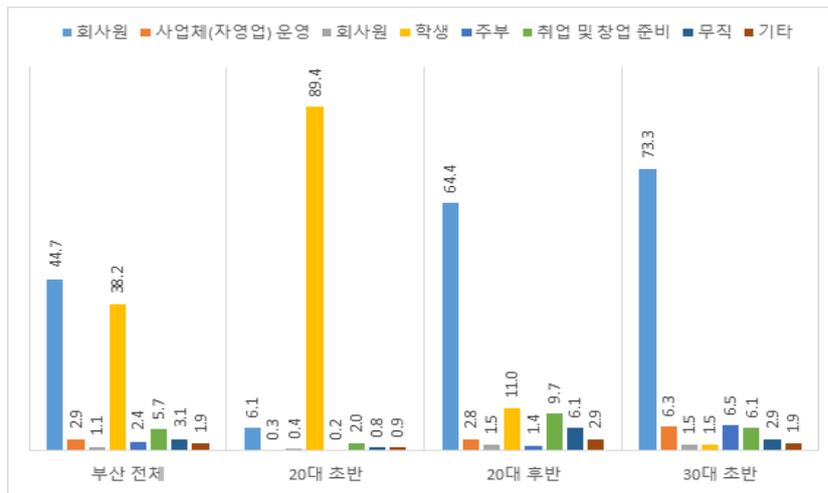
<그림 3-18> 현 직장 고용형태(%)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의 주된 일자리는 회사원과 대학생이나 연령별로 일자리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확인됨.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대 초반은 학생이 89.4%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회사원이 각각 64.4%와 7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다른 연령에 비해서 20대 후반은 취업 및 창업 준비(9.7%)가 높은 반면, 30대 초반은 사업체(자영업)운영(6.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청년의 연령별로 상대적으로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교 졸업 후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후 논의 예정인 FGI에서도 30대 초중반은 창업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관련된 교육을 요구함.

<그림 3-19> 주된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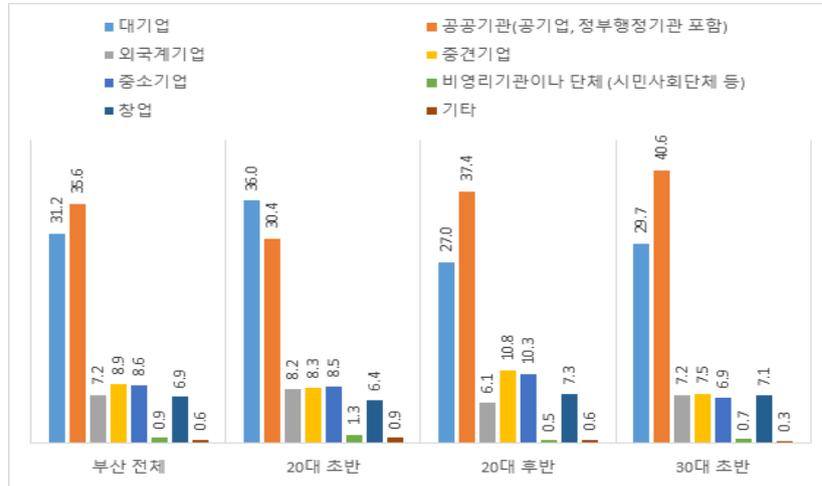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③ 이직하고 싶은 기업체 및 일자리 선택의 고려사항

- 부산 청년이 이직하고 싶은 기업체는 공공기관(35.6%)과 대기업(31.2%)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중견기업(8.9%)과 중소기업(8.65)에 대한 이직 선호도는 낮았음.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기업에 대한 이직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중견기업(10.8%)과 중소기업(10.3%)에 대한 선호는 20대 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현재 일자리 가진 청년들의 약 70%가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을 희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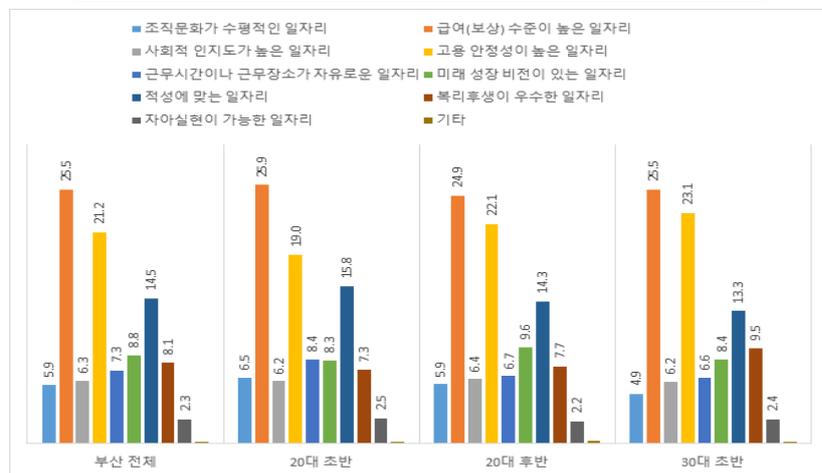
<그림 3-20> 이직하고 싶은 기업체(%)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이 일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높은 급여 (25.5%)와 고용 안정성(21.2%), 그리고 적성(14.5%)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구분해 볼 때,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일자리 선정의 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즉, 높은 급여,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고, 복리후생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임.
- 일자리 가진 청년의 약 70%가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차원에서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 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1> 일자리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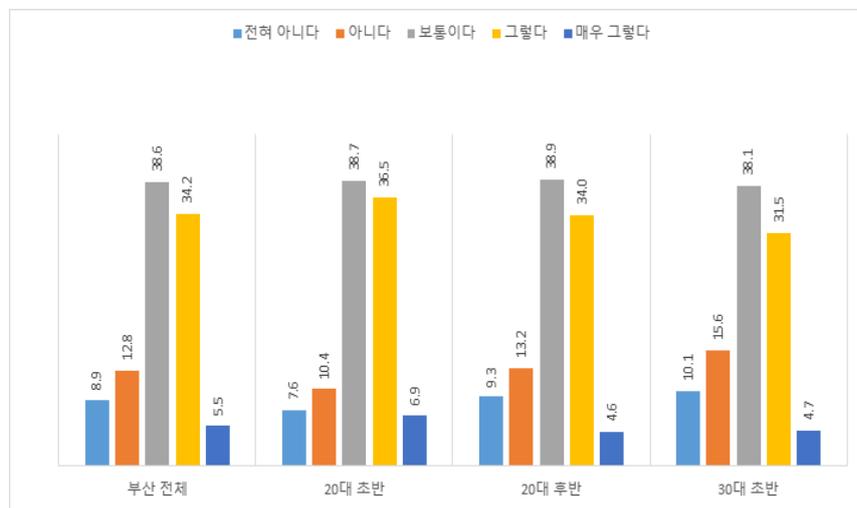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④ 중소기업 선호와 회피 이유

□ 부산 청년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부산 청년의 39.7%가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라고 응답함. ‘보통이다’도 38.6%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의 의사를 보인 경우가 20대 초반(43.4%)이 20대 후반(38.6%) 및 30대 초반(3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이 요청됨.

<그림 3-22> 중소기업 취업 의사(%)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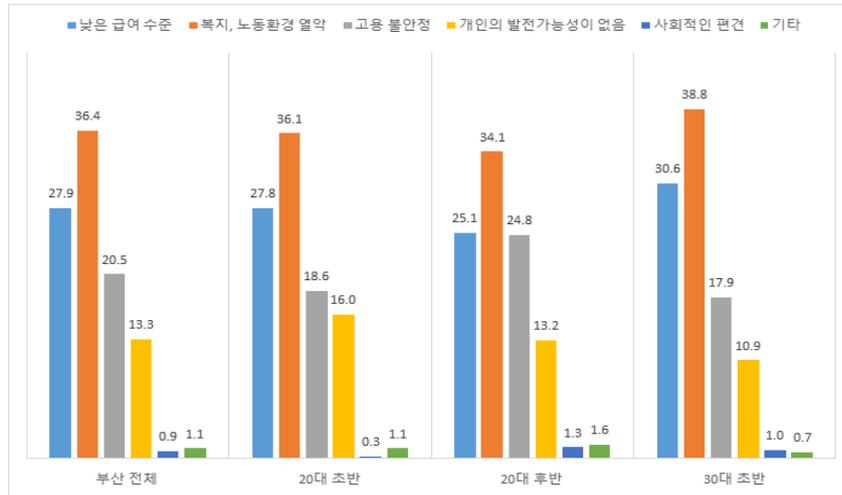
□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주요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급여임.

- 부산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복지 및 노동환경열악(36.4%)과 낮은 급여(27.9%)인 것으로 나타남.⁸⁾
- 연령별로도 20대 초반(36.1%), 20대 후반(34.1%), 30대 초반(38.8%) 모두 복지 및 노동환경열악을 중소기업 회피의 주요 사유로 들었음.
- 다만 20대 후반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고용불안정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근무 및 노동환경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예컨대 청년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파악해 중소기업에 전달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서 반영할 필요도 있음.
- 또한 FGI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소기업의 복지 혜택 미비와 워라벨 실현의 어려움은

8) 전국 조사(<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에서 낮은 급여는 23.2%, 고용불안정은 22.9%였음.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부산의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청년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그림 3-23> 중소기업 회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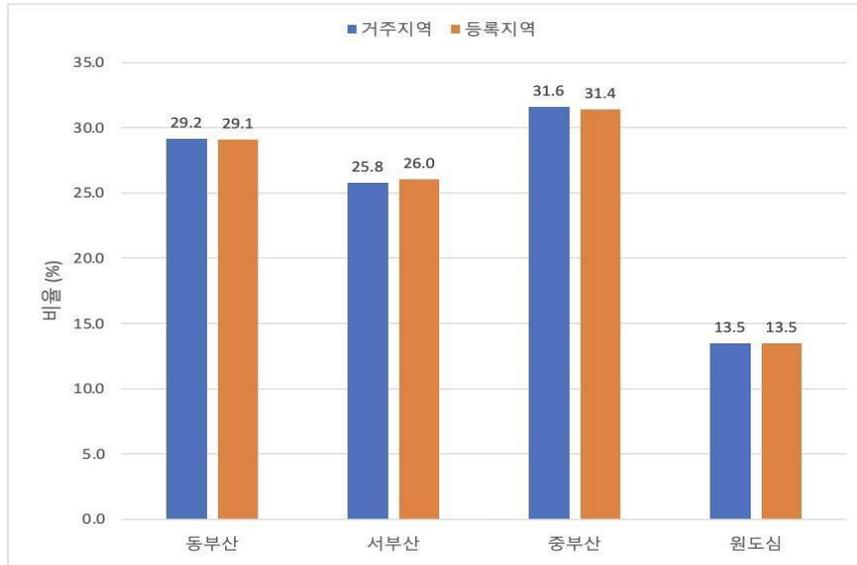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2) 주거

① 주거형태

- 부산 청년은 주거지역과 등록지역이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지역별로 거주 및 주민등록 빈도가 높았음.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산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지역과 실거주지역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보임. 주민등록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 중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동부산(29.2%), 서부산(25.8%), 원도심(13.5%) 순으로 많이 거주함.
- 상업지역 등이 밀집한 원도심과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서부산 지역보다는 동부산 또는 중부산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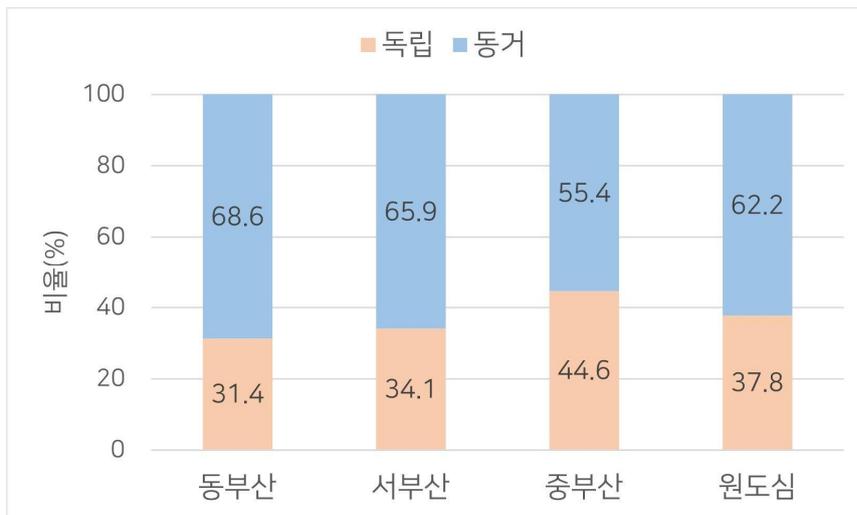
<그림 3-24> 부산 청년의 주민등록지역 및 실거주지역(%)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비율은 중부산이 가장 높고, 동부산, 서부산이 상대적으로 독립거주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민등록지역과 실거주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동일한 추세를 가지고 있음.
- 실거주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년의 독립거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부산으로 약 44.6%의 응답자들이 독립거주를 하고 있으며, 원도심, 서부산, 동부산 순으로 독립거주의 비율이 높았음.

<그림 3-25> 부산 지역별 청년 독립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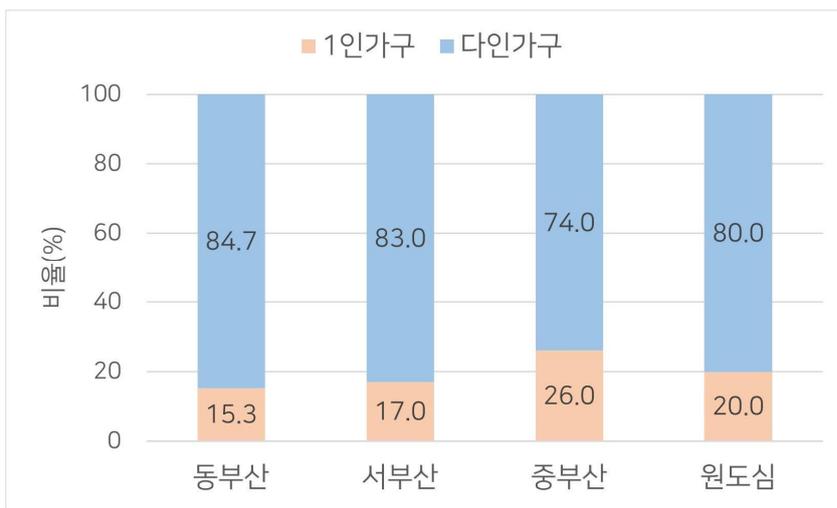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거주지 기준

- 부산 청년 1인가구 비중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중부산의 청년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상대적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높고 대학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중부산(26%)과 원도심(20%)의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속하며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동부산(15.3%)과 서부산(17%)의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이 낮았음.
- 이러한 패턴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독립거주 청년의 지역별 비중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부산 모든 지역에서 독립거주 여부에 비해 1인가구의 비중이 약 15~20% 정도 낮은 것으로 보아 부모와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응답자 중에 형제나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도 1인가구와 비슷하게 있음을 유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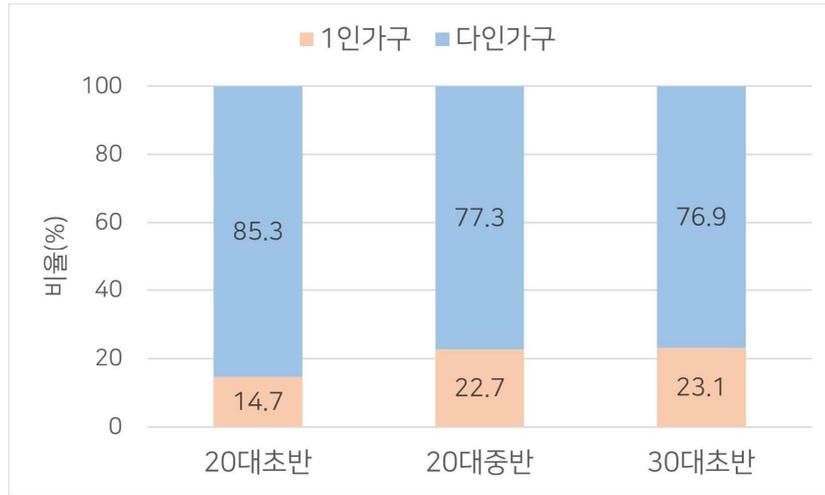
<그림 3-26> 부산 지역별 청년 1인가구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측면에서, 부산 청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20대 초반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14.7%인 반면, 30대 초반은 23.1%가 1인가구에 해당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은 청년이 학업을 마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거나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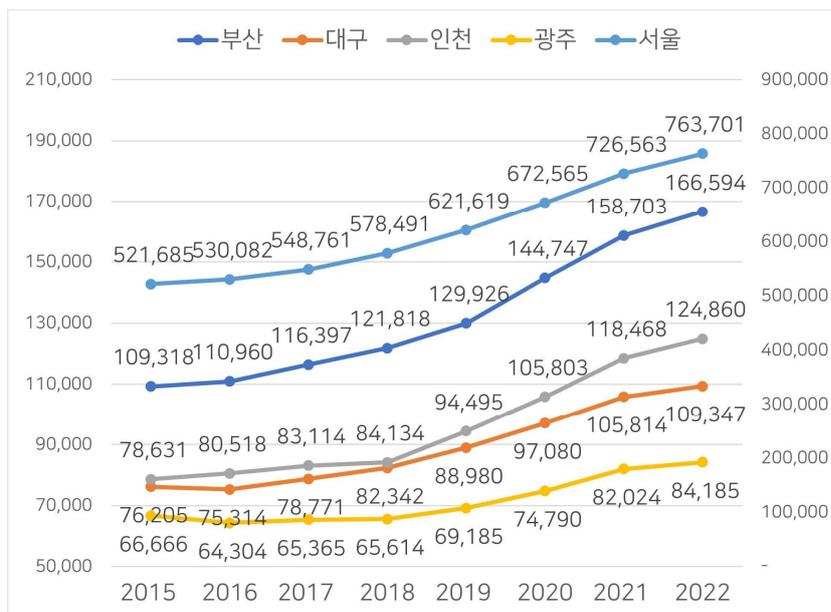
<그림 3-27> 부산 연령대별 청년 1인가구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통계청 <인구총조사> 추이를 보면,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청년(20세~39세)의 1인가구 수가 많은 광역지자체이며, 2015년 이후 전국적 추이와 비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부산 청년 1인가구는 109,318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66,594명이 1인가구로 집계되고 있음.
- 부산 청년의 1인가구의 수는 서울보다 작지만, 대구, 인천, 광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28> 주요 광역지자체의 청년 1인가구 추이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부산 청년의 젠더별 및 연령별 1인가구 특징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5~29세 청년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 1인가구의 수는 남성의 경우 2015년 249,114명으로 여성 134,877명보다 약 2배가량 많음.
- 부산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 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 각각 366,059명, 198,173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부산 25~29세 1인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5년 29,500명에서 2022년 55,655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30~34세, 20~24세, 35~39세 순으로 증가폭이 컸음.

<그림 3-29> 부산 젠더별/연령별 청년 1인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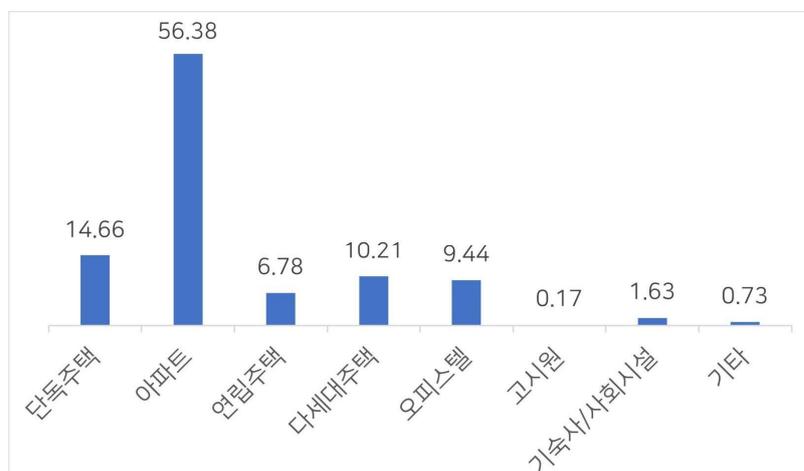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은 아파트에 주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주택유형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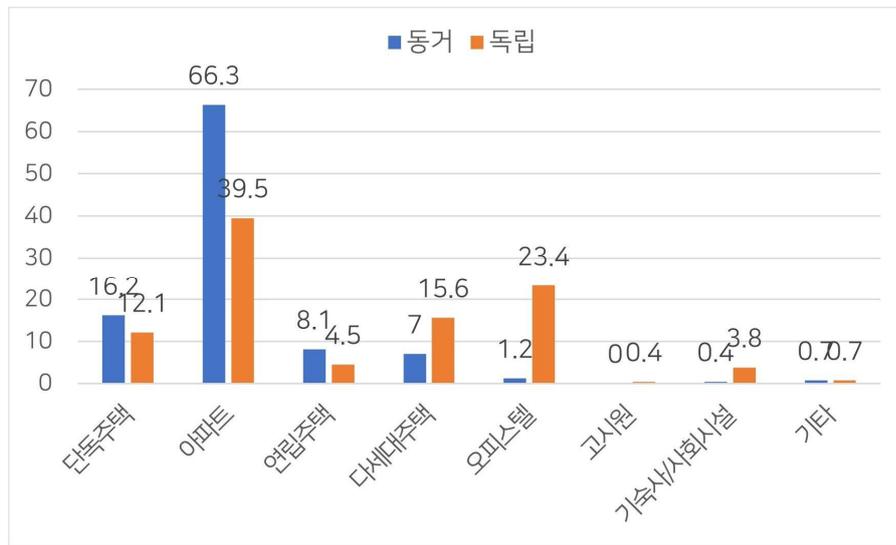
<그림 3-30> 주택 유형(%)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전국과 유사하게 가장 높은 청년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전체 청년의 약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주택 유형의 비중 순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⁹⁾
- 주택유형의 차이는 부산 청년이 주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등의 보급률 또는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부산 청년의 독립거주 여부에 따라 주택유형을 보았을 때, 독립거주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의 순으로 독립거주의 비율이 높음.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아파트(66.3%)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16.2%), 연립주택(81.%) 등 순으로 주택 거주 유형이 나타남.
-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거주 중인 주택 유형이 달라짐.

<그림 3-31> 독립거주 여부에 따른 주택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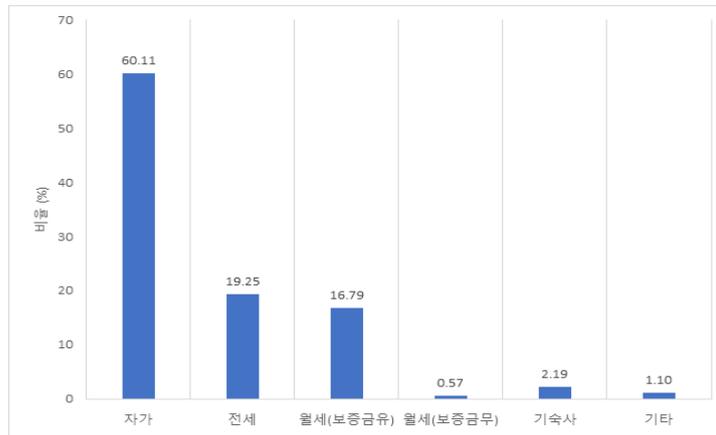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 전국과 비교했을 때 부산 청년의 자가비율이 설문조사 결과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부산 청년들이 부모세대와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 소유의 집을 자가로 표시한 경향성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9) 전국조사에 따르면(<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 전국 청년의 주택유형은 아파트(33.4%), 다세대주택(25.2%), 단독주택(9.2%) 오피스텔(5.5%) 순이었으나, 부산에서는 아파트(56.4%), 단독주택(14.6%), 다세대주택(10.2%), 연립주택(6.8%) 순이었음.

<그림 3-32>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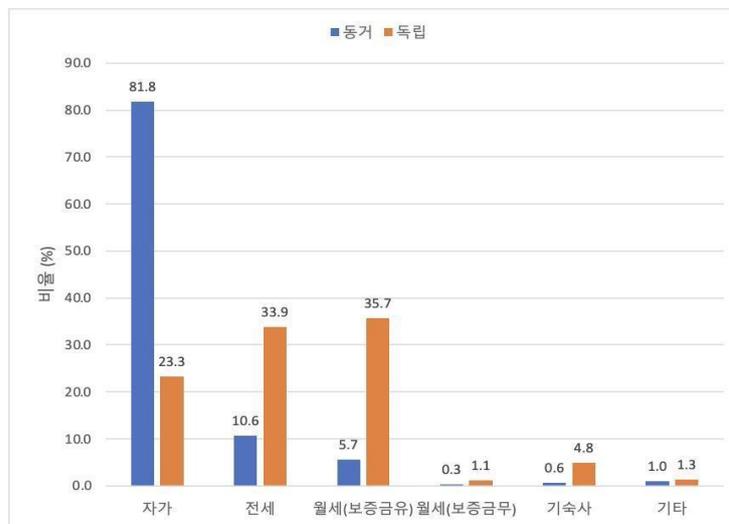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를 때, 부산 청년은 자가(60.1%), 전세 (19.25%), 보증금이 있는 월세(16.8%) 순으로 주택 점유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했을 때 부산 청년의 주택 점유 형태에서 자가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비중은 높고, 전세와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임.¹⁰⁾
- 부산 청년의 높은 자가 비율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설문조사에서 자가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됨.

- 청년이 독립거주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 점유형태가 달라지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자가가 가장 높고, 독립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음.

<그림 3-33> 독립거주 여부에 따른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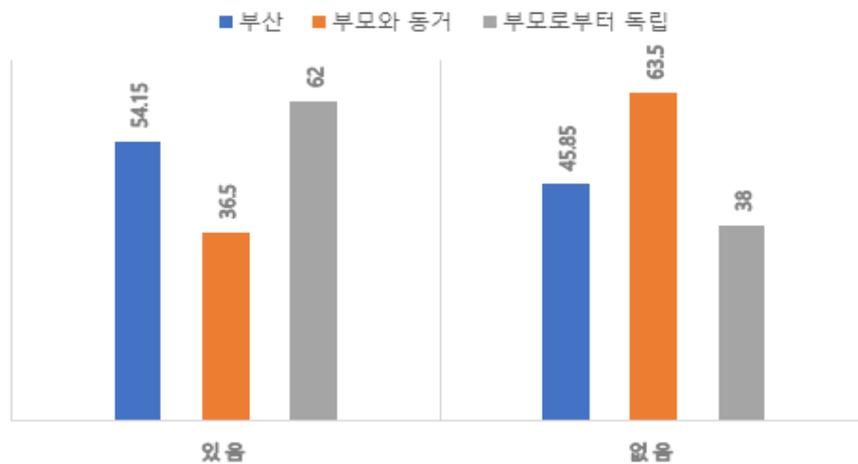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10)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전국 청년의 주택 점유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40.12%), 전세 (35.45%), 자가(17.49%), 기타(5.87%), 보증금 있는 월세(1.08%) 순이었음.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81.8%)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전세, 월세 순으로 주택 점유형태가 달라짐.
- 반면에 독립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35.7%)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세(33.9%), 자가(23.3%) 순으로 달라짐.
- 독립거주를 하는 청년들이 주로 월세와 전세 유형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주택점유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부산 청년 중 자가를 보유한 경우, 전국에 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자가를 보유한 경우 금융비용 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¹¹⁾
 - 부산 청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금융권 대출을 받은 비율이 54.1%로 주택을 소유한 부산 청년 절반 이상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부산 청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비율이 전국에 비해 16.61%p나 높다는 점은 부산 청년이 자가 소유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융비용 지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34> 자가 보유 청년의 주거비용 대출 여부(%)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주택보유를 위한 금융권 대출여부는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없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독립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약 63.5%가 금융권 대출 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11)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한 청년 중 주거비용을 대출 받은 비율은 37.54%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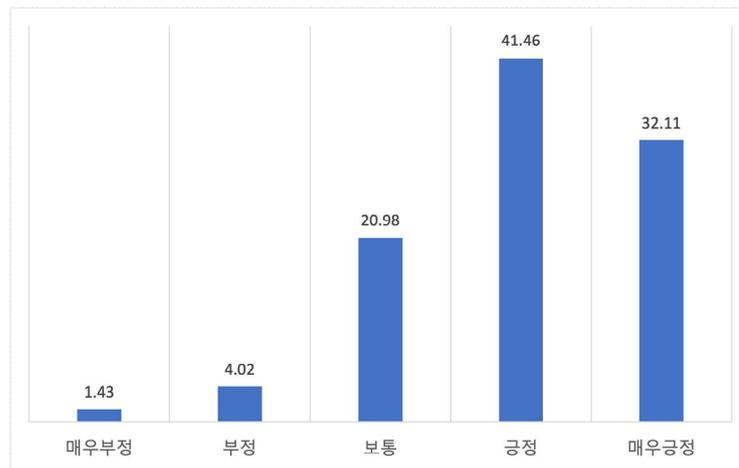
응답한 반면에, 독립거주의 경우에는 대출이 있는 경우가 62%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주택의 구매비용을 부담하는 경향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반면에 독립거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자가를 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독립거주하는 청년의 금융권 대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청년이 주거비용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가 36.47%가 있다는 점에서 부모 동거 여부를 청년 대출지원의 요건으로 넣는 경우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 마련이 필요함.

②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부산 청년 중 주택보유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73.7%로 부산 청년 다수가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경향성의 추이는 전국 청년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¹²⁾

<그림 3-35> 주택보유 의향(%)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전국과 부산 청년은 전반적으로 주택보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부산 청년의 약 73.7%가, 전국은 약 68%의 청년이 주택보유에 긍정함.
- 주택보유에 대한 개인들의 부정적인 의향은 전국에 비해 부산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부산 청년은 약 5.4%만 주택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비해, 전국은 약 12.4%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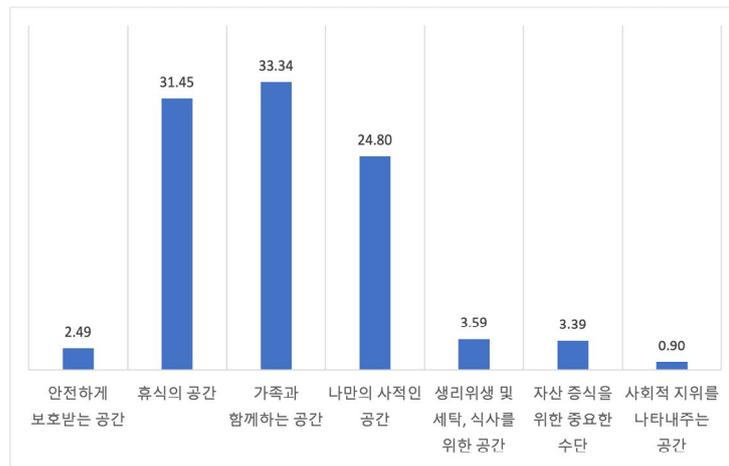
12)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보유의향에 대한 설문에 전국 청년 응답의 비율은 매우긍정 16.66%, 긍정 51.35%, 보통 19.60%, 부정 10.68%, 매우부정 1.72% 였음.

주택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

○ 자가소유의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32.1%)이 전국(16.7%)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특징을 보임. 이는 부산 청년이 상대적으로 자가 소유의 주택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부산 청년은 집을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33.34%), 휴식의 공간(31.5%), 나만의 사적인 공간(24.8%)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집을 사회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보다는 친목과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36> 집의 의미(%)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청년은 집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49%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는 점임.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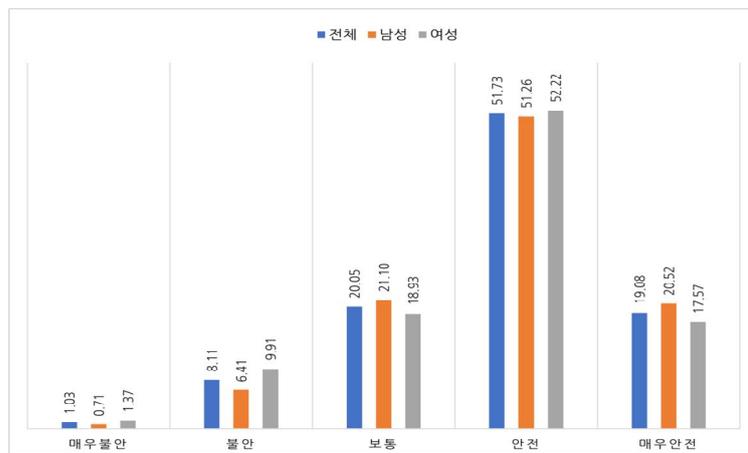
○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산 청년은 집을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26.8%) 이나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2%)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특징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과의 공유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 다른 특징은 전국 청년에 비해 집을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수단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으로 집을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3)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전국 청년이 집의 의미로 생각하는 순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33.34%),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22%), 휴식의 공간(31.45%), 나만의 사적인 공간(24.80%),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6.12%),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5.34%),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2.65%) 순이었음.

- 부산 청년은 주거환경의 안전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약 7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의 안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청년 응답자 중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10%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특징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부산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 후 살펴보았을 때도,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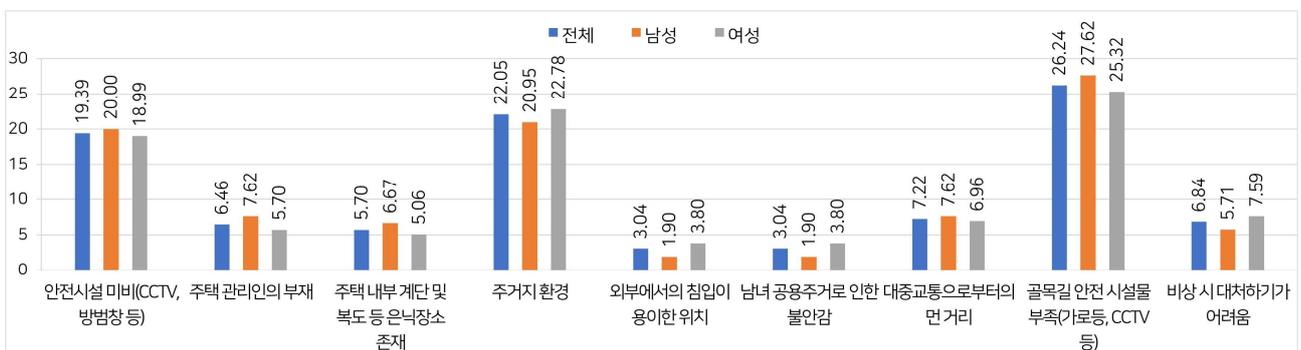
<그림 3-37> 주거환경의 안전에 대한 인식(%)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은 주거지 안전 및 보안 시설 부족 때문에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3-38>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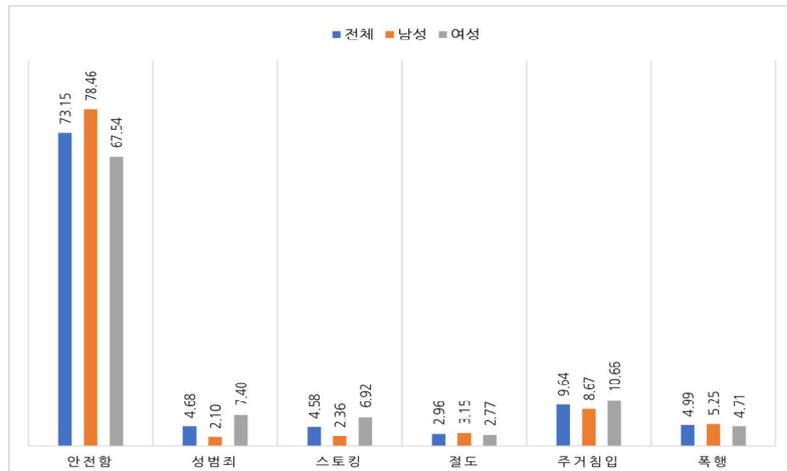
** 복수응답

-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가로등이나 CCTV와 같은 골목길 안전 시설물의 부족(26.2%)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골목길, 주택 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 환경(22%) 등을 그 이유로 들었음.

○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남녀 간의 젠더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CCTV, 공공 보안시설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산 청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5%로 2/3 이상의 청년이 부산을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그림 3-39> 주변 범죄 노출 여부(%)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의 약 70% 이상이 자신들이 범죄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부산이 안전하다고 답하였으며, 청년들이 우려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요 범죄는 주거침입(9.64%), 폭행(4.99%), 성범죄(4.68%), 스토킹(4.58%) 순이었음.

□ 주변 범죄 노출 빈도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음.

○ 여성은 안전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67.54%로 남성의 78.46%에 비해 약 10%p정도 덜 안전하다고 답하였음.

○ 여성의 경우 성범죄(7.4%)나 스토킹(6.9%)과 같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이 성범죄(2.1%)나 스토킹(2.4%)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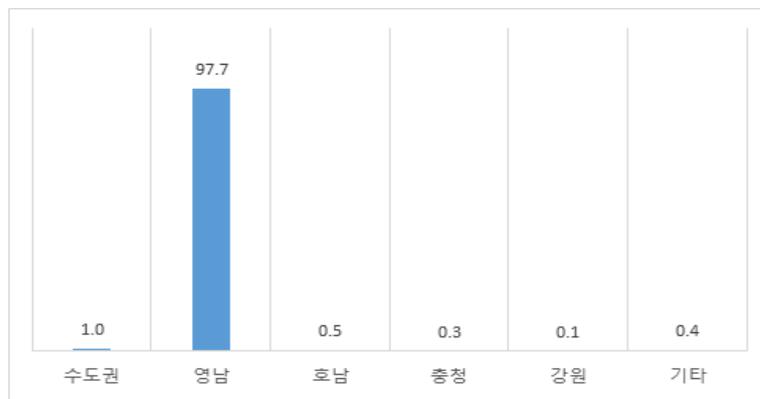
○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범죄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취약한 주거침입, 성범죄,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3) 교육

①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 소재지

- 부산 청년의 97.7%는 영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1.0%, 호남권은 0.5%, 충청권은 0.3%, 강원권은 0.1%임.
 - 다시 영남권을 다시 세분해 보면, 부산이 8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이 5.7%, 울산이 1.9%, 경북이 0.9%, 대구가 0.4% 수준임.
 - 연령별로도, 영남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음(20대 초반 98.3%, 20대 후반 97.3%, 30대 초반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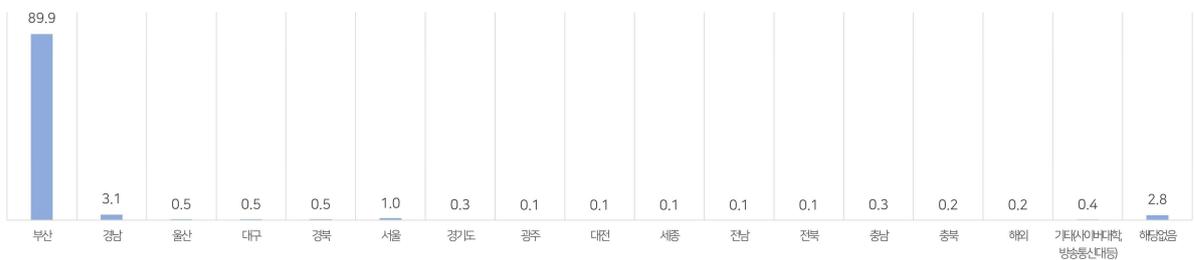
<그림 3-40>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나아가 부산 청년의 대부분은 부산지역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청년의 89.9%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도 절대적인 다수가 부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남(20대 초반 97.6%, 20대 후반 86.7%, 30대 초반 83.3%).

<그림 3-41> 출신 대학 소재지(%)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이처럼, 부산 청년의 대부분은 지역 내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추후 논의 예정인 FGI 결과 부산지역에서의 거주 의사도 높아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추후 논의 예정인 FGI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나 지자체 프로그램 이외에 대학 생활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음.
- 이러한 현상은 부산의 청년 대상 교육정책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음.
- 따라서 청년정책은 지역소재 대학과 연계하되 대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등학교와도 정책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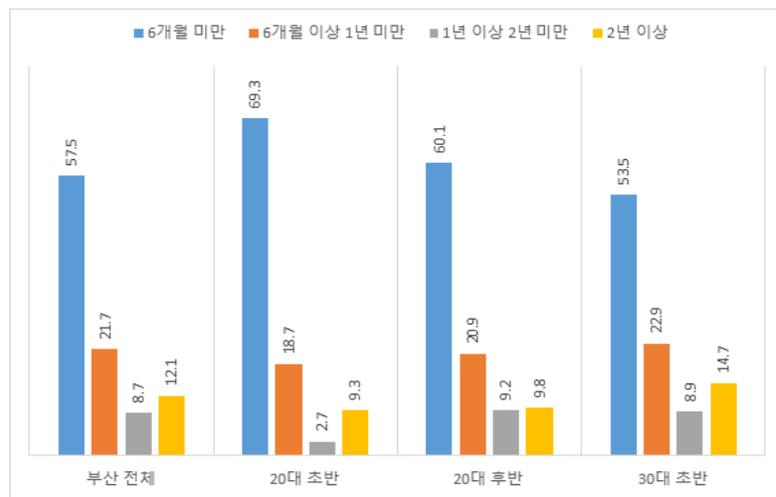
② 구직활동 기간

□ 연령이 올라갈수록 구직활동이 길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남.

- 부산 청년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과 20대 중반(6개월 미만 각각 69.3% 및 60.1%)은 상대적으로 구직 활동기간은 짧은 반면, 30대 초반(6개월 미만 53.5%)은 구직활동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됨.
- 30대 초반의 경우 구직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14.7%에 달함.

□ 따라서 부산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연령별 정보제공 및 직업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 중에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의 구직활동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대안도 필요함.

<그림 3-42> 구직 활동기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③ 본인의 업무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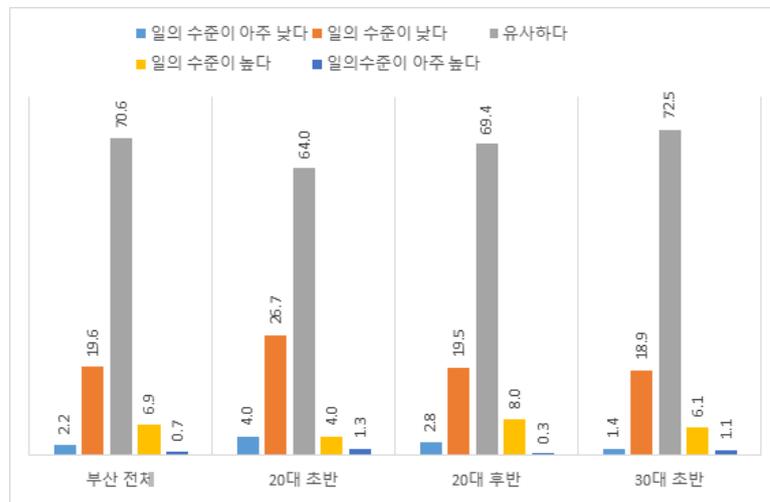
□ 부산 청년은 일의 수준이 학력 대비 본인의 능력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연령별로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음.

- 부산 청년들은 본인 학력 대비 ‘일의 수준이 일치한다’는 비중이 70.6%로 가장 높고, 낮다는 비중은 21.8%, 그리고 높다는 비중은 7.6%였음.¹⁴⁾
-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초반(30.7%)이 20대 후반(22.3%)과 30대 초반(20.3%)에 비해 자신의 학력에 비해 ‘일의 수준이 낮다(매우 낮다 포함)’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연령대별 차이는 앞선 실태 조사와 FGI 내용에서 일부 동일한 측면이 확인되며,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대 초반의 학력 대비 업무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20대 초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정규직 비율이 낮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FGI에서도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대학과 연계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임.

<그림 3-43> 학력 대비 업무 수준에 대한 인식(%)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④ 직업교육 경험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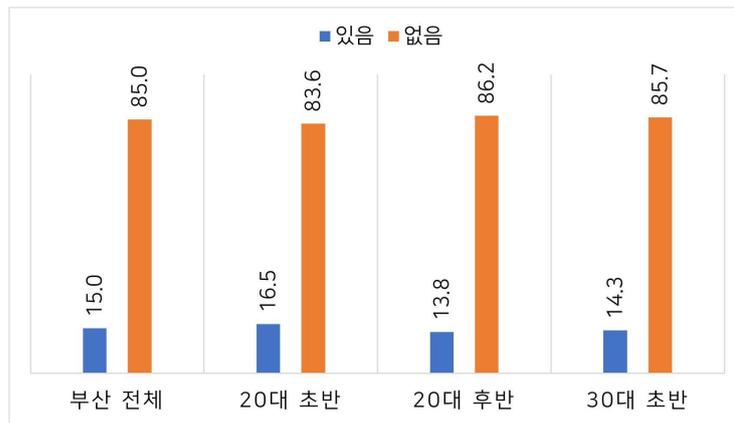
- 부산 청년은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직업교육을 받은 부산 청년은 전체의 15.0%에 불과함.
 - 부산 청년의 연령대별로도 20대 초반(16.5%), 20대 후반(13.8%), 30대 초반

14) 전국 조사(<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일치한다” 비중이 74.1%로 나타남. 전국 조사의 설문문항은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직무 수준과 일치하는가”임.

(14.3%) 모두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과 유사함.

- FGI에서 언급되었듯이, 부산 청년들은 대학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참여 경험도 많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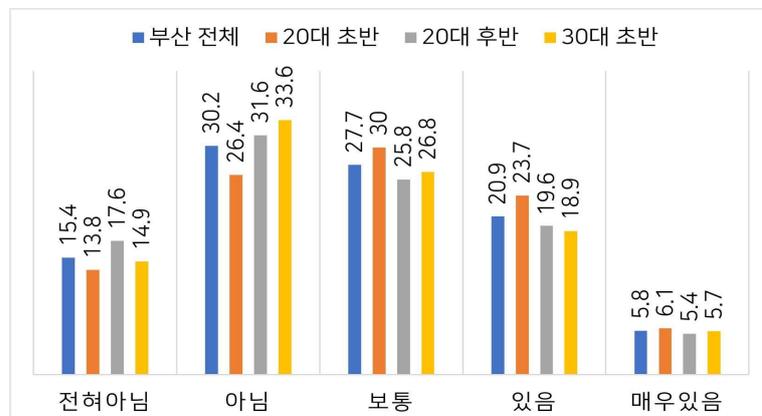
<그림 3-44> 직업교육 이수 경험(%)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은 향후에도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부산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는 26.7%(있음 20.9%, 매우 있음 5.8%)로 나타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을 의사가 45.6%(전혀 아님 15.4%, 아님 30.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있음 23.7%, 매우 있음 6.1%)이 20대 후반(있음 19.6%, 매우 있음 5.4%) 및 30대 초반(있음 18.9%, 매우 있음 5.7%)보다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5> 직업교육 이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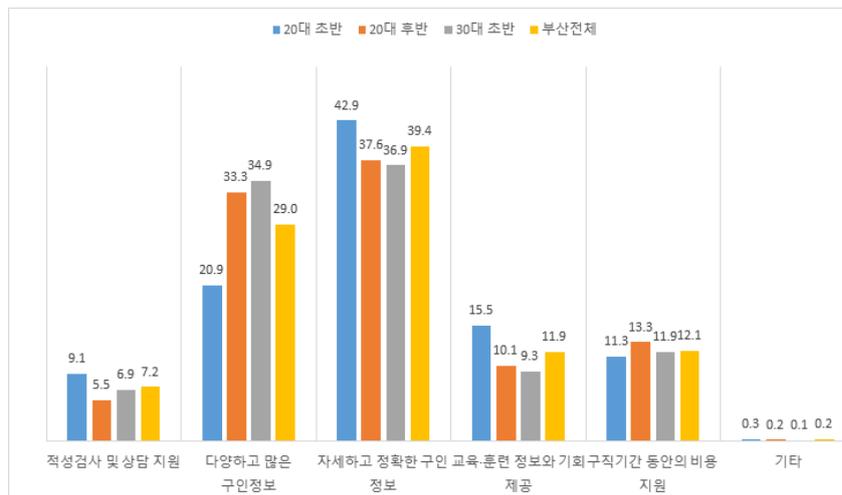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은 구직활동 과정에서 구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았음.

- 구직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3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29.0%)로 나타남. 그리고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은 12.1%, 교육·훈련정보와 기회의 제공은 11.9%,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은 7.2%로 나타남.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초반(42.9%)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20대 후반(33.3%)과 30대 초반(34.9%)은 다양하고 많은 구인정보를 요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상대적으로 20대 초반(15.5%)은 20대 후반(10.1%)과 30대 초반(9.3%)에 비해서 교육·훈련정보와 기회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GI에서도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보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림 3-46> 구직활동 필요사항(%)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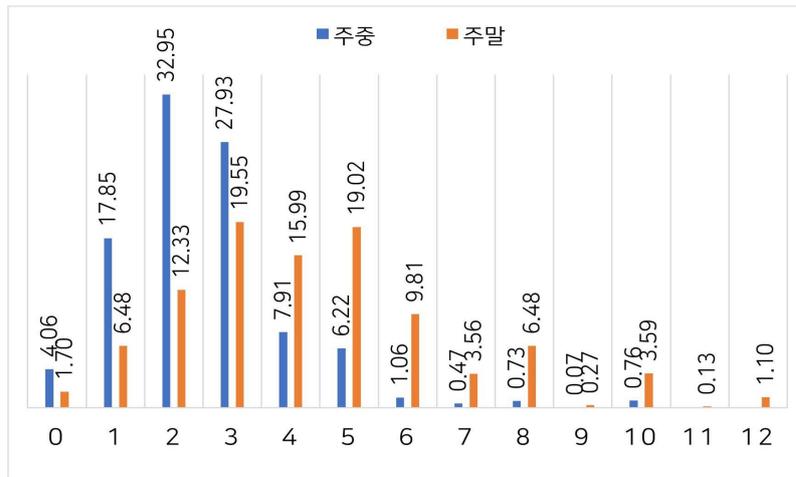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산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며, 취업 관련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상기시킴.
- 따라서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전달하는 동시에,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4) 문화

① 여가활동 시간

- 부산 청년이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주중은 하루 평균 약 2.5시간, 주말에는 하루 평균 약 4.4시간으로 나타났다.
- 대다수의 부산 청년은 주중에는 1~5시간, 주말에는 1~8시간 사이의 시간을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주중에는 2시간(32.95%)을 여가에 투입하는 부산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말에는 3시간(19.55%)을 여가에 활용하는 청년의 비율이 가장 많았음.

<그림 3-47> 평균 여가활동 시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가로축: 시간(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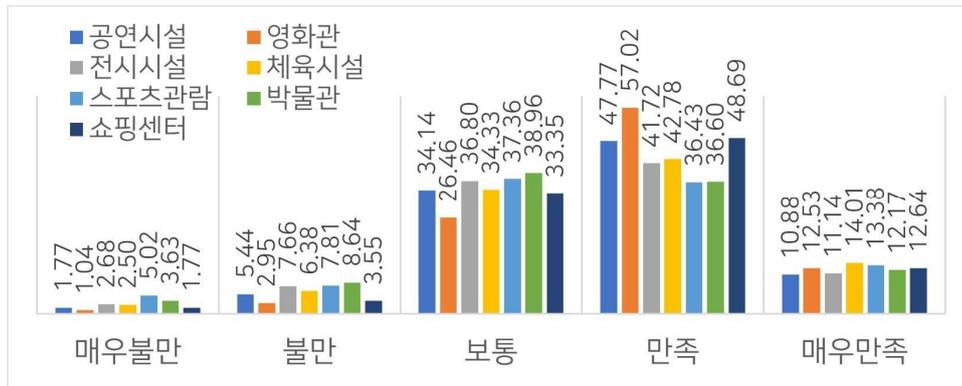
- 부산의 지역별, 젠더별, 연령별, 구직경험별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도 이러한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학업 및 직장 생활을 하는 주중보다 휴일인 주말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② 문화시설 만족도

- 부산 청년은 부산의 문화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 시설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만족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영화관이 약 70%로 가장 높고, 쇼핑센터는 약 60%, 나머지 공연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스포츠관람, 박물관도 모두 50% 이상임.
- 영화관, 공연시설, 체육시설, 쇼핑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반면에 상대적으로 스포츠관람이나 박물관, 전시시설,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청년의 만족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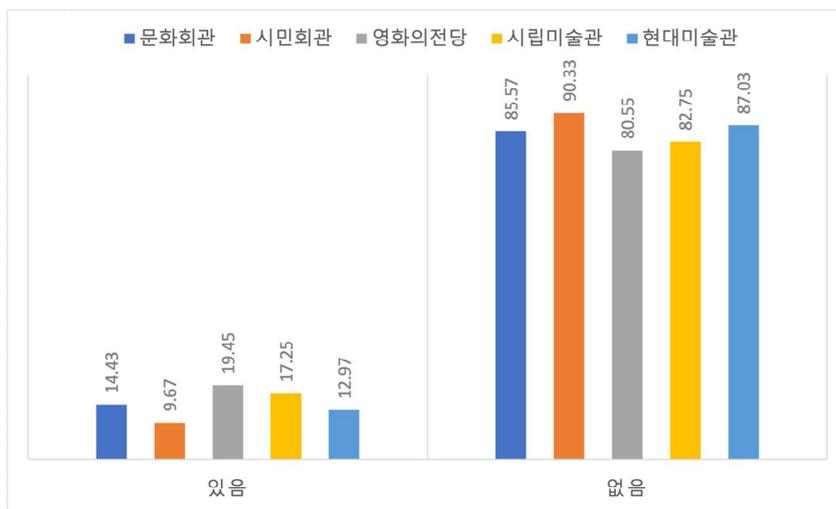
<그림 3-48>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 중에서 부산의 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비중이 모두 80%가 넘음.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 응답자 중 약 90%는 시민회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으며, 문화시설이나 현대미술관은 약 85% 내외의 청년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이 방문한 시설은 영화의 전당으로 부산 청년의 약 20% 정도가 해당 문화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49> 부산 문화시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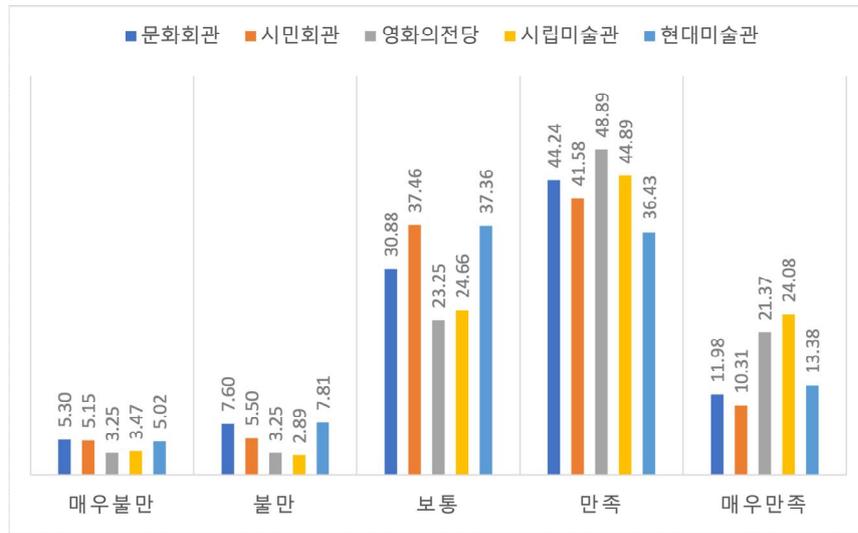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의 문화시설을 이용해 본 청년 중 해당 문화시설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영화의 전당(74.2%)이 가장 높고 현대미술관(49.8%)이 상대적으로 낮음.

- 영화의전당의 경우 청년의 21.37%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8.89%의 청년도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현대미술관은 매우 만족이 13.38%, 만족이 36.43%로 약 절반의 청년만이 현대미술관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대미술관의 경우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또한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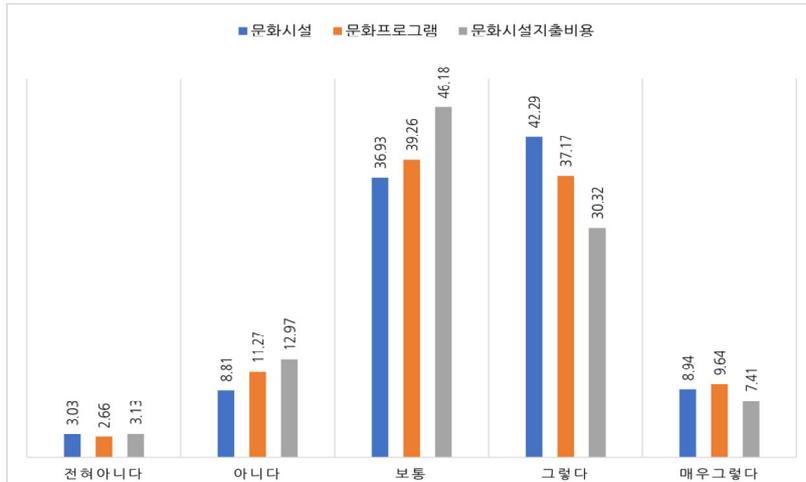
<그림 3-50> 부산 문화시설 만족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은 부산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냐는 질문에 대해 약 50%의 청년이 만족한다(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응답 비중)고 답하였지만,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시설지출비용과 관련된 환경적 차원에 대해서는 50% 미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문화 및 여가 환경에 대한 청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문화시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또는 ‘전혀아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문화시설의 경우 11.8%, 문화프로그램 13.9%, 문화시설지출비용 16%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시설지출비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37.7%)은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동일 질문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청년이 문화시설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그림 3-51>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또한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문화시설보다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문화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을 위한 적절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5) 참여·권리 분야

① 각종 정책 프로그램 및 시설 만족도

□ 부산청년센터 만족도

○ 부산청년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부산청년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를 참조하였음. 이 조사는 2021년 11~12월에 진행되었으며 센터 공간 이용자 302명(전체 1,634명 중 18.5%)이 응답함.

<그림 3-52> 청년센터 분야별 이용 만족도(%)



*출처: <부산청년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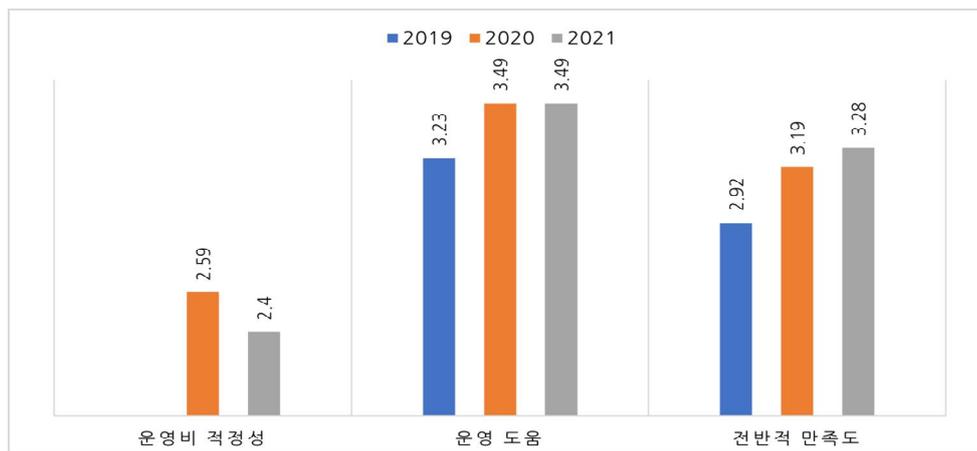
- 만족도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센터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평균 86.3점)를 보인 반면, 자갈치해안의 위치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평균 59.7점)를 보임. 향후 청년센터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원도심 지역의 현 센터뿐만 아니라 서면 지역이나 동래 지역에도 개소한다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둘째, 청년센터에서 진행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평균 74.8점)는 다소 높았던 반면, 계속 제시되는 것과 같이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평균 64.7점)를 보임. 향후 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 홍보나 주 이용자 특성에 주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만족도

○ 부산의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산청년모임 용기종기(2019년; 2020년; 2021년)’, ‘용기종기+(2021년)’, ‘청년주민반상회 마을살롱(2020년)’ 등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종합한 결과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확인됨.

- 첫째, 해당 커뮤니티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한 “커뮤니티 운영비가 적정한 수준이었던지”에 대한 평가는 2020년 평균(5점 척도 문항, 0~4점 부여) 2.59점에서 2021년 평균 2.40점으로 다소 하락함.

<그림 3-53> 커뮤니티 활동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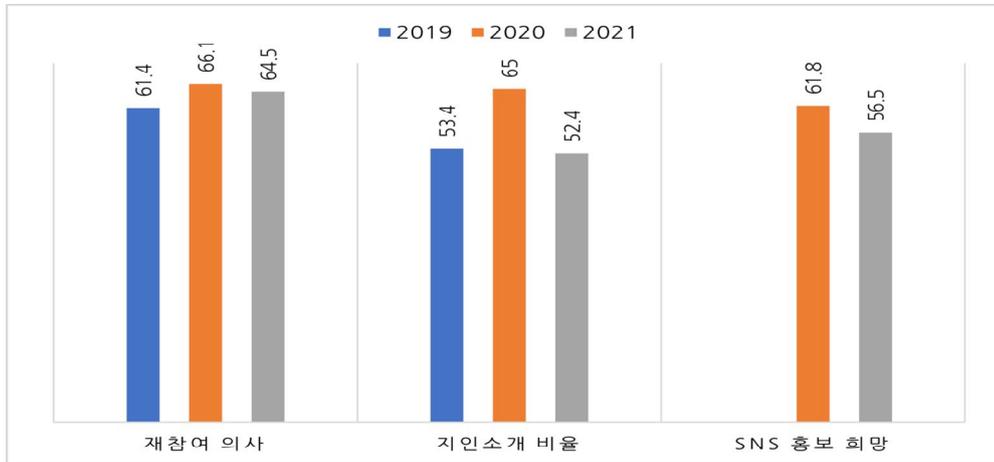
*출처: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2019-2021)를 재구성함.

**5점 척도

- 둘째,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2019년 평균 3.23점, 2020년 평균 3.49점, 2021년 평균 3.49점 등, 긍정적인 평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됨.
- 셋째,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2019년 평균 2.92점,

2020년 평균 3.19점, 2021년 평균 3.28점 등으로, 만족도가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됨.

<그림 3-54> 커뮤니티 활동지원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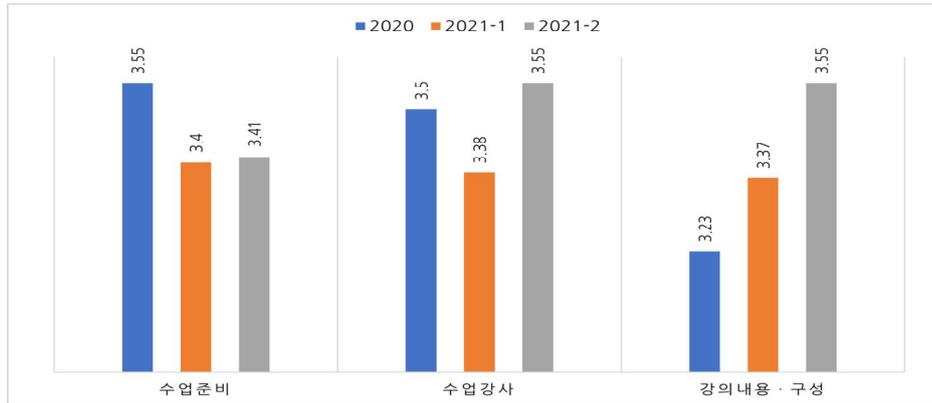
*출처: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2019-2021)를 재구성함.

- 넷째, 다음 해 해당 프로그램에 “재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2019년 61.4%, 2020년 66.1%, 2021년 64.5% 등의 찬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재참여 의사는 2020년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1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로 지인의 소개”로 응답한 비율은 2019년 53.4%, 2020년 65.0%로 10% 이상 증가하였다가 2021년 52.4%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섯째, 해당 프로그램의 인지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SNS 채널”을 선택한 비율은 2020년 61.8%에서 2021년 56.5%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인 소개의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부산청년학교 만족도

- 부산청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2020년 10개 학과(구해취홈즈학과, 독립출판물 만들어볼과, 마음목욕하러갈과, 브이로그 찍고 세계여행학과, 스타트업 같이할과, 실전금융학과, 앱·홈페이지 개발학과, 이벤트연출 배워볼과, 즐거운 多多多시간, 책읽어드립니다! 북큐레이팅학과) 161명, 2021년 1학기 6개 학과(가치창업시작학과, 나만의 가죽공방 차려볼과, 나를 연기해볼과, 사진기록할과, 콘텐츠 마케터로 취업해볼과, 디지털 성폭력 청년들이 없애볼과) 95명, 2021년 2학기 6개 학과(나는 넷플릭스로 영어공부한다학과, 도시탐구해볼과, 브이로그로 인생여행학과, 실천 금융학과, 사진찍고 전시해볼과, 책읽어드립니다. 북큐레이팅학과) 82명 등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징이 확인됨.

<그림 3-55> 청년학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출처: <부산청년학교 학과생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2020-2021)를 재구성함.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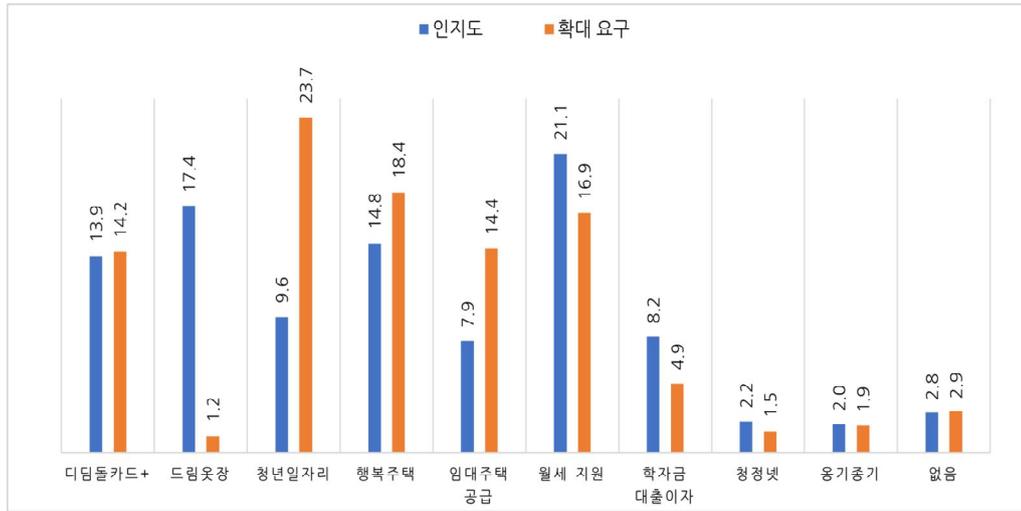
- 청년학교의 “수업 준비(자료 준비, 출결 체크, 사전 연락)”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평균(5점 척도 문항, 0~4점 부여) 3.55점, 2021년 1학기 평균 3.40점, 2021년 2학기 평균 3.41점으로,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감소함.
- “수업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평균 3.50점, 2021년 1학기 평균 3.38점, 2021년 2학기 평균 3.55점 등으로, 2021년 1학기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학기에 증가추세로 돌아섬.
- “강의의 내용 및 구성(강의 내용, 수업 회차)”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평균 3.23점, 2021년 1학기 평균 3.37점, 2021년 2학기 평균 3.55점 등으로, 2021년부터 증가유지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됨.

② 부산 청년의 참여·권리 분야 정책적 수요 및 정보 획득 경로

□ 1기 청년정책 인지도 및 참여도

- 2021년 5월, 청년행복박스 신청자(16,15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청년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재정 지원, 일자리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비해 권리 및 참여 분야의 정책 인지도와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청년 월세 지원(21.1%)’ > ‘드림 옷장(17.4%)’ > ‘부산형 행복주택(14.8%)’ > ‘디딤돌카드+(13.9%)’ 등,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타 분야의 정책에 비해 권리·참여 분야의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2.2%)’, ‘용기종기&용기종기+(2.0%)’ 등은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 정책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요함.

<그림 3-56> 분야별 주요 청년정책 인지도 및 수요(%)



*출처: <2021 부산 청년정책 수요조사>

- 정책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3.7%)’ > ‘부산형 행복주택(18.4%)’ > ‘청년 월세 지원(16.9%)’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14.4%)’ > ‘디딤돌카드+(14.2%)’ 등에 비해, ‘용기종기&용기종기+(1.9%)’ >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1.5%)’ 등의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은 매우 낮은 확대 요구를 보여,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설치 및 상설 운영을 통한 내실화를 이루어 향후 발족할 ‘부산청년의회’의 기반을 구축할 장기 계획을 세웠던 만큼, 향후 적극적 홍보와 제도화 방안 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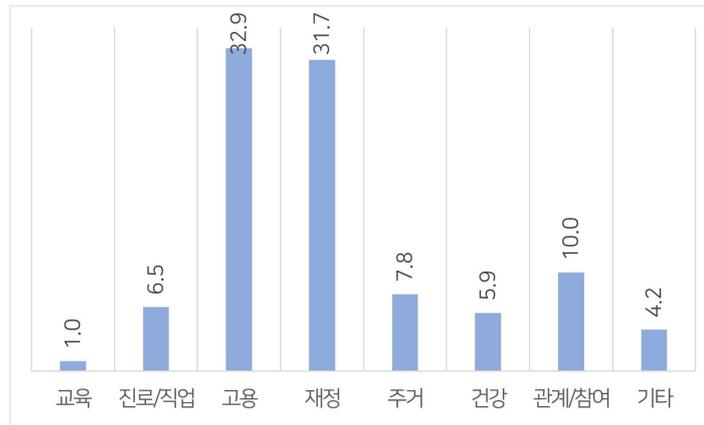
○ 부산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FGI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정책 인지도와 관련해, 정책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30대 초반 청년M; 청년N; 청년O; 청년P 등)이 많이 나왔음. 또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20대 후반 청년G)과 누리집 등, 부산청년 플랫폼(청년G대)에 게시되는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 완료(시행 예정)’, ‘시행 중(모집 중)’ 등과 같이 구분하여 게시하는 의견(30대 초반 청년P)도 제시됨.

□ 참여·권리 분야 정책 수요 비교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최대 3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부산 청년들은 고용(2456, 32.9%) > 재정지원(2360, 31.7%) > 사회관계 및 참여(742, 10.0%) > 주거(581, 7.8%) > 진로/직업 훈련(483, 6.5%) > 건강(442, 5.9%) > 기타(인구정책, 가족정책 등; 314, 4.2%) > 교육(76, 1.0%) 등의 순으로 정책 수요 분야를 선택함.¹⁵⁾

15) 사회관계 및 참여 분야에 대한 부산 청년의 정책적 수요는 세 번째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전국조사 결과의 순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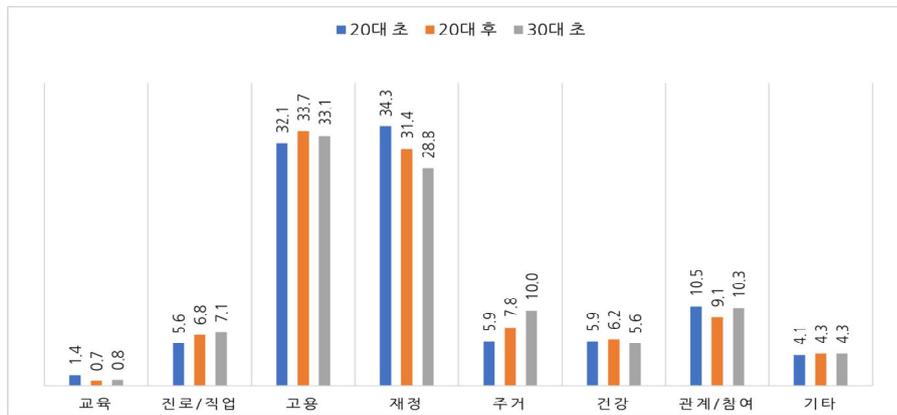
<그림 3-57>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부산 청년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근로경험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는 정책 분야 우선순위에 차이가 없는 반면, 연령집단에서 20대 초반, 결혼 경험 및 의향 구분에서는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미혼, 대학 재학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 고용 분야보다 재정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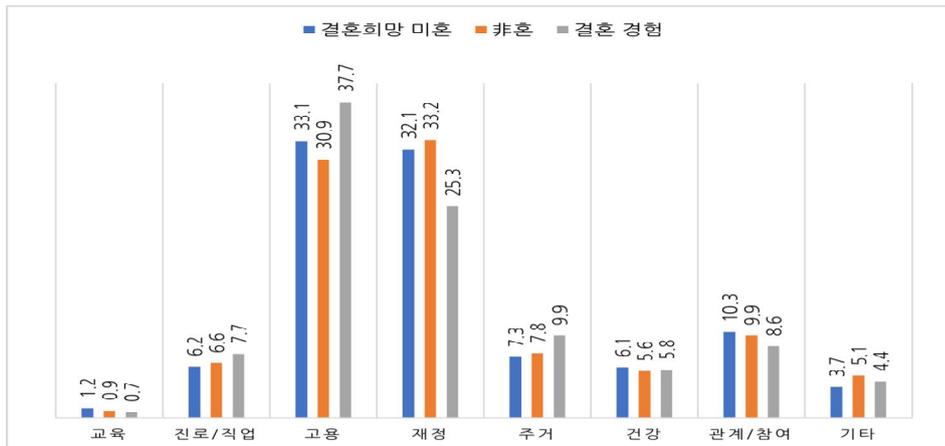
<그림 3-58> 연령 집단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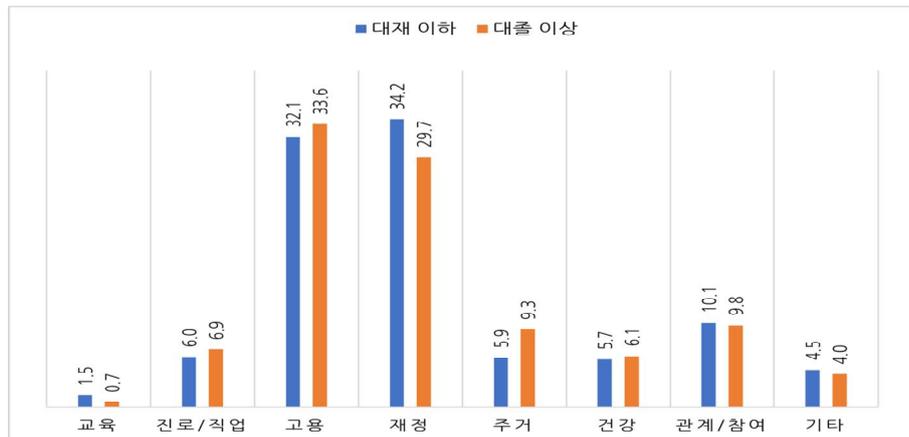
고용(21.1%) > 주거(18.9%) > 기타(11.3%) > 진로/직업 훈련(10.8%) > 건강(9.1%) > 관계/참여(8.5%) > 교육(7.2%) 등으로 확인되어, 전국조사에서는 사회관계 및 참여 분야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59> 결혼 의향집단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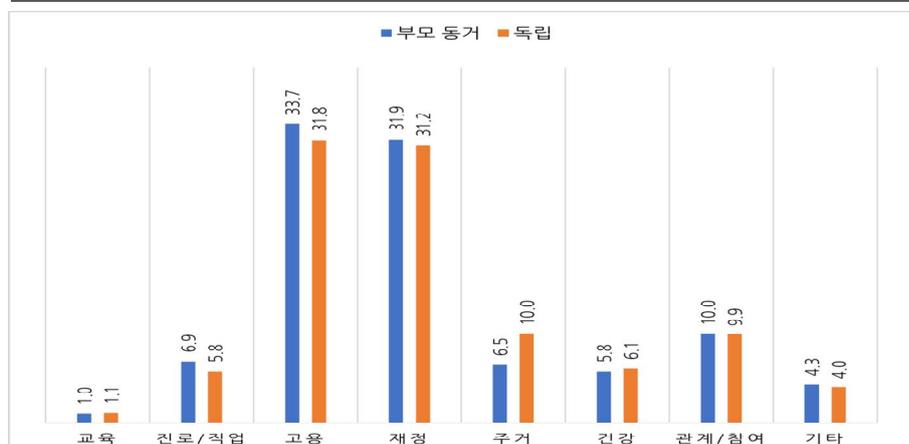
<그림 3-60> 교육수준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반면, 결혼 경험이 있는 집단과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사회관계 및 참여 분야보다 주거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정책 수요를 나타냄.

<그림 3-61> 부모독립 여부별 청년정책 분야별 수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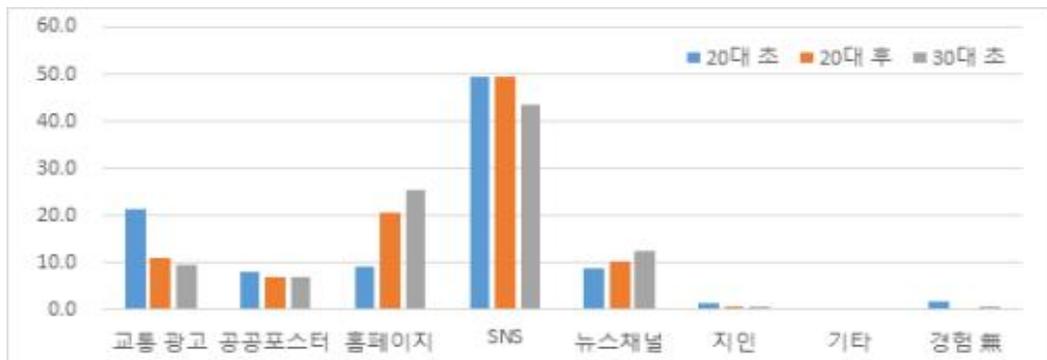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에 대한 수요는 연령이 낮거나, 미혼이거나, 대학에 재학 등,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확인됨. 향후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에 대한 홍보는 20대 초반, 대학생 등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주요 생활반경에 해당하는 대학가, 문화공간 등과 접근성 높은 SNS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청년정책 정보 획득 경로

- 청년정책과 그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로에 대해서는 SNS 활동(친구, 동료 등)(47.6%) > 부산시 홈페이지(청년정책 관련)(17.7%) > 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14.5%) > 신문, 인터넷 기사 등(10.5%) >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홍보 포스터(7.5%) > 정보 획득 경험 없음(1.0%) > 가족, 친구, 지인(0.9%) > 기타(0.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의 기타(2.2%)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 획득 경험 없음’과 ‘가족, 친구 등 지인’, ‘기타’를 구분함.

<그림 3-62> 연령집단별 청년정책 정보 획득 경로 비율(%)



*출처: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청년정책 획득 경로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에서는 구별되는 차이가 확인됨.
- SNS는 청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채널이지만, 30대보다는 20대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
- 버스,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대중교통 수단에 게시하는 홍보물은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0대 초반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
-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홈페이지나 신문, 인터넷 기사 등의 보다 전통적 채널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4) 소결

□ 일자리 분야

- 부산 청년의 주요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 및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의향의 경우 취업하지 않으려는 의사보다 약 두 배정도 높았음.
 - 특히 부산 청년의 약 70%가 종사자수 99명 미만의 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혹은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의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와 함께 워라벨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근로환경의 개선과 유연한 근로조건을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함.
 - 부산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많이 다니면서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직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높았고, 일자리 선택 시 높은 급여, 고용 안정성,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 일자리 가진 청년들의 약 70%가 99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의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직을 막고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 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FGI에서 확인되었듯이, 워라벨의 요구는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을 시사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함.
 - 부산 청년은 대다수 정규직 임금노동자, 회사원(20대 초반은 대학생),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낮았던 점, 20대 후반의 경우 취업 및 창업 준비 및 30대 초반의 사업체(자영업)운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은 고등학교 및 대학과 연계된 취·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 FGI에서도 20초중반은 대학과 연계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30대 초중반은 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주거 분야

- 부산 청년은 주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음.
- 부산 청년 중 자가를 보유한 청년인 경우 그 절반 이상이 주택보유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비율은 전국보다 약 16%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 부산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청년이 주거비용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약

36% 있음. 이는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부모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대출로 자가를 보유한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부산 청년은 집을 사회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보다는 친목과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부산 청년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지만, 성별에 따라 주거안전에 대한 우려나 취약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 분야

- 부산의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한 교육사업을 적극 발굴 및 시행해야 함.
 - 부산의 청년은 절대 다수가 부산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FGI에서도 부산지역의 거주 의사가 높았음.
 - 지역의 대학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와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부산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과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령대별 수요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이 현실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확립해야 함.
 - 부산 청년들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발견됨.
 - 또한 본인 학력 대비 업무수준이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대 초반은 본인의 학력 대비 업무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음.
 - 20대 초반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다양하고 많은 구인정보를 요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연령대별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이루어져 할 것임.
-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부산은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년들은 직업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고, 향후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도 상당히 적었음.
 - FGI에서도 청년은 일자리 정보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정확한 혹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었음.
 - 이러한 현상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의 취업사업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음.
 - 따라서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문화·복지 분야

- 부산 청년은 부산 문화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나 시민회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 이용도는 매우 낮음.

- 문화 프로그램, 문화시설지출비용 등 환경적 차원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 특히 문화시설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청년들이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임.
-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문화시설에 비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문화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적절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참여·권리 분야

- 부산 청년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참여 및 권리 분야 청년정책의 핵심 분야로 이해될 수 있음. 제1기 정책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특히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참여의 기반으로 삼아 향후 청년의회로의 발전을 기대하였음. 반면, 2021년 수요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커뮤니티 지원, 청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시설이 다양하게 추진,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적 결과물이 대중성을 확보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음.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사회관계 및 참여를 위한 정책의 수요는 3순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존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은 부산 청년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고보다는 기존의 (제도권 내 또는 제도화되어 있던) 청년 조직을 중심으로 점진적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와 권리 분야에 해당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대중의 인지도 제고와 참여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주거, 복지 및 문화 등, 여타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참여 이벤트, 또는 청년축제 주간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의 다변화도 필요함.

2.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해 본 부산 청년

1) FGI 시행 목적

□ FGI 연구의 특성

- 소수의 연구 참가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에 해당함.
 - 특정 현상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함.
 -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다각화(triangulation)의 방안으로 활용 가능함.
 -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임.
 - 원하는 방향의 발언을 통해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음.
- 논의주제가 구체적이고 압축적이어야 하고 숙달된 진행자가 필요하며 참가자 그룹은 논의 주제에 맞게 계획적으로 선택되어야 함. 공개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 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FGI 시행

- 부산 청년 FGI는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행 정책과 사업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문을 구성함.
 - 청년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양적 자료의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 데이터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함.
 - 현 시행 정책에 대한 비판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계점을 밝히고, 수정되거나 보완될길 원하며 새로이 시행되기를 원하는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함.
- 청년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산 청년을 분야별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구분함.
 - 분야별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 5~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됨.
 -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 및 응답에 대한 개인별 집단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함.

2) FGI 설계 및 절차

- 청년 실태조사 1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와 특성이 드러남.

○ 연령대의 특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집단을 구분

- 가. 20대 초중반 (2004년생~1998년생)
- 나. 20대 후반 (1997년생~1995년생)
- 다. 30대 초중반 (1994년생~1989년생)
- 라. 30대 후반 (1988년생~1984년생)

○ 30대 후반 집단(‘라’ 그룹)의 경우 현 정책상으로는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아니나 추후 청년 연령대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될 전망을 고려하여 FGI 대상 집단으로 선정함.

□ 각 해당 집단별 10명 이하(6명~10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여 FGI 시행 계획

○ 2023년 6월, 20대 후반(‘나’ 그룹), 30대 초중반(‘다’ 그룹) FGI 실시

○ 2023년 7월, 20대 초중반(‘가’ 그룹), 30대 후반(‘라’ 그룹) FGI 실시

-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혹은 성인으로 조사 참가자의 변인을 통제함.
- 성별, 학력, 직업, 결혼 여부, 부산 주거 형태 및 일자리 희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의 조건이 최대한 중첩되지 않도록 집단을 구성함.

<표 3-1> FGI 집단구성 참가자 조건 내용

구분	조건 내용
연령대	20대 초중반 / 20대 후반 / 30대 초중반 / 30대 후반
성별	남성 / 여성
결혼 여부	미혼 / 기혼
학력	고졸 / 대재 / 대졸 / 대학원졸
주거 형태	부모 동거 / 1인 가구 / 가족(배우자, 자녀) 동거
취업 형태	부산 취업희망 / 타 지역 취업희망
희망 사항	부산으로 이직희망 / 타 지역 이직희망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 FGI 절차 및 방법

○ FGI에 사용된 질문은 청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질문과 해석이 필요한 사항, 비판과 의견이 더해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함.

○ 그룹인터뷰 실시 전 구성된 질문지를 참가자들에게 우선 제공하여 공개함.

- 참가자들이 질문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룹인터뷰 시행 전 참가자들과 소통함.
-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녹화하고 녹취록을 작성함.

○ 자료 해석 중 명확하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참가자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을 거침.

<표 3-2> FGI 조사 항목 및 질문 내용 구성

질문 영역	대표 질문 내용
일자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의 경우) 대학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현재 취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나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 중인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부산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에서 취직을 원하거나 현 직업(종)을 유지하길 희망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타 지역으로 취직을 원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산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루 몇 시간의 근로를 하고,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는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청년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 차별화할 수 있는 부산만의 청년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만족도 및 주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 거주하면서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이미지나 인식은 어떻습니까? - 부산에 거주하면서 아쉽다고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부산 '건강 인프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충당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등 광역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을 이용하셨습니까? -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설계 결혼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혼했거나 결혼을 희망하신다면 부산으로부터 원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산의 정책이나 제도가 있습니까?
문화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 부산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무엇이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문화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산에 꼭 있었으면 하는 문화시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청년정책 중에 혜택을 받은 정책이 있습니까? - 부산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무엇입니까? - 부산 청년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부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의 생활기반이 부산이길 희망하신다면 부산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3) FGI 결과 해석¹⁶⁾

(1) 연령 집단별 분석

① ‘20대 초중반 청년’이 보는 부산: 큰 기대를 품은 도시

□ ‘가’ 그룹, 20대 초중반(2004년생~1998년생)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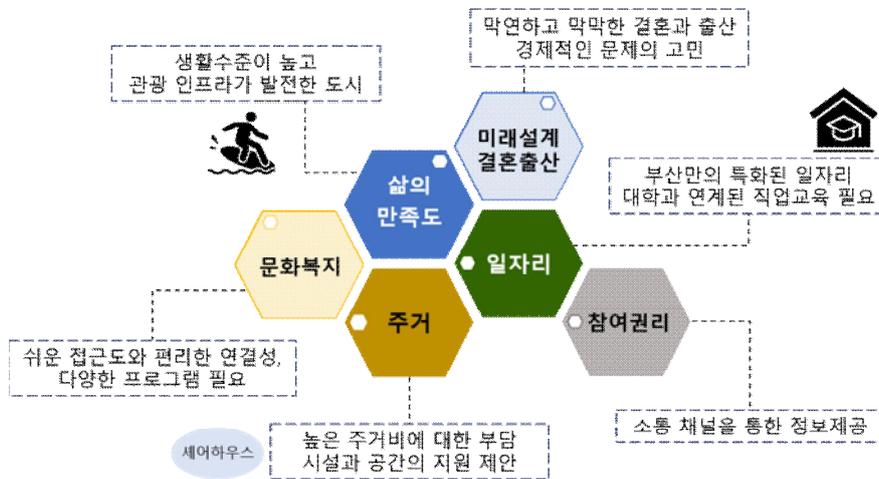
○ 일정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1시간 40분(20:00~21:40)

○ 참가자들은 20대 초중반(20세~26세) 연령대의 청년들로 현재 부산에서 부모 동거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에서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표 3-3> FGI ‘가’ 그룹 참가자 정보

집단 구분	참가자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취업상태 구분
가. 20대 초중반 부산 거주 청년	청년 A	여	대재	부모 동거	부산 취업희망
	청년 B	여	대재	부모 동거	부산 취업희망
	청년 C	여	대재	부모 동거	부산 취업희망
	청년 D	여	고졸	부모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그림 3-63> 20대 초중반 청년 FGI 결과 요약



□ [부산 인식_삶의 만족도] 부산은 관광 명소로 이름난 도시

- 부산은 해양관광이 잘 발달한 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은 도시로 인식함.
- 해양 도시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 발전을 기대하며 접근이 용이한 교통편의 확대를 원함.
- 문화예술 시설에 접근도가 아쉽고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낌. 더 다양한 예술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이길 희망함.
-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률이 높아 타 지역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도시라고 느낌.

16) 인터뷰 발언의 일부를 발췌해 삽입함.

- 청년 A : “부산하면 바다가 떠오르고 관광지가 잘 발달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대학교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부산은 살기 좋고 여유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 청년 B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여러 해수욕장까지 교통이 다른 관광 명소에 비해 좀 아쉬운 것 같고”
- 청년 C : “부산의 장점은 감각적인 요소였던 것 같고 단점은 예술 문화적인 요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 청년 D : “부산의 장점은 일단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일자리였던 것 같아요. (...) 부산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충분히 부산으로 이주하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 [일자리 · 교육] 부산만의 특화된 일자리와 직업 교육 필요

- 부산은 워라밸이 가능한, 교통과 문화가 잘 갖추어진 도시로 취업은 물론 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함.
- 일자리 부족도 체감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움을 호소함.
- 학교와 연계된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희망하며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밝힘.
- 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양 특수학과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관광 레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부산만의 특화된 일자리가 많아지길 희망함.

- 청년 A : “부산은 주거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어서 당연히 부산에서 취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 영화제에 항상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광고 같은 건 봤는데 관련된 일자리는 들어보지 못해서 살짝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총괄하는 그런 인력을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부산에 대학교에 해양 관련 특수학과가 있기도 한 만큼 해양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 B :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 방학하고 부산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잠깐 구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여러 군데 넣었는데도 대기가 많고 얻기 힘들었고 (...) 대학생 때부터 기업과 대학이 연결돼서 많은 일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산만의 청년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게 관광 도시라는 건데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숙박이나 레저 요식업 등이 발달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청년 C : “학교랑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화여대가 디올과 협업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 대학에서 직업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고 부산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어요. 참가할 마음도 있고 그렇게 직업영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 청년 D : “사실 워라밸도 잘 지켜지고 그래서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생각이요 (...) 지금 기장이나 강서구 같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장에서는 사실 지금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은 놀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장 같은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거] 부산 살기 계획에 가장 큰 걸림들은 높은 주거비

-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건 높은 주거비 때문이며 주거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의향도 있음.
- 주거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접근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많아지길 바람.
-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세어하우스와 같은 숙소사 못지않은 시설과 공간의 지원과 혜택을 제안함.

- 청년 A : “주거정책에 관해서는 학교에서나 그런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본 적은 없고 제가 찾아봐서 월세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서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청년 B : “좋은 정책이 많았는데 찾아보기 전까지는 거의 알지 못해서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 실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 C :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대학가 근처에 세어하우스 같은 시설을 지원해 지어준다면 숙소사 못지않은 혜택이 될 거 같아요.”
- 청년 D : “독립을 하고는 싶은데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독립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주거비가 훨씬 경제적이라면 이사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 [미래설계_결혼과 출산] 아직은 막연하고 막막한 결혼과 출산

-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마련,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함.
- 현실적인 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원함.
- 경력단절, 육아휴직, 돌봄시설과 관련한 해결방안 없이는 출산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 청년 A :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산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찾아봤는데 주택 용자 및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 청년 B :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문제라고 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양육비 부담이 제일 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거비나 양육비나 그리고 교육비 지원 같은 게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청년 C :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이 망설여지는 건 경력단절이

가장 크고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예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정책들이 있다면 덜 꺼릴 거 같은데 특히 아이를 마음 놓고 케어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정책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청년 D : “결혼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신혼부부 대출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정말 주춤 해서 당침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늘고 접근도가 높아진다면 부산은 손색없을 곳

- 문화시설은 대체로 만족하지만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콘서트장이 마련되길 원함.
- 다양한 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원하며 체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함.
- 자차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부산 문화시설은 서울 못지않다고 생각함.

• 청년 A :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가수들이 내한 공연을 할 때도 주로 서울만 찾게 되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콘서트장이 마련되면 부산을 찾는 국내든 해외든 아티스트가 많아질 거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청년 B : “박물관을 가장 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 미술 전시회 경우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부산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청년 C : “편하게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는 연결성이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미술관 같은 곳을 한 번쯤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주면 그 뒤로는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청년 D : “차량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철도나 대중교통 이용해서는 가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협소하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소소하게 일상에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를 원하고 그거야말로 워라벨 실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참여권리] 홍보와 소통의 채널이 필요

- 청년들에게 익숙한 채널들을 활용한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다양한 직업 교육이 가능한 교육 관련 정책을 원하며 소통이 가능한 채널의 활성화를 원함.
- 건강에 관한 정책이 확대되길 원하며 취업 지원금과 관련한 혜택에 관심 있음.

• 청년 A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정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프로모션을 해서 검색을 안 해도 지나가다 볼 수 있게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새 많이 본 유튜브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지에 올라오는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정보를 배포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법 같습니다.”

- 청년 B : “입학 지원금을 부산에서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청년들이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코딩이나 외국어나 그런 교육 관련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타 지역의 경우 유튜브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매우 활성화해서 축제나 정책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부산도 청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생각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C : “부산에서 가다실을 건강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부산에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 청년 D : “취업한 동생은 지원금을 100만 원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혜택들도 사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정책은 모르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지금 사회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SNS죠.”

② ‘20대 후반 청년’이 보는 부산: 높은 문화 인프라의 강점과 일자리 부족의 약점을 동시에 가진 도시

□ ‘나’ 그룹, 20대 후반(1997년생~1995년생)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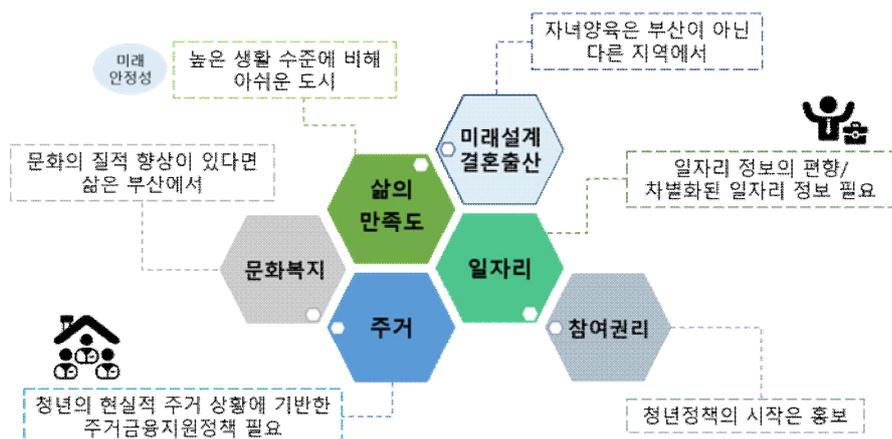
○ 일정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1시간 45분(20:00~21:45)

○ 참가자들은 20대 후반(27세~29세) 연령대의 청년들로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 소재 대학을 졸업한 공통점이 있음.

<표 3-4> FGI ‘나’ 그룹 참가자 정보

집단 구분	참가자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취업상태 구분
나. 20대 후반 부산 거주 청년	청년 G	여	대졸	부모 동거	부산 취업희망
	청년 H	여	대졸	부모 동거	부산으로 이직희망
	청년 I	여	대졸	부모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J	남	대졸	1인 가구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K	남	대학원졸	부모 동거	부산 취업희망
	청년 L	남	대졸	1인 가구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그림 3-64> 20대 후반 청년 FGI 결과 요약



□ [부산 인식_삶의 만족도] 높은 생활 수준에 비해 아쉬운 도시

- 부산은 ‘여행 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여가를 보내기 적합한 곳, 근린시설도 대체로 좋은 곳, 다양한 문화시설과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만족도가 높고 좋은 이미지의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
-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수준 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만 ‘건강’,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의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짐.
- 도시 규모와 인구에 비해 건강 인프라에 해당하는 큰 병원이 없고 병원 접근도가 어려우며 소규모 근린공원의 조성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함.
- 시간적인 여유의 측면에서도 근린공원 조성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청년 G : “부산에 살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여행 오고 싶은 도시로 부산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청년 I : “부산이 여행과 일상을 지내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 청년 L :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것도 하나의 부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청년 G : “부산은 공원은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 큰 수술할 일이 있으면 서울로 가고 심지어 부산대학병원도 양산에 있잖아요. 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요.”
- 청년 H : “시민공원이나 규모가 큰 공원은 있지만, 사상구나 사하구 쪽에 소규모의 공원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거든요. (...) 개인적으로 큰 검사를 받고 싶으면 서울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동생이 간호사인데 부산이랑 수도권이랑 급여 차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 [일자리] 부산만의 차별화된 일자리로 삶을 부산에서.

- ‘나’ 그룹 참가자 중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한 참가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산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부산에서 현재 직업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며 부산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음.
- 부산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참가자들의 경우, 경력직을 우선 선발하는 회사가 많았던 점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함.
- 일자리 정보나 지원을 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직종이 꽤 편향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취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나 정보의 취업 프로그램으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장기적인 혜택이 가능한 제도가 있지 않은 한 부산에서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힘.
- 부산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직종’을 제안함.

- 청년 I : “전공을 살린 일을 하고 싶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계속 경력직을 원하더라고요.”
- 청년 H : “부산은 일자리가 아쉬워요.”
- 청년 K : “취업 정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이나 회사취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범위에서는 제가 찾는 일자리는 없어요.”

- 청년 G : “부산 청년 취업 정책의 문제점은 공기업이랑 공무원 쪽에 너무 집중되어있다는 거예요. (...) 청년 유출이 심한 편이고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청년 G : “부산국제영화제 일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국제영화제가 매우 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를 단기간으로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 [주거] 주거금융지원정책의 시작은 청년의 현실적 주거상황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과 같은 광역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며 금융 혜택 대상 조건이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 명의 1인 가구 참가자만 전·월세 청년 중개 보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힘.
- 청년 맞춤형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조건이 한정적이며 협소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함.

- 청년 H : “청년정책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증금과 같은 주거에 관한 정책일 거라 혜택을 받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공공주택을 분양하기도 했더라고요. 연산동에 희망 더한 아파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공급이 적었던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 청년 G : “주거의 형태 중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 [미래설계_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견의 경우 20대 후반의 연령대 참가자들은 그 생각이 아직은 이르거나 막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임.
-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여성 참가자들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참가자들은 자녀 양육을 부산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냄.
- 출산을 권하는 제도나 혜택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
- 자녀 수에 따른 지원액 제도는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싶게 하는 정책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오히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육아를 돕는 돌봄 제도가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출산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력단절의 두려움이 있음.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임.

- 청년 G :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당크이고 싶은데 이유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저의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 청년 I : “한 사람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딱히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산에서 결혼은 희망하지 않고 자녀도 지금으로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 청년 K :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 청년 L : “저는 결혼해서 덩크족이면 부산이 괜찮지만, 자식을 낳는다면 부산에 사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청년 G : “유아돌봄이랑 학원 등하원 도우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으니까 필수적이에요.”
- 청년 H : “육아휴직 의무화가 된다면 조금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 복지] 문화 인프라 수준이 높아진다면 내 삶은 부산에서.

- 영화관, 체육시설,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전시장 등을 문화시설로 여기고, 부산 문화시설보다는 사설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부산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음. 부산에서 열리는 다양한 무료 전시는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고 느낌.
- 수도권에서 열렸던 관심 있는 전시가 부산에 내려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아쉬움을 드러냄.
- 공연장이나 사직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도서관과 과학관을 원함.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
-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이 있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힘.

- 청년 G :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공연장이었고요. 그 외에는 영화관 체육시설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전시장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수영구에 있는 ‘F1963’이나 벅스코나 밀락더마켓, 영화의 전당 이런 것들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로 떠올랐습니다.”
- 청년 G :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공연장을 좀 이용을 하고 싶어요.”
- 청년 H : “프리마켓이 열릴 수 있는 복합시설 같은 곳들이 딱 몇 개라도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대미술관은 위치상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 청년 L : “부산은 바다이면서 장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관련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청년 H : “저는 부산에 시설이 생기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미술회나 전시회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 [참여권리] 청년정책의 시작은 홍보로부터.

- 주거에 관한 금융정책과 혜택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으로 유입되는 청년뿐만 아니라 유출을 막는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밝힘.
- 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함.
-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부산만의 특별한 정책과 문화시설의 혜택에 집중하길 원함.
- 다양한 문화 혜택과 직업 교육, 접근도 높은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취업을 위한 제도 외에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을 위한 지원 또한 원함.
- 오션뷰 커피 사업과 같은 부산만의 특별한 정책에 관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함.

- 청년 L : “저는 전세자금 중개 보수금 제도 혜택을 받았고 하나 더 신청한 게 있었긴 했는데 ‘머물자리론’이라고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지금 부산에서 금리 낮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 청년 K :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 청년 J : “주거에 대한 청년정책이 청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정작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 청년 I : “저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만족했던 정책이 있었다면 이제 ‘내일배움카드’가 있었는데요. (...) 1인 가구 위주로 된 정책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의 돈이 얼마 이상이면 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제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어요.”
- 청년 G :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나 실제 회사 임직원들이 제공해 주는 인터넷 강의라도 있으면”
- 청년 K : “청년들이 실제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 청년 L : “부산이 지금 커피로 되게 유명하죠. 부산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오션뷰 카페인데 그런 것과 커피 산업을 연계를 시켜서 시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하면은 멋진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③ ‘30대 초중반’ 청년이 보는 부산: 실질적 지원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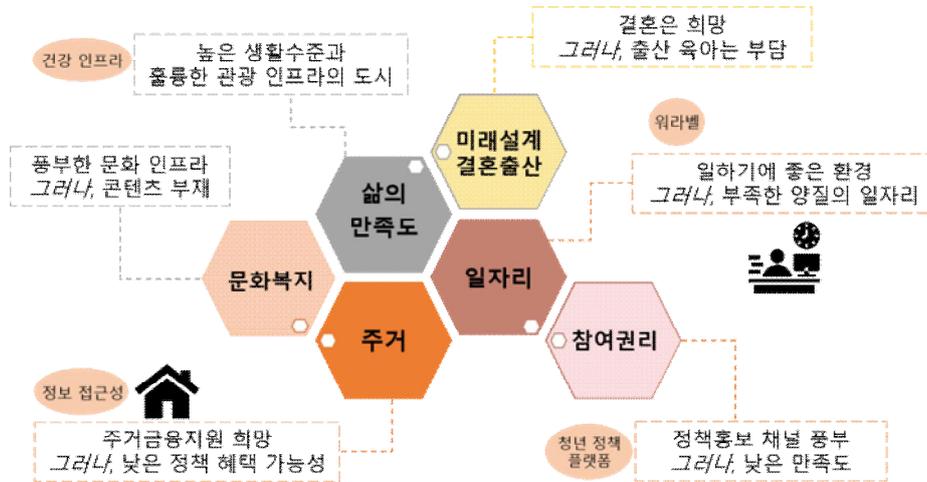
□ ‘다’ 그룹, 30대 초중반(1994년생~1989년생) 8명

- 일정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2시간(20:00~22:00)
- 30대 초중반(30세~34세) 연령대의 청년들로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기혼자, 고졸 취업자, 회사원, 여러 분야의 공무원 등 다양한 조건의 참가자들로 구성됨.

<표 3-5> FGI ‘다’ 그룹 참가자 정보

집단 구분	참가자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취업상태 구분
다. 30대 초중반 부산 거주 청년	청년 M	여	대학원졸	1인 가구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N	여	대학원졸	배우자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O	여	대졸	1인 가구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P	여	대졸	1인 가구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Q	남	고졸	배우자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R	남	대졸	배우자 동거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S	남	대학원졸	부모 동거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T	남	대졸	1인 가구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그림 3-65> 30대 초중반 청년 FGI 결과 요약



□ [부산 인식_삶의 만족도] 높은 생활수준과 훌륭한 관광 인프라의 도시

- 생활 수준이 높고 환경 인프라 구축이 훌륭한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함.
- 수도권에 비해 물가가 안정적인 편이고 워라밸 실천이 가능한 도시로 여김.
- 건강 인프라의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로 체감하고 있으며 도시 고령화에 따른 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함.
- 도시는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 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건강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하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청년 M : “언제나 관광 오고 싶은 곳이고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좋은 곳이에요. 실제로 거주하는 부산 시민분들은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 청년 O :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인프라라든지 교통편은 굉장히 만족해요.”
- 청년 P : “도시에 있어야 할 건 다 있어요. 게다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여행지도 많고 해서 살기 좋은 곳인 건 확실해요.”
- 청년 Q : “근무하다 보면 달동네 같은 곳이 엄청 많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느껴지는”
- 청년 Q : “부산의 정신병원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청년 R : “도시가 늙어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 기장소방서에서 고신대학병원까지 간다든지 혹은 더 심할 때는 창원 부산까지도 가게 됩니다.”
- 청년 S : “사람들이 다 서울로 병원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청년 T : “지금 부산이 다른 서울시나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부산이 지금 못 사는 구랑 잘 사는 구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 [일자리]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지만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 삶의 기반이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임.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많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인 경우가 많음.
- 20대 후반에 비해 취업을 위한 광역지자체나 정부 취업 프로그램 활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부산에서 현직업(종)을 유지하기를 원함.
- 교통이 편리해 출퇴근의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며 워라밸이 가능한 도시로 인식함.
- 수도권에 비해 임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청년 N : “부산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희 나이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청년 O :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일자리라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5년 이상 다닐 수 있는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 청년 R : “타 지역으로 취직을 원한다기보다는 타 지역에 적절한 일자리가 많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 청년 R : “좋은 일자리,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이 부산에 없는 걸로 압니다.”
- 청년 R : “스타트업 같은 창업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에는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 청년 S : “고용센터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혜택을 저는 취업 준비 기간에 받았었거든요.”
- 청년 Q : “또래들에 비해서 빠르게 취업을 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나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 관련된 혜택이나 정보를 얻은 건 전혀 없습니다.”
- 청년 M :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접해본 적 없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청년 T : “생각을 안 해봤어요 원하는 직종에 직접 찾아 정보를 얻었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 청년 R : “부산에서 일하기에 출퇴근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편리한 편입니다.”
- 청년 N : “다른 곳은 출퇴근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부산은 그런 면에서 아주 편한 곳입니다.”

□ [주거] 주거금융지원을 원하지만 받기 어려운 정책 혜택

- 비싼 주거 비용으로 거주지 마련 제도나 혜택에는 언제나 간절하다는 의사를 밝힘.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혜택 절차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느낌.
-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될 때의 경제적 부담감이 크고 부모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도움의 필요가 절실해 부산에 거주를 원한다고 밝힘.
-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청년 T : “지금 사는 집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지금 살고 있어서 전세자금의 80%를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그 제도를 지금 참여를 했고 만족합니다.”

- 청년 O :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이제 나라에서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지원해줘서 그걸로 사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거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금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정보가 늘 부족하고 홍보가 없고 제도나 혜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 청년 P : “작년에 부산에 시청 앞 행복주택이라고 행복주택을 지금 거의 다 지어갈 거예요. 아마 이제 신청받기에 청년 자격으로 해서 신청했거든요. 최종 발표가 지난 4월에 났는데 제가 예비 38번인가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 청년 O :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살아왔고 살고있는 지역인 부산이 낫다고 생각해요.”

□ [미래설계_결혼과 출산] 결혼은 희망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큰 부담

- 기혼의 경우와 미혼의 경우 모두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함.
- 출산과 양육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막연하고 막막한 계획에 해당함.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장기적인 제도와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청년 M : “결혼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정책은 집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 부분이에요. (...) 출산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근무 환경이야말로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보육의 문제가 결국에 피할 수가 없으니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정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청년 N : “저는 자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보가 없다 보니 무엇이 필요한지 막연해요.”
- 청년 O :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 청년 Q : “부산에서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만 있다면 조금 육아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면서 덜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청년 R : “저는 결혼을 했지만 집을 구할 때 좀 어려웠는데요.”
- 청년 S : “결혼하려면 어쨌든 집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 [문화 복지] 문화시설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질적 수준이 낮은 프로그램

- 부산 운영 문화시설에 관심이 많음.
- 부산 시민의 문화 의식과 관심, 소비심리도 높은 것으로 평가함.
-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미술관·공연장·영화관·야구장을 쉽게 떠올림.
- 부산은 문화시설 수준과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 홍보와 접근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함.
- 프로그램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청년 R : “문화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문화시설은 충분한데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청년 S : “문화시설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프로그램 자체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청년 M : “부산국제영화제를 부산에서 한다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부산에 사는 메리트도 느껴졌거든요.”
- 청년 N : “부산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좀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 미술관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래도 크고 좋은 전시는 서울에서만 열리고 부산에 잘 안 열려서 시간을 내어 서울에 가요.”
- 청년 O : “시설이 하드웨어라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부산은 인구대비 하드웨어가 그렇게 잘 갖춰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양질의 전시가 있다면 항상 사람들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청년 P : “부산의 도서관 수준은 아주 높고, 서울과의 접근도가 높은 것도 높은 문화시설이라 생각해요.”

□ [참여권리] 정책홍보 채널은 있으나 낮은 만족도

- 정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청년정책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참여할 의사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함.

- 청년 Q : “워라벨을 이루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 청년 O : “저는 청년정책을 따로 받은 건 없었고,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지원해줘서 그걸로 사는데요. 정책에 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 청년 P : “부산 청년 플랫폼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부산에서 추진했거나 혹은 추진할 예정이거나 그랬던 정책들을 모아놓기만 했어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실망했습니다.”

④ ‘30대 후반’ 성인이 보는 부산: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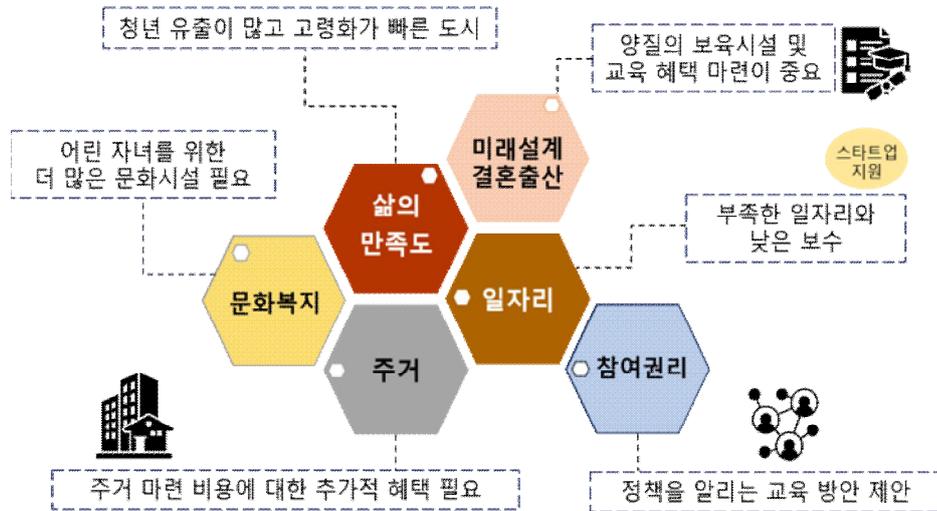
□ ‘라’ 그룹, 30대 후반(1988년생~1984년생) 4명

- 일정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1시간 30분(20:00~21:30)
- ‘라’ 그룹은 30대 후반(35세~39세) 연령대의 성인들로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회사원, 기혼자, 공무원, 창업인 등 다양한 조건의 참가자들로 구성됨.
- 현재 30대 후반 성인은 부산 현 정책상 청년 연령대가 아니나 향후 청년의 연령대가 39세까지로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게 됨.

<표 3-6> FGI ‘라’ 그룹 참가자 정보

집단 구분	참가자	성별	학력	주거 형태	취업상태 구분
라. 30대 후반 부산 거주 성인	성인 U	여	대학원졸	1인 가구	부산 취업희망
	성인 V	여	대학원졸	부모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성인 W	남	대졸	배우자 동거	부산으로 이직희망
	성인 X	남	대학원졸	배우자 자녀 동거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그림 3-66> 30대 후반 성인 FGI 결과 요약



□ [부산 인식_삶의 만족도] 청년 유출이 많고 고령화가 빠른 도시

- 부산은 생활 수준이 높고 관광 인프라가 좋은 곳이지만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느껴진다고 평가함.
- 청년 유출이 많고 노인 인구가 높아 정적이고 활기 없는 도시라는 생각을 함.
- 부산 소재 대학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청년 유출을 막는 중요한 방안일 것이라 제안함.

- 성인 U :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약간 고령화된 관광 도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 성인 V :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는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활기찬 이미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정적이고 조용하고 활기차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활기차지 않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성인 W : “옛날에는 좀 밝고 활기차다는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한 최근에는 급속도로 고령 도시가 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조금 아쉽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부산 자체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 성인 X : “부산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의 레벨을 조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산에 있는 좋은 대학들의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 · 교육] 부족한 일자리와 수도권에 비해 낮은 보수

- 대기업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해 주변 유능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꾸준히 목격하고 있음.
- 부산으로 이직을 했을 당시 큰 보수 차이로 인해 힘들었음을 호소함.
- 현재 부산에 거주하며 인근 지역 대기업에 종사하여 긴 시간 출퇴근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밝힘.

- 부산만의 차별적인 일자리를 위해 스타트업에 많은 정책의 지원을 원하며 스타트업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서 지원되기를 희망함.

- **성인 U** : “아무래도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 **성인 V** :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보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에도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내려와서 재취업을 부산에서 하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연봉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업무 강도에 똑같은 직급인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 분야가 마케팅이다 보니 AI나 IT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마케팅이나 이미 빠져 있는 업종은 많이 못 받기는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여러 업종들이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건물이 생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임대료가 싸도 좋겠고, 스타트업이 위험수위가 높아서 젊은 친구들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고용 혜택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인 W** : “부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는 선망 회사들이 없어요. 제일 가까이 있어도 창원 그리고 울산 그다음에 조선 기업이 있는 거제 정도니까 최소 1시간 이상 이동이 필요한 데라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쉬워요.”
- **성인 X** : “1인 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인으로 하는 소규모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점점 활성화 되는데 부산에서 아예 커다란 건물을 지어 스타트업 사람들을 부산으로 모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료는 몇 년 동안 무료라든지 아니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을 때 따라서 차등적으로 차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으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 정책이 많으면 굳이 다른 지역에 갈 이유 없잖아요.”

□ [주거] 부담 중인 주거 마련 비용에 대한 추가적 혜택이 필요

- 한 명의 1인 가구 참가자가 청년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힘.
- 부모 동거 참가자의 경우, 현재 나이가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시 청년 전세대출 지원을 희망하며 주거 마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힘.
- 주거 마련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대출상황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융지원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함.

- **성인 U** :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게 된 집이에요.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하셨지만 이제 만 34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막차를 탔습니다.”
- **성인 V** : “독립하게 된다면 청년의 연령대가 39세까지 늘어나서 저도 혜택받고 싶습니다.”
- **성인 X** : “저는 사실 광역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이런 홍보 조금 더 잘 되고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었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것도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출을 했었어요. (...) 결혼을 하면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 주거인데

너무 비싸서 아주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있었던 그 정책 중 하나가 국가에서 디딤돌 대출이 있었어요. 그게 2%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7%에서 8% 정도 됐기 때문에 이자도 너무 큰 것 같아요.”

□ [미래설계_결혼과 출산] 양질의 보육시설 및 제도와 교육의 혜택 마련이 중요

- 두 명의 여성 참가자는 미혼, 두 명의 남성 참가자는 기혼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참가자는 한 명의 남성 참가자.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판적이지는 않으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크다고 밝힘. 이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남.
- 양육은 부산보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음을 밝힘.
-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하며 반드시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함.

- 성인 U :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보면 복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서,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느냐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인 V : “아이를 낳으면 부산에서보다는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 교육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산이 가임연령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결혼과 출산의 마음이 있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 성인 W : “자녀출산을 계획한다면 저희도 집을 부산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볼 때 부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육아를 위한 교육 정책이나 이런 직접적인 혜택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 성인 X : “아이들을 아침부터 맡길 그런 시설이 있고 늦게까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거의 24시간 아기 돌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정책이 시행되면 양질의 선생님과 양질의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기관 자체가 정책만 바로 시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변 시설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이 일단 갖춰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 복지] 어린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

- 홍보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공연 관람을 위한 좋은 시설을 원함.
- 부산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영화의 전당 활용이 더 다채롭기를 제안함.
- 어릴 때의 문화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인이 되어서도 느낀다고 밝힘.
- 어린 자녀를 위한 문화시설, 체계적인 홍보와 알림 시스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문화공간 마련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성인 U : “부산에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따로 알기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요? 예전부터 아쉬웠던 게 콘서트나 그런 공연을 하면 서울의

고척돛처럼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고 줌 콘서트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 **성인 V** : “시설면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영화의 전당이 그냥 영화를 상영하고 있기는 한데 아이맥스리든지 특수화된 영화관은 저희가 없기는 하잖아요. 부산에서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 **성인 W** : “어릴 때부터 문화시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어 많이 알고 참여를 하고 그럴 텐데 어릴 때부터 그런 혜택을 잘 못 받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이 많아야 하고 소외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성인 X** :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알게 된 게 부산 통합 예약 시스템인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제공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요. 문화시설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먼저 떠올리고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을 때 바다와 육지와 연결되는 곳에 파도가 치면서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멋진 시설을 보았는데 부산도 부산의 환경을 활용한 이런 문화공간이 있다면 훨씬 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참여권리] 정책을 알리는 의무교육 방안을 제안

-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 혜택에 만족도가 높음. 청년 연령대가 확대되어 혜택받는 청년이 더 많아지길 희망함.
- 정책 참여에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정서와 정보력에 알맞은 홍보형태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정책홍보의 제한을 의무교육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기를 제안함.
- 부산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업 환경과 사정에 따른 적절하고 섬세한 제도가 마련되길 원함.

● **성인 U** : “아무래도 혜택받은 거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전세대출인 것 같고요. 청년 연령이 늘어나서 혜택받는 청년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혜택을 받아온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복지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게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데 현실적인 연봉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떠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돼서 이탈자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정책들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요즘에는 인스타 광고로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더 많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 **성인 V** : “회사에 있으면 산업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성희롱 교육같은 거 다 필수교육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도 필수 교육으로 해서 알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국가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부 기관 마케팅 일을 최근까지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부산에는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서울에 뒤지지 않는 제2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성인 W** : “저처럼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근과 관련해 힘들어해요. 그 이유로

부산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 친구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근무하라는 권유를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사실 외롭기도 해요. 부산에 요청하고 싶은 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되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성인 X :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홍보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조금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는 상기를 시켜주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할 것 같고요. 일자리는 부산 인근지역 근무자가 많거든요. 시간도 정말 아깝고 거리에 뿌리는 돈도 정말 아깝거든요. 주유비 정도를 좀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2) 주거 형태별 분석: ‘부산 살기’ 희망

□ FGI 참가자 주거 형태는 ‘부모 동거’, ‘1인 가구’, ‘배우자 및 자녀 동거’

○ 22명의 참가자는 ‘부모 동거 10명’, ‘1인 가구 7명’, ‘배우자 및 자녀 동거 5명’으로 구성됨.

<표 3-7> 주거 형태 특성에 따른 참가자 분류

주거 형태 구분	FGI 해당 그룹	취업상태 구분	참가자
부모 동거	가. 20대 초중반	부산 취업희망	청년 A
		부산 취업희망	청년 B
		부산 취업희망	청년 C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D
	나. 20대 후반	부산 취업희망	청년 G
		부산으로 이직희망	청년 H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I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K
다. 30대 초중반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S	
라. 30대 후반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성인 V	
1인 가구	나. 20대 후반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J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L
	다. 30대 초중반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M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O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P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T
	라. 30대 후반	부산 취업희망	성인 U
배우자 및 자녀 동거	다. 30대 초중반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N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Q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R
	라. 30대 후반	부산으로 이직희망	성인 W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성인 X

□ ‘부모 동거’ 주거 형태 : 유입 청년 관심과 더불어 청년 유출 방지 위한 관심 필요

○ 20대 초중반 청년 전원과 20대 후반 청년의 다수는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 형태.

-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전이나 소득이 높아지기 전까지 거주지독립을 계획하기 어려워함.
-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일부 지원과 더불어 시설 부분의 지원도 필요로 함.
- 광역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책과 혜택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함.
- 청년 맞춤형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부모와 동거하는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이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음.

□ **‘1인 가구’와 ‘배우자 및 자녀 동거’ 주거 형태 : 현실적인 혜택 조건과 충분한 정보 전달 필요**

- 30대 초중반 청년의 다수는 1인 가구이거나 배우자 동거의 주거 형태를 보이며 30대 후반의 경우도 1인 가구 혹은 배우자와 자녀 동거의 주거 형태를 띠.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도, 전·월세 청년 중개 보수 지원, 머물자리론 혜택 만족도 높음.
- 신혼부부 지원 주택, 행복주택 등의 제도에 관심이 높았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려웠음을 호소했으며 30대 후반 역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이 없음을 밝힘.
- 부산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만큼 재정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미래 설계에 있어서도 주거 마련과 유지를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함.
- 주거 마련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은 크며 여전히 유지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속내를 드러냄.
- 주거 마련을 위해 정책 혜택 없이 개인이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줄일 수 있거나 상환기한을 늦추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원함.

(3) 취업상태 구분 분석: ‘부산 일자리’ 희망

□ **FGI 참가자 취업상태 구분은 부산 일자리 희망 경우(부산으로 이직을 희망, 부산 취업희망,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 부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참가자 6명, 부산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참가자 2명, 부산에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길 희망하는 참가자 11명,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참가자 3명으로 구성됨.

<표 3-8> 취업상태에 따른 참가자 분류

취업상태 구분	FGI 해당 그룹	학력	성별	참가자
부산 취업희망	가. 20대 초중반	대재	여	청년 A
		대재	여	청년 B
		대재	여	청년 C
	나. 20대 후반	대졸	여	청년 G
		대학원졸	남	청년 K
라. 30대 후반	대학원졸	여	성인 U	
부산으로 이직희망	나. 20대 후반	대졸	여	청년 H
	라. 30대 후반	대졸	남	성인 W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가. 20대 초중반	고졸	여	청년 D
	나. 20대 후반	대졸	여	청년 I
		대졸	남	청년 L
	다. 30대 초중반	대학원졸	여	청년 M
		대학원졸	여	청년 N
		대졸	여	청년 O
		대졸	여	청년 P
		고졸	남	청년 Q
	라. 30대 후반	대졸	남	청년 T
		대학원졸	여	성인 V
		대학원졸	남	성인 X
나. 20대 후반		대졸	남	청년 J
타 지역 이직희망	다. 30대 초중반	대졸	남	청년 R
		대학원졸	남	청년 S

□ 부산 일자리 희망 : 워라밸이 가능한 부산

-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업과 직업 소개 등 취업을 돕는 교육 관련 정책과 지원이 많아지길 원함.
- 유능한 주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 부산은 생활 수준이 높고 문화 환경 인프라가 만족스러우며 교통이 편리한 도시. 따라서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려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지원되길 원함.
- 다양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확대되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에도 지원이 많아지길 원함.

□ 타 지역 이직 희망 :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부산

-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참가자의 경우, 부산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부산에 없음이 이유임.
- 엔지니어, 전문 기술인이 일할 수 있는 회사가 타 지역 소재임.
- 수도권에 비해 적은 보수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유능한 부산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 이직을 희망하게 하는 원인에 해당함.

- 인근지역 대기업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부산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음. 관련 정책이나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함.

(4) 청년연령 해당 기준과 결혼 여부에 따른 분석

□ FGI 참가자는 현 정책의 청년 연령대(19세~34세)에 해당하는 참가자와 청년연령 상한제 시행 시 청년에 해당할 성인(35세~39세)

- 청년 연령대 그룹(가, 나, 다 그룹) 18명과 성인 그룹(라 그룹) 4명으로 구성됨.
- FGI 참가자는 기혼 5명, 미혼 17명임.

<표 3-9> 청년 해당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른 참가자 분류

청년 해당 구분	FGI 해당 그룹	결혼 여부	취업상태 구분	참가자
청년	가. 20대 초중반	-	부산 취업희망	청년 A
		-	부산 취업희망	청년 B
		-	부산 취업희망	청년 C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D
	나. 20대 후반	-	부산 취업희망	청년 G
		-	부산으로 이직희망	청년 H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I
		-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J
		-	부산 취업희망	청년 K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L
	다. 30대 초중반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M
		기혼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N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O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P
		기혼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Q
		기혼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R
		-	타 지역 이직희망	청년 S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청년 T
성인	라. 30대 후반	-	부산 취업희망	성인 U
		-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성인 V
		기혼	부산으로 이직희망	성인 W
		기혼	부산 일자리 유지희망	성인 X

□ 청년 연령대 :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시설 필요

-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해지기를 바라며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가 창출되길 원함.
- 높은 생활수준에 걸맞은 다채롭고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개선되길 기대함.
- 참신한 홍보와 편리한 접근성, 일상으로의 연결성 등의 문화도시로써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개선되길 제안함.

○ 사회진출과 거주지 마련을 돕는 금융혜택 정책의 확대를 요구함.

□ **성인 연령대 :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정책, 자녀 세대를 위한 혜택 필요**

○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밝힘. 직장생활 평균 10년 이상의 성인으로 시대와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을 필요로 함.

○ 취업과 창업에 지원 가능한 분야가 확대되길 원함.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세대, 즉 어린 세대를 위한 문화시설의 발전과 문화 혜택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

○ 받고 싶은 청년정책으로 주거 마련과 주거 유지를 위해 가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함.

□ **부산 청년이 생각하는 결혼 : 현실적인 문제에서 언제나 발목이 잡히는 일**

○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정적.

○ 미혼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며 큰 부담을 느낌.

○ 주거 마련을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고, 경력단절, 돌봄시설,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문제도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에 해당함.

○ 기혼의 경우, 결혼 당시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무거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있기를 희망함.

4) 소결

□ **청년은 사회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기’가 아닌, 과정에 해당하는 ‘성인진입기’**

○ 전통적인 인간발달 이론에서는 청소년기 다음 시기를 ‘성인 초기’로 보았으나 전통적인 단계 모델은 현대의 발달 양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Arnett 2000).

○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연령대는 안정된 사회적인 모습으로 정착하는 시기라기보다 환경과 직업의 전환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 불안정한 시기로 보아야 함(김비아·박상준·이고은 2020).

○ 현대인들은 급격한 사회변화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에서 성인 초기로의 변화 시기를 꽤 길고 오랫동안 경험하게 됨.

○ 이러한 변화로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사이에 새로운 인생 단계가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단계를 경험한다고 제안함(Arnett 2000).

-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성인기나 성인 초기라기보다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성인이 되기까지 현대 사회는 그 진입장벽이 높고 기대 수준과 인식도 높음.
- 20대, 30대의 청년들은 연쇄적인 국내 경기 침체와 저조한 채용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스스로 사회적인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거나 결혼과 출산과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다소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실제로 청년들은 취업 불안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일 못지않게 여가 생활을 중시함.
-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가 남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는 의견이 없었음. 오히려 성평등에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부산 청년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하는 바에 성차 없이 의견이 비슷함.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관한 미래설계 영역으로, 남성의 경우 육아에 대한 우려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난임, 출산, 육아, 돌봄, 교육 등 미래설계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으로 나타남.

□ 살고 싶은 곳이지만 청년들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

-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임.
- 부산은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환경 조건이 좋으며 관광 인프라가 발전해 청년들이 살기에 분명 지루하지 않은 도시임.
-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살고 싶은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부산에서의 취업은 어렵고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이 없고, 그러한 이유들로 유능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냄.
-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은 20대보다 30대 초중반의 청년들, 즉 실제로 5년 이상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에게서 더욱 실감하는 의견임.
- 20대 초반이 경우 학교와 연계된 직업 교육, 기업과 회사 홍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길 원함.
-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받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실제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 면접을 위한 교통비, 생활 지원 보조비 등으로 내실 있게 쓸 수 있었다는 장점을 짚음.
- 청년들은 일자리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취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스타트업 등의 창업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부산은 청년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의 활성화가 가능한 정책으로도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김준현 2019)고 보고 있으나 청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청년 정직원 채용 방안, 오션뷰 특화 카페의 커피 산업 정책, 해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여러 특화 산업과 서핑 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 높은 생활 수준과 좋은 환경에 비해 부족한 건강 인프라와 어려운 주거 마련

-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부산이 삶의 공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공간에서, 대학생은 대학이나 부모 도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정부나 광역지자체에 의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류승우, 이양기 2022).
- 청년들은 주거 문제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거 마련 정책이 다양하고 많아지길 바라며 혜택 요건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 가구 수에 한정된 조건이나 타 지역에서 유입된 청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정하지 말고 부산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적 독립을 돕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부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교해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는 믿음이 강함. 실제로 큰 병이나 검진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실태임.
- 의료진의 임금 격차도 심해 젊은 의료진들은 대부분 서울로 이동하길 원한다고 함.
- 응급실 접근도가 떨어지고 소아청소년과 이용이 어려워 부산의 건강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실정으로 체감하고 있음.

□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개방적이나 출산과 육아는 두려운 미래

- 오늘날에 결혼 연령은 20대 중반으로 보았던 예전과는 달리 30대 초중반으로 중앙값이 크게 달라짐.
- 결혼과 육아에 관한 의견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득 증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문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함.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20대 청년들에 비해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다소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육아 부분에서 막연하고 어려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여성 참가자의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 참가자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외에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자녀 수에 따른 비용 지급과 같은 정책은 실제로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결혼 부담 감소, 자녀 양육 부담 감소, 돌봄 정책의 확대 등의 현실적인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훌륭한 문화 인프라에 비해 아쉬운 프로그램 수준과 미흡한 홍보수준

- 20대 초중반의 경우 문화 인프라의 접근도의 어려움과 연결성의 부족함을 언급함. 생활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다양해지길 원함.
- 20대 후반 청년들은 부산 문화시설보다 기업 문화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함.
- 부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들은 수도권 보다 수준이 낮거나 늦고 홍보가 부족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부산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후반 성인의 경우 자녀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 많아지고 문화 혜택이 다양해지기를 원함.
- 부산 시민은 문화시설을 소비하기에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그에 비해 시설적인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느껴 안타까움을 드러냄.
- 부산국제영화제, 락페스티벌과 같은 부산은 부산지형의 특성을 드러내는 문화가 잘 발달해있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느낌.
- 문화 정보의 부족과 문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생활권 중심의 문화활동과 공간조성, 다양한 예술 생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희망함.
- 문화는 일방적 감상과 향유가 아닌 생산과 어우러진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따라서 부산 청년 또한 문화예술의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음.

□ 부산 청년정책과 관련한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길 원하는 부문은 ‘일자리 확대’

- 창업 지원 육성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 및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부담 금액이 늘면서 청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주택과 거주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금융정책으로, 재무설계 교육 또는 컨설팅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미취업상태의 청년들 또한 금융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함.

- 오늘날 청년의 사고는 취업과 창업 정책 수립의 기본 정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수요자의 의식과 현실 인식에 동떨어진 청년정책은 부정합을 야기하고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자리, 주거, 미래에 관한 생각 차이를 드러내는 청년 남성과 여성

- 일자리와 주거, 미래설계 분야 전반에 대한 불안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우려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청년 남성은 안정적 고용을 위한 혜택과 주거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반면, 청년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창업 지원의 분야 확대에 관한 혜택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임.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해 우려가 크고 미래설계를 막연해하는 것은 남녀가 동일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난임, 육아, 돌봄, 교육 환경 등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지원 혜택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기를 기대함.
- 부산 청년은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을 비롯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함. 사회적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보임. 청년세대의 젠더 격차나 갈등은 오히려 외부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의견도 제시함.

〈참고〉 FGI(초점집단면접) 결과 요약

구분	부산에 대한 인식	일자리·교육	주거	결혼·출산	문화	참여·권리
20대 초반	· 일자리 부족 · 관광도시로서 가능성이 큼	· 일자리 부족 · 영화, 해양, 레저 분야 일자리 특화 필요	· 주거비 부담 느낌 · 독립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로 출산을 꺼림	· 좋은 공연장과 프로그램 확대	· 익숙한 홍보채널 자주 이용 · 건강 및 취업지원 정책 확대
20대 중후반	· 큰 병원이 부족 · 다양한 체육시설 부족	· 경력직 위주 선발 ·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 주거정책 홍보 부족 · 주거지원 조건이 까다로움	·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더 부정적 · 출산지원보다는 돌봄지원 더 필요	·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신뢰 부족	· 정보획득 어려움 · 금융 및 창업정보 확대 필요
30대 초반	· 빠른 고령화 도시 · 병원인프라 부족	· 좋은 일자리 부족 ·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가 존재 · 워라벨 환경 중시	·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확대 ·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와 현실성이 부족	· 자유로운 육아 휴직 분위기 필요 · 주거비가 부담됨	· 문화에 대해 관심 많음 · 공적분야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정책홍보 부족 ·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음
30대 후반	· 도시고령화 걱정 ·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	· 대기업 부족 · 임금격차 불만 · 창업공간 확대	· 주거금융대출 정책에 관심 많음	· 양육비 부담으로 이사 고려 · 보육시설 확대	· 영유아 문화시설 부족 · 영아 때의 문화 소중히 여김	· 청년세대 정서에 맞는 홍보 필요

※ 공통된 의견 : 부산은 문화혜택, 비교적 좋은 환경, 높은 관광인프라 수준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고 부산에 대한 공지가 높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자리부족, 건강인프라 부족, 높은 주거비 등으로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 의견도 나타남.